

I. 서론

1.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수련거리 기본형 개발사업은 청소년 기본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92년부터 5개년에 걸쳐 약 150여종의 기본형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청소년과 실천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92년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수련거리 44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개발과정에서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련거리들이 특정 활동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였다. 둘째, 수련거리의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신한 내용을 중심으로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용들로 구성하였고, 셋째, 청소년 지도자의 의견을 수련거리 개발시 적극 반영하며, 넷째, 수련시설과도 연계성이 있는 수련거리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의 특성과 주어진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활동시간, 안전성, 지역적 특성, 융통성과 독창성, 문화정체성과 문화감수성, 국제화 및 세계화, 가족단위의 수련거리 등을 고려하였다.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도의 제고이다. 아무리 좋은 수련거리라도 수련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면 그 수련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활동공간인 현장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연구, 수련거리의 현장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 즉 수련거리 현장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현장은 크게 가정, 학교,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거리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가정, 학교,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등의 현장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 수련거리와 현장을 연계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수련거리를 가정, 학교,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등의 현장과 연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잘 실시할 수 있는 현장운영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장에 있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거리의 종류 및 실시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낮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며 생활하는 장소로서 학교에서의 수련활동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이 잘 실시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사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거리의 종류 및 실시전략을 담고 있다.

2. 개발의 방법

1) 문헌연구

학교 수련활동 운영 사례를 담은 국내외의 책들과 연구들 속에서 유용한 부분들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으며, 학교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 운영사례들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2) 면담과 자문

교육청, 국민학교, 중학교 등을 방문하여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견해와 청소년 자신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련거리의 종류 및 실시방법을 알아 보았다.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통하여 학교의 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운영의 문제점, 학교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 및 의견을 수집하고 후에 면담자가 요약, 종합하였다.

3) 시범운영 및 참여관찰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 학교 수련활동 운영모형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국민학교는 ‘자율학습의 날’, 중학교는 ‘특별활동’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의 교사들과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연구 주체로 수련활동 내용과 실시 전략을 제시하고 학교는 운영 주체로 수련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협력사업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협력 학교는 서울중원국민학교와 오남중학교이다. 각 학교별로 사업프로그램과 일정은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1-1] 협력 학교의 수련활동 내용 및 일정

	중 원 국 민 학 교	오 남 중 학 교
수련활동 운 영	5학년 담임교사, 5학년 남녀 학생, 명예교사 어머니, 한국 청소년개발원	정희선 환경주임교사, 환경보전 반 남·여학생, 한국청소년개발 원
수련활동 내 용 및 일 정	◦ 활동명 : 민속놀이 활동 ◦ 개 요 : 윷놀이, 땅따먹기, 고누놀이, 비석치기, 탈춤, 투호, 태극진, 두껍아 등의 민속놀이를 실시 ◦ 일시 : 6월 24일 토요일 ◦ 장소 : 중원국민학교 운동장	◦ 활동명1 : 수질검사 ◦ 개 요 : 수돗물과 지하수의 맛, 냄새, pH, 탁도, 철, 동,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등을 기준치와 비교 ◦ 일시 : 6월 7일 수요일 ◦ 장소 : 오남중학교 과학실험실 ◦ 담당 :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 활동명2 : 환경보전 관련비디오 상영 ◦ 개요 : 「편란도 환경보존과 인간」을 상영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토론 ◦ 일시 : 6월 21일 수요일 ◦ 장소 : 오남중학교 환경보전반교실 ◦ 담당 : 한국청소년개발원

Ⅱ. 학교 수련활동의 배경

제1장 학교 수련활동의 이해

1. 학교 수련활동의 개념

‘수련’이란 용어는 한자어로는 ‘수련(修鍊)’이라고 표기하고, 영어로는 ‘training, practice, drilling, discipline’ 등으로 표현된다. 이 말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마음을 잘 닦아서 익힘”, 혹은 “인격, 기술, 학문 등을 닦아서 단련함”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수련이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수련활동은 지식·기능과 같은 수단적 가치를 배양하는 데 그치고 있는 과학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전인적 인간이라는 중국적 가치를 체험하는 학습활동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라 하겠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특징은 한 개인이 참여하는 개인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욕구충족을 느끼는 집단적 활동이다. 청소년들은 집단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상, 언어, 행동양식, 태도, 의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방향제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신뢰, 성실, 친근감, 우애, 유쾌함, 희생정신, 용기, 시간약속, 상대방에 대한 존경, 공동체 의식, 최선을 다하는 마음, 희망, 즐거움, 끈기, 인내, 봉사정신 등도 얻는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참여자 개인이 활동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자발적 활동이며, 참여자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만지거나, 활동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실행해보

는 체험적 활동이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궁금하였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나 사물의 현상에 대해 물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탐구적 활동이다. 즉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실습, 재배, 사육 등의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재, 유적지 또는 언어 등에 대한 조사활동과 여러가지 실태 혹은 상관 관계를 밝히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활동이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개인적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함께 나누는 의식을 길러주고, 집단형성을 통해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시켜 주는 모험적 활동이다. 모험활동은 정신적인 단련을 통해 청소년들을 성숙시키고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기르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시킨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학습자중심의 활동이다. 학교교육이 입시준비를 위한 단편적인 지식제공에 치우치고, 교육방법도 교사중심의 획일적인 학습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은 무시되게 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이러한 학교교육과는 달리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과제수행 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문적 활동 중심에서 기초적이고 보완적인 활동 중심으로, 획일성·타율성·수동성·모방성 중심에서 융통성·자율성·능동성·창의성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계획 수행하려는 청소년 활동이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할때 학교 수련활동의 개념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즉,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계발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교 수련활동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학생집단적 활동이면서 교과활동외의 자발적, 체험적, 탐구적, 모험적 활동이다. 그리고 특히 학교교육이 입시준비를 위해 단편적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주입식, 수동적 교과활동인데 반하여, 수련활동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자율성·능동성·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학교 수련활동의 목적

학교 수련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활동을 제공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학교 수련활동은 주로 국민학교의 경우는 특별활동, 자율학습의 날 등으로 실시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특별활동 등을 이용해 실시되고 있다. 그밖의 학교 행사를 통하여 학교 수련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1) 국민학교 특별활동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고, 협동·봉사 정신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국민학교 특별활동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

둘째, 공동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각종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원만한 인간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다.

셋째, 학생의 개성과 소질에 알맞은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게 한다.

2) 국민학교 자율학습의 날

국민학교 자율학습의 날은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내용을 보충·심화하고 창의성, 자율성, 협동성을 길러 자주적 학습능력과 전인적인 인간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3) 중학교 특별활동

중학교 특별활동은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개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여,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며, 둘째,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선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풍부한 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슬기로운 선택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여, 자주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하며, 넷째, 집단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길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3. 학교 수련활동의 특징

일반적으로 특별활동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특별활동은 교과활동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교과 활동이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비교적 이론 중심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 한다면 특별활동은 아이들의 자율적인 활동, 구체적인 체험 활동이라고 보는 면에서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따라서 특별활동은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별활동은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아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신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이다.

세째, 특별활동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개성의 신장을 도모한다.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보다 꾸밈이 적은 진정한 개개인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의 사회적 참여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도하면

아이들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개성의 신장을 꾀할 수 있다.

네째, 특별활동의 운영은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집단 편성의 면에서 융통성을 가진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공헌해야 하며, 따라서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자극되어야 한다는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특별활동의 전개를 위한 시간 운영에 융통성을 지닌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위한 장소의 선정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활동의 기능은 ‘자주성’과 ‘협동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교과 학습은 지식, 기능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주지주의적 교육관을 배경으로 하므로 학습은 사전에 계획된 교재에서 출발하고 교사가 수업을 통제하며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재가 부여된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차를 돌볼 수 없게 되고 일률적인 학습이 진행되므로 학습 활동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고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특별활동은 이와 같은 교과 학습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개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창조의 힘을 기르고 개개인이 지닌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자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동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여 계획과 실행, 나아가 평가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강조함으로써 자주성을 키우는 교육적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여기서 자주성이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미의 자발성이요,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하려는 의미로서의 주체성을 뜻한다. 또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내면에서 규제하려는 의미로서의 자율성을 말한다.

다음에 관련되는 특성으로 독립성과 적극성 및 창조성을 들 수 있다. 즉 자력으로 해 보려는 뜻의 독립성이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발언하고 실천하려는 의미에서의 적극성이요, 또 언제나 생활 주변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의미로서의 창조성이다.

여기에서 특별활동은 교사의 지도성에 의해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되므로 교사는 이와 같은 방법 원리를 가지고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협동성에 관한 문제다.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지배되어 온 교과 학습은 인간 교육, 전인 교육이라는 관점보다도 개인의 입신 출세를 교육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고 방식에 지배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의 학업 성적을 높이고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어 항상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대타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과 학습은 경쟁심과 명예심에 호소하며 타인을 능가하려는 학습 활동이 장려되고 전달된다.

이에 반해 특별활동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화의 경험을 부여하고 타인과의 공동 작업의 기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협동적인 성격을 키우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

우리 나라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에서 “집단 생활에의 참여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진취적인 생활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을 강조하였거니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요청된다.

이렇듯 자주성과 협동성은 교과 활동의 결함을 보충하는 특별활동의 주요한 두가지의 기능을 이루게 된다. 즉 교과 학습과의 비교를 통해서 교육 목적에 기여하는 특수한 교육적 기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학습의 기회로서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개별 학습과 협동성을 강조하는 공동 학습을 조화시키고, 생활지도의 기회로서는 자주성을 원리로 하는 개별 지도와 협동성을 원리로 하는 집단 지도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킴으로써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4. 학교 수련활동의 의의

학생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즉, 국민학생은 약 5~6시간을, 중학생은 약 8~9시간을, 고등학생은 정규 수업외에 자율학습 등 약 10~13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자연히 학생들은 교과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부담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련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은 수련활동의 가치에 내포되어 있다.

1) 즐거움

많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권태로움과 단조로움 그리고 불만족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롭고 즐거운 일을 찾거나 수련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수련활동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즐거움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참가 청소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2) 야외속의 배움

실내에서의 배움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야외속의 배움은 배움의 장소를 야외로 옮긴다는 의미 이상의 많은 의의를 지닌다. 자연보호, 환경, 여가,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 발견, 탐험, 모험, 감각의 자연적 활동, 강한 흥미, 현실성, 행동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야외속의 배움은 야외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배움활동에서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을 배우며, 지적, 정서적, 레크리에이션적인 모든 야외활동에 의해서 창조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한 심신을 육성하는 활동이라 하겠다.

3) 전인적 성장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이 온전한(wholeness), 조화적(all-rounded), 전인적(whole-minded)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전인적 인간육성은 학교교육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기형적인 지식의 비대화로 인하여 야기된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이 현대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수련활동이 학생들의 사고능력이나 창조력, 판단력, 추리력, 신체활동력 등을 최대로 동원시킬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여가적 의미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의 여가활동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부모의 권유와 강요에 의한 피아노, 미술학원 등의 과외 활동들이 대부분이어서 참다운 여가경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수련활동은 학생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 주고, 생활의 폭을 넓혀주며, 활동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여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 건전한 놀이

놀이라는 개념은 일에서 떠나 단순히 즐기는 활동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부터 여가선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발달시키고 나아가 자아실현에 이바지하여 현대사회에 만연된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련활동은 놀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건전한 놀이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상상의 세계를 제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원동력 구실을 한다. 또한 놀이는 성인의 역할을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의 기능 이외에 언어체계의 기초 학습과 공동체적 삶의 규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긴장 및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심리적 치료효과 등을 지니고 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획일주의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려는 과학주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등은 청소년의 놀이 정신을 파괴하고 청소년 문화의 기현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학교 수련활동은 학생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그들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놀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긍정적 자아정체감

청소년기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개인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학업성적이 곧 학생 개인의 가치인양 여기는 학교 및 사회의 현실속에서 다른 학생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그만큼 낮은 가치의 사람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학업성적만이 학생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각자 다양한 재능, 흥미, 관심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개성을 나타내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럴때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된다.

학교 수련활동은 학생 자신의 재능이나 흥미,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고, 발달하는 신체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다. 즉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7) 생활지도

학교의 입주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학생들간에 진정한 우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지도 오래 되었다. 더우기 여러가지 고민을 가진 학생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크고 작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과 남들을 파괴하고 있다. 학교 수련활동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덜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수련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교사 및 학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교사는 수련활동을 통하여 학생들과 가까워져 자연스러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제2장 학교 수련활동의 현황

1. 국민학교 수련활동의 현황

1) 특별활동

국민학교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육성을 위한 활동이다.

국민학교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자주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이 중시된다. 특별활동의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 스스로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적응 활동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건, 지역의 실정 등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자원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활동이다.

(1) 활동 목표

국민학교 특별활동은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고, 협동·봉사 정신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 공동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각종 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한다. 학생의 개성과 소질에 알맞은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게 한다.

(2) 활동 내용

[표 II-1] 활동영역별 활동내용

활 동 영 역	구 체 적 인 활 동 내 용
취 미 활 동	◦ 문예, 독서, 학교 신문, 방송 ◦ 회화, 서예, 공작, 공예, --꽃꽂이 ◦ 전통 음악, 합창, 합주 ◦ 웅변, 연극, 동화 구연 ◦ 바둑, 장기 등
체 육 활 동	◦ 육상, 구기, 체조, 무용 ◦ 민속 놀이, 씨름, 태권도 ◦ 수영, 빙상 등
노 작 활 동	◦ 사육, 재배, 원예 ◦ 조리, 수예, 목공
청소년 육성 단체 활동	◦ 유년대, 유녀대 등

학교 수련활동과 가장 관련있는 클럽활동은 흥미, 취미, 소질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클럽의 활동에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며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II-1] 와 같다.

(3) 활동 방법

특별활동에 배정된 시간은 학급활동과 클럽활동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학교 활동 시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다만, 1, 2, 3 학년은 학급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클럽활동을 운영할 수도 있다. 특별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분야별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조사, 파악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을 선정, 운영하되, 관련 법령, 특별활동의 목표, 학생의 발달 단계 등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4) 운영상 유의사항

① 학급활동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하며, 학급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 분담 활동은, 학생 전원이 한가지 이상의 일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되, 주기적으로 역할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정비하여 활용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데 유의한다. 연간 학급활동 운영 계획은 담임 교사와 전 학생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 교과 활동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활동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전교 어린이회 조직·운영은 학교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 활동은 학급의 역할 분담과 연계하여 학교에 필요한 부서를 적절하게 설치, 운영한다.

전교 어린이회는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종합하고, 결정된 사항은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교육적으로 지도한다. 소풍, 수학 여행, 견학 등의 현장 학습 활동은 실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생과 가정에 미리 알리고, 실시 과정에서의 교육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사후에 정리, 발표하여 반성, 평가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 봉사 활동은 학생의 능력, 수준에 알맞게 전개하여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며, 클럽활동과 연계하여 클럽별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행사 활동은 가급적 학생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시행, 반성 등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클럽활동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생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및 학교 실정, 지역 특성 등에 알맞은 클럽을 조직하고, 전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클럽의 가입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고, 상담 활동을 통해 클럽 선택에 대한 담임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조직 단위, 시간 운영, 장소, 시설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 클럽활동은 학생 중심의 흥미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고, 교사가 일관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활동 평가

①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평가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 학급활동 : 담임 교사
- 학교활동 : 담임 교사, 담당 교사
- 클럽활동 : 담당 교사

②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상황의 관찰을 통한 평가, 학생의 활동 실적을 통한 평가, 질문지를 활용한 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③ 각 영역별로 평가의 준거가 될 평정 척도 또는 평가 관점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이 평가 결과에 반영되게 한다.
- ④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한다.

2) 자율학습의 날

(1) 자율학습의 날의 정의와 목적

자율학습의 날은 책가방 없는 날이라고도 한다. 「책가방 없는 날」이란 책가방 없이 등교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학습일이다.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내용을 보충·심화하고 창의성, 자율성, 협동성을 길러 자주적 학습능력과 전인적인 인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자율학습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학습의 날의 목적은 ①지식 편중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과 성적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지닌 인간교육의 강화, ②핵가족화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나 보다는 우리’ ‘경쟁 보다는 협동’이라는 공동체 의식 함양, ③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에서 학생 자신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학습으로의 전환에 있다.

(2) 운영 방침

자율학습의 날 운영 횟수는 월 1회 이상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하여 분산하여 실시한다.

활동 프로그램은 교실 수업에서나 교과 시간에 소홀하기 쉬운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자유 탐구, 현장답사, 재난대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구상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 대상은 학교 규모와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학급, 학년, 학교 단위로 조직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급 단위의 소규모 운영을 권장한다. 활동 장소는 프로그램 내용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제동행으로 전인적인 인간교육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3) 운영 방법

교육과정과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월별 활동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지도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학생들의 개성, 흥미, 능력을 존중하며 즐겁게 참여하도록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학습 현장에서 질서교육과 환경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한다.

[표 11-2] 활동 예시

영역	활동내용
현장견학	구청, 동사무소,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 의회, 방송국, 신문사, 은행, 공장, 전시회, 동물원, 식물원
자연관찰	학습원, 동산, 산, 들, 내, 강, 연못, 바위, 암석
문화유적 탐방	유적지, 전적지, 명승고적, 박물관
실험·실습활동	각종 실험, 화단 가꾸기, 조리, 바느질, 사육재배
수련활동	극기 수련, 산행, 야영
발표회	학예 발표회, 작품 전시회, 문예 발표, 음악 발표, 웅변, 나의 꿈 발표
체육활동	체육대회, 육상대회, 구기대회, 수영, 빙상
민속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그네타기, 널뛰기
취미활동	독서, 음악, 미술, 만들기, 서예
봉사활동	고아원, 양로원 방문, 자연보호
기타	자유 탐구, 환경 교실, 예절 교실, 교실 꾸미기, 재난대비교육, 교통안전교육

사전,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며 특히 운영 후에는 감상문, 관찰기록문, 참관소감문 등을 작성토록 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인사 및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4) 운영상의 유의점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창의적이며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특정교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치밀한 사전계획과 지도로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며 특히 학생의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장학습시는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장 학습 장소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을 선정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책가방 없는 날’이 자칫 ‘노는 날’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한다.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통신 등을 이용 소풍과는 별도의 교육 활동임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준비 → 계획수립 → 사전지도 → 실시 → 평가·반성을 통한 일련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한다.

[표 II-3]은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을 위한 연간 계획서의 예이다.

[표 11-3]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연간 계획(제4학년)

월	활동주제	활동목적	활동내용	활동장소	학습대상			비고
					전교	학년	학급	
3	나의 꿈 나의 자랑	· 자신의 꿈을 발표 하고 꿈을 키워 나 가는 태도 함양	· 자기소개 놀이 · 나의 꿈 나의 자랑발표 · 나의 꿈 그림으로 교실 꾸미기	교실			○	
4	자연 관찰	· 자연관찰 능력을 기르고 자연보호 정신 고취	· 음지와 양지 식물관찰 하기 · 관찰 내용 발표 · 햇빛과 식물의 사람관 계 알기	학교 주변 동산		○		
5	어린이날 체육 대회	· 어린이날 기념 체 육 대회를 통하여 강인 한 의지와 명랑한 생활태도 함양	· 어린이날 기념식 · 학급별 체육대회 · 정정당당하게 참여하는 태도	운동 장		○		
6	북한 바로 알기	· 북한의 실상을 바 로 알고 통일의 필 요성 인식	· 통일연수원 견학 · 북한의 실상 바로알기 · 통일의 필요성 인식	통일 연수 원				
7	예절 교실 운영	· 예절교육으로 경로 효친 정신 함양	· 예절의 기본정신 알기 · 전통예절 익히기 · 경로효친정신 기르기	예 절 실			○	
9	민속 놀이 한마 당	· 고유의 민속놀이를 익혀 건전 놀이 문화 정착	· 고유의 민속놀이 알기 · 제기차기, 널뛰기, 씨름놀 이 하기 · 놀이방법 익히기	운 동 장		○		
10	도서 관이 용	· 도서관 이용법을 알고 독서 습관 함 양	· 도서관 이용법 · 독서 요령 · 독후감 쓰기	인근 도서 관			○	
11	어린이 숨쉬 한마 당	· 소질과 적성을 계 발하고 더욱 신장 시켜 나가는 태도 함양	· 희망 영역별 작품활동 · 종합전시회 · 학급별 학년별 종합학 예 발표회	강당 (교실)			○	
12	고아 원, 양로 원 방문	· 불우한 이웃을 돕 고 고통을 함께 나 누는 태도 함 양	· 고아원(양로원) 방문 · 위안 공연 · 봉사활동	인근 고아 원, 양로 원			○	
2	환경 교실 운영	· 공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천 의지 고취	· 공해의 원인과 심각성 알기 · 공해에 대한 코너별 학습 · 공해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 발표	교실		○		

자료 : 서울특별시 교육청,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방안, 1995.

2. 중학교 수련활동의 현황

1) 특별활동

중학교 특별활동은 집단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특별활동은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건, 지역의 실정 등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자원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활동이다.

(1) 활동 목표

중학교 특별활동의 목표는 첫째, 개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여,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며, 둘째,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선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풍부한 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슬기로운 선택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여, 자주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하며, 넷째, 집단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길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2) 활동 내용

학교 수련활동과 가장 관련있는 클럽활동은 다음 [표 II-4]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표 II-4] 활동영역별 활동내용

활동영역	구체적인 활동내용	
학예 활동	- 문예, 신문, 독서, 외국어, 한문 - 웅변, 토론, 연극, 방송 - 컴퓨터, 과학, 사회 조사	- 합창, 기악, 국악 - 서예, 회화, 조소, 공예, 사진 - 기타
체육 활동	- 육상 - 체조, 무용 - 구기 - 투기	- 수영, 빙상 - 민속 놀이 - 기타
생산 근로 활동	- 사육, 재배, 원예, 조경 - 전자, 목공, 제도 - 주산, 타자, 부기 - 협동 조합, 저축 조합	- 해양 탐사, 양어 양식 - 요리, 수예, 재봉, 매듭 - 기타
청소년 단체 활동	- 적십자,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MRA, 청소년 연맹, 종교 -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른 특정 청소년 단체 - 기타	
여가 활동	- 바둑, 장기, 동산, 낚시 - 음악 감상, 미술 감상	기타
학교 특정 활동	학교장이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실정 등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실시하는 활동	

2) 중학교 수련활동 운영상의 유의점

① 수련활동 계획상의 유의점

먼저 모든 영역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계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 흥미, 관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며, 특별활동의 각 영역 간에는 물론, 교과 활동과도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전 교직원의 협조와 참여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조직하며,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학급활동과 클럽활동에 매학기 2 단위 정도를 배당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회 활동과 학교행사를 위한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배당된 단위수(12단위)는 최소 활동 시간량을 제시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초과 운영될 수 있으며,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몇 시간을 연속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학교의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전인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힘쓴다.

② 수련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먼저 학생의 요구, 계열의 특성,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 등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활동 부서를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부서의 편성은 필요에 따라 학급 단위, 학년 단위, 두세 학년 단위 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외의 다른 클럽활동 부서나 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클럽활동의 결과를 부서별로 또는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권장한다.

3. 학교행사

학교행사는 학급회의 활동, 클럽활동과 함께 특별활동에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클럽활동을 주로 특별활동이라 하고, 학교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학교행사를 따로 분류하였다.

1) 학교행사의 현황

학교행사의 연간 계획은 주로 교장 및 간부 교사들이 세우거나 전년도 계획에 준하여 세우는 학교가 많아 일반 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학교행사가 아직도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타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도 적은 실정이다.

2) 학교행사의 중점적인 지도 사항

학교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점은 질서와 규율이며 그 다음이 행사 참여도, 행사의 성과, 협동성 등이다. 행사의 종류 중에서는 현장 학습 행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학교행사의 결과 처리

행사의 결과 처리는 행사 후의 반성과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행사의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교행사후 곧 잊어 버린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교사들의 반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행사가 끝나면 그만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표 II-5]는 학교행사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5] 학교행사 종류

학교 활동	행사 활동	▫ 의식 행사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보건·체육 행사 활동 ▫ 현장 학습 활동 ▫ 안전·방재 활동 ▫ 봉사·지원 활동
-------	-------	---

4) 국민학교 학교행사

국민학교 학교행사는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과 행사에 관한 일들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게 하고, 이를 분담하여 서로 도우며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활동이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여하게 하여 협동·봉사 정신을 기르고,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국민학교 학교행사는 다음 [표 II-6]와 같은 활동이 있다.

[표 II-6] 국민학교 학교행사 내용

학교 행사 영역	구체적인 활동내용
의식 행사 활동	- 경축일, 기념식 - 조회, 입학식, 졸업식, 시업식, 증업식
학예 행사 활동	- 전시회, 발표회(음악, 무용, 연극, 웅변 등), 감상회, 학예회 - 경연 대회, 실기 대회
보건·체육 행사 활동	- 신체 검사, 건강 진단, 예방 접종 - 체육 대회, 친선 경기 대회(학년 간, 학교 간, 지역 간) - 야영, 경기 대회
현장 학습 활동	- 소풍, 수학 여행 - 견학, 답사, 방문
안전·방재 활동	- 대피 방호 훈련, 소방 훈련 - 재해 구호 훈련, 교통 안전 훈련
봉사·지원 활동	- 자매 결연 활동, 위문 활동 - 자연 보호, 질서, 청소 미화

5) 중학교 학교행사

중학교 학교행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 여러 가지 행사의 뜻과 중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갖게 한다.
- 행사를 통하여 평소에 학습한 교과 활동의 내용과 취미·기능 활동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교내외 생활 경험을 쌓게 한다.
- 여러 가지 교내외 행사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중학교 학교행사로는 [표 II-7]와 같은 활동이 있다.

[표 11-7] 중학교 학교행사내용

학교 행사 영역	구체적인 활동내용
의식 행사	◦ 국경일과 기념일 의식 등 ◦ 조회, 입학식, 졸업식, 개교 기념일, 종업식 등
학예 행사	◦ 각종 전시회 ◦ 음악회 ◦ 영화 감상회 ◦ 연극 발표회 ◦ 웅변 대회 ◦ 미술 대회 ◦ 백일장 ◦ 기타
보건·체육 행사	◦ 체육 대회, 각종 경기 대회, 중간 체조 ◦ 신체 검사, 예방 접종 등
현장 학습 행사	◦ 각종 견학 ◦ 소풍, 여행 등
안전 지도 행사	◦ 각종 안전 지도, 대피 훈련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 새마을 운동, 자연 보호 운동, 문화재 보호 운동 ◦ 위문 활동 ◦ 봉사 활동 등
학교 특정 행사	◦ 민속 행사나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행사 ◦ 생활관 지도 및 수련 활동 등

6) 운영상의 유의점

학교행사의 유의점은 첫째, 학교행사의 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효한 활동을 정선하여, 학생에게 과중한 심신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기, 시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둘째, 학교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제량에 따라 적절히 운영한다. 셋째, 의식 행사를 거행할 때는 경건한 자세로 국된 의례 절차에 임하게 하고,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시키며, 사전·사후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 넷째, 학교행사는 학생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여 계획·실천·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평소에 학습한 교과 활동의 내용과 취미·기능 활동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학교행사의 일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학교의 실정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학생에게 적합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 행사를 학교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4. 학교 수련활동의 문제점

학교에서의 학생활동은 크게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특별활동은 학급회의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세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학교 수련활동은 클럽활동 및 학교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학교 수련활동은 주로 특별활동과 학교재량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특별활동은 1주에 2시간씩 실시하는데, 1시간은 집회활동을 하고 1시간은 특기나 적성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학습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국민학교에서는 한달에 한번(1일) 아동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모든 국민학교에 ‘가방없는 날’이 확대 실시될 것이며, 이는 주 5일제 국민학교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중학교 수련활동은 주로 특별활동과 학교재량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특별활동은 1주에 1시간 또는 2주에 1일 2시간씩, 특기나 적성 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분야는 수학영재반, 영어 이야기 읽기반, 독서반, 영어 독해반, 문예반, 신문읽기반, 한자펜글씨반, 과학실험반, 과학탐구반, 과학독서반, 합창반, 기독 학생반, 컴퓨터반, 사진반, 환경보전반, 농구반, 펜글씨반, 미술반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활동이라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학기말 고사가 있으면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특별활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입시위주의 학교풍토 속에서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관심이 없으며, 교사가 수련활동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평가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되기도 한다.

중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시키려고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위가 산만하고 많이 떠드는 것이다.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좋아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활동을 타율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히 활동이 재미가 없고, 떠들고 주위가 산만하게 된다. 많은 학교의 경

우에 특별활동은 유명 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상당수의 학교가 특별활동 부서를 편성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별활동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별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원인은 교사의 담당 수업 시간 과다로 인한 활동 의욕의 저조(23.7%), 특별활동을 실시할 교실의 부족(19.6%), 일반 교과만을 중시하는 경향 및 학생과 교사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결여(16.8%), 부서별 학생수의 과다(15.3%), 교사의 전문적 자질 미흡(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절대수 부족, 학생수 과다, 시설·여건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별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특별활동에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고 활동 내용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신세호 외, 1980; 안귀덕 외, 1980).

특별활동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장 및 교사의 반응을 통해서 조사한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장의 경우는 지도 교사의 능력 부족(33.3%),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부족(25.0%), 일반 교과만을 중시하는 경향(23.6%)을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국민학교 3학년 교사의 경우는 일반 교과만을 중시하는 경향(23.9%), 지도 교사의 능력 부족(20.8%), 지도 내용의 모호성(18.9%)을, 국민학교 6학년 교사의 경우는 일반 교과만을 중시하는 경향(25.2%), 지도 교사의 능력 부족(22.3%),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부족(17.8%)을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권낙원 외, 1984).

학교 수련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활동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활동 목표의 문제로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년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없다.

둘째, 학교 시설 및 학습 자료의 문제로는 특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학습 자료가 부족하며, 갖추어져 있는 시설도 활용이 잘 안된다.

셋째, 교사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지도에 필요한 기능을 소유한 교사가 부족하다.

넷째, 업무량의 과중으로 특별활동 지도는 부담이 되고 있어, 지도하려는 의욕이 대체로 저조하다.

다섯째, 학생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과중한 학습량으로 특별활동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어, 참여 의식 및 활동 의욕이 저조하다. 특히 지망하지 않은 활동반에 배정될 경우 더욱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여섯째, 특별활동 조직의 문제로는 활동반을 설치할 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 교사의 자질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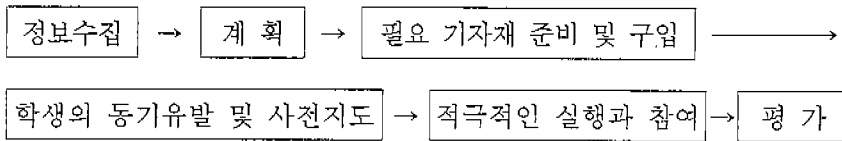
일곱째, 특별활동 결과 평가의 문제로는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출석율에 의해 형식적으로 평가된다.

Ⅲ. 학교 수련활동의 운영모형

학교 수련활동은 특별활동, 자율학습의 날, 학교행사 등의 형태로 실시되며 대부분의 수련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수련활동의 계획, 준비,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들이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칠때 학생들은 보다 나은 수련활동의 기회를 경험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 수련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즉 교사나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련활동의 종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수련활동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정보수집은 보통 지역사회 학교 및 교사간의 정보 교환이나 도서관, 공공기관, 수련활동 관련 단체 등에서 얻는다. 수련활동 실시 담당자들의 준비모임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분담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준비한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수련활동에 대하여 홍보를 하며 체육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사전지도를 한다.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지도는 수련활동을 할 때 안전하고 활동방법을 잘 알아 재미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당일에는 시간이 늦쳐지지 않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활동후 교사들간에 또는 학생들과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제1장 수련활동 계획 작성

앞아서 수업을 듣고 공부에만 익숙한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주려면 사전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교사는 수련활동을 막연히 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계획부터 차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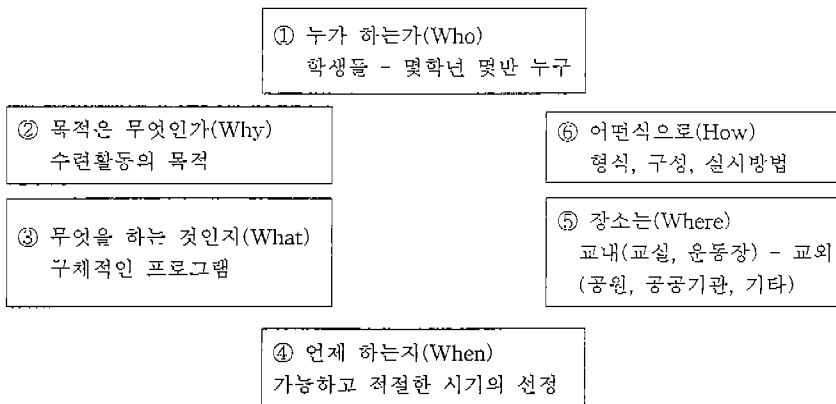
1. 수련활동 계획의 포인트(5W1H)

수련활동의 계획이 잘 되었을때에 수련활동도 잘 실시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그러나 융통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 | | |
|-----------|----------------------------|
| ① 누구를 향해서 | Who : 참여 대상(학생) |
| ② 무엇을 위하여 | Why : 목적 |
| ③ 무엇을 | What : 수련활동의 종류 및 주제(제목) |
| ④ 언제 | When : 특별활동 또는 자율학습의 날, 기타 |
| ⑤ 어디서 | Where : 장소(교내, 교외) |
| ⑥ 어떤식으로 | How : 형식,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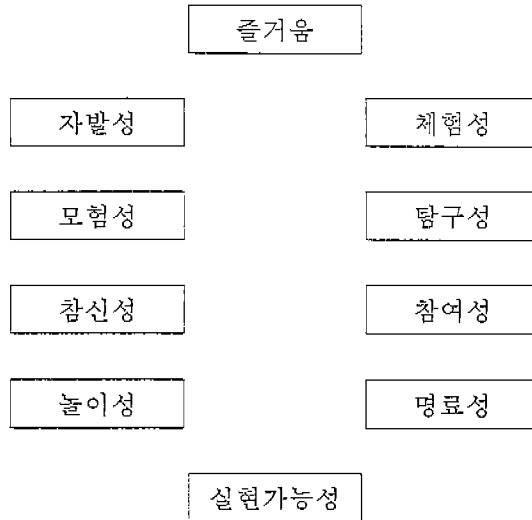
수련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5W1H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

■ 수련활동의 6가지 포인트 ■



수련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다.

■ 수련활동 성공의 10가지 포인트 ■



수련활동의 계획과 준비는 수련활동에 참가할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참가할 학생들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수련활동이나 실시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계획 작성과정

1) 목적 명료화 과정

학교 수련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지도하여 청소년의 심신 단련과 자질개발,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수련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재미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무시한 활동에 그치기 쉽다.

학교 수련활동을 통해 학생은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행동양식, 태도, 의식 등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방향제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신뢰, 성실, 친근감, 우애, 유쾌함, 희생정신, 용기, 시간약속, 상대방에 대한 존경, 공동체 의식, 최선을 다하는 마음, 희망, 즐거움, 끈기, 인내, 봉사정신을 얻는다. 이와같이 학교 수련활동은 학생이 그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갖는 동시에 활동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여가를 즐기며, 전인적인 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2) 수련활동 영역 결정과정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련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수련활동을 할 것인가는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다. 실시할 수련활동을 결정할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가. 수련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목적)에 맞는가?

나. 학생들에게 참신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다. 실행 가능한 수련활동인가?

(활동시간, 안전성, 지역적 특성, 융통성 등)

라. 수련활동의 내용이나 난이도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상황적 요소와 특성에 적절한가?

마.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가 반영되는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련활동은 다음 [표 Ⅲ-1]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표 III-1) 학교 수련활동

활동영역	활 동 내 용
현장견학	구청, 동사무소,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 의회, 방송국, 신문사, 은행, 공장, 전시회, 동물원, 식물원
자연관찰	학습원, 등산, 산, 들, 내, 강, 연못, 바위, 암석
문화유적 탐방	유적지, 전적지, 명승고적, 박물관
실험·실습활동	각종 실험, 화단 가꾸기, 조리, 바느질, 사육재배
수련활동	극기활동, 산행, 야영
발표회	학예 발표회, 작품 전시회, 문예 발표, 음악 발표, 웅변, 나의 꿈 발표
체육 활동	체육대회, 육상대회, 구기대회, 수영, 빙상
민속 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그네타기, 널뛰기
취미 활동	독서, 음악, 미술, 만들기, 서예
봉사 활동	고아원, 양로원 방문, 자연보호
기 타	자유 탐구, 환경 교실, 예절 교실, 교실 꾸미기, 재난대비교육, 교통안전교육

수련활동에는 자연체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예절활동, 전통문화활동, 인간관계수련활동, 자아계발활동, 과학활동, 캠프활동 등이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체험활동

- ① 자연탐구 및 탐사활동 : 국토탐사, 조국순례대행진, 식물채집여행, 자연관찰, 자연의 소리 녹음 발표회, 곤충연구, 생태계 관찰, 지질연구, 별자리 관찰, 암석수집, 수생무척추동물의 관찰, 삼림관찰, 달의 관찰, 하천·강·바다의 오염문제, 천연기념물연구, 농촌이해활동(작은 힘이나마,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 ② 자연가꾸기활동 : 화단가꾸기, 주말전원농장(농장시설 및 운영실태 견학, 농작물재배실습, 가축사육실습, 원예실습 등), 농사캠프, 농업환경보호활동(더불어 사는 길, 받은 만큼 돌려주기, 예쁜 지렁이 귀여운 거미), 화초

의 손질

- ③ 기타 자연체험활동 : 자연과 함께(자연 속에서의 모험, 탐험, 수집, 추적, 측정, 비밀, 매듭, 자연보호, 보물찾기 등), 자연캠프, 산책 및 명상 프로그램, 하늘보기 시간, 우리의 탐험장비, 나의 모험 이야기

(2) 스포츠활동

- ① 구기스포츠 : 축구, 족구, 탁구, 야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럭비, 배구, 핸드볼, 필드하키, 보울링, 아이스하키,
- ② 격기스포츠 : 태권도, 합기도, 권투, 씨름, 레슬링, 검도, 쿵후, 유도,
- ③ 수상스포츠 : 수영,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보트타기, 조정, 카누, 요트, 수구, 고무보트
- ④ 산악스포츠 : 등산, 스키, 눈썰매, 암벽등반, 산악극기활동
- ⑤ 항공스포츠 : 글라이더, 행글라이딩, 열기구, 모험항공기, 초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 ⑥ 기타 스포츠활동 : 빙상, 체조(생활체조, 민속체조, 리듬체조, 탈춤체조), 에어로빅, 롤러스케이트 타기, 자전거 타기, 조깅, 양궁, 승마, 사격, 역도, 생활스포츠(제기족구, 돌치기, 쇼트 테니스, 실내 하키, 프리스비 럭비)

(3) 문화활동

- ① 음악활동 : 청소년음악회, 음악감상회, 즉석가요제, 합창경연대회, 영상음악의 만남, 생활악기교실(기타, 피아노, 하모니카, 실로폰, 바이올린 등의 악기연주, 실습 및 발표), 노래배우기, 청소년교향악단, 시대를 달리한 심포니의 소리, 클래스 피아노 페스티벌, 국악연주회, 대중가요 평가회, 명곡의 고향
- ② 미술활동 : 미술전시회관람, 청소년미술대회, 주말미술강좌, 공작품발표회, 사진촬영대회, 영화의 고향, 한국미술사강좌, 디자인강좌, 건축예술강좌
- ③ 문학활동 : 독서토론회(책의 내용, 이야기의 구성방식, 등장인물이나 소설의 공간적·시간적 배경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웅변대회, 청소년시사랑

방, 독후감발표회, 자서전쓰기, 시사토론, 속담집만들기, 저자와의 만남, 창작발표회, 동화구연대회, 시낭송경연대회, 고전읽기, 한문강좌, 은어·비어·속어 연구교실, 청소년 논리교실

- ④ 연극활동 : 촌극무대, 연극관람, 청소년연극영화아카데미, 인형극교실, 연극의 세계로, 연극캠프(회극의 선택, 배역 오디션, 독해 연습, 블로킹 연습, 전개 연습, 시연회), 무언극, 아동극, 그림극, 그림자극, 무대극, 방송극, 대화극, 사회극, 풍자극, 가극, 대본 만들기, 연극 소품 만들기
- ⑤ 기타 문화활동 : 공예품 만들기(복주머니 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사각상자 만들기, 편지함 만들기), 방송반 활동, 예쁜엽서 만들기, 탁본만들기, 신문제작, 청소년놀이한마당(노래자랑, 디스코경연, 연극제, 가곡제, 무용제 등), 이동청소년문화광장(춤과 놀이마당, 이야기마당, 청소년한국강좌, 청소년민속강좌, 계절별캠프 활동 등), 마로니에 청소년축제(운동선수, 가수, 개그맨, 배우, 성우 등의 초대, 중창단, 보컬팀, 밴드, 합창단 초청, 사회 저명인사의 5분 연설, 함께 즐기는 노래 부르기와 게임, 탈춤 및 세계 각국의 민속춤 즐기기 등), 외국인속무용발표회, 예비대학생문화교실, 폐품이용 작품전시회, 각종 수집 및 채집활동, 영화교실, 우리말 사랑 운동, 청소년 국제문화교류활동, 교내우체국활동, 청소년들의 해외나들이

(4) 봉사활동

- ① 불우이웃돕기활동 : 사랑의 은행, 자선바자회, 양로원위문, 고아원위문, 장애인청소년 위안행사, 재활원방문, 무의탁환자방문, 빈민지역탁아소방문, 보육시설방문
-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 농촌일손돕기활동(김매기, 농약뿌리기, 고추심기, 마늘심기, 아이돌보기, 모내기, 과일수확하기, 벼베기, 잡초제거), 도시농촌교환 봉사활동(지역 청소하기, 쓰레기분리수거활동, 지역별 오염물질조사), 1일 방법근무, 꽃길가꾸기, 공중전화박스 청소하기, 하수구치기, 도로보수작업, 낙서지우기, 지역사회 지도만들기, 지역사회의 도우미
- ③ 캠페인활동 : 행락질서 캠페인, 환경보호 캠페인(환경실태조사, 자원절감

- 과 재활용, 환경고발전화), 우리농산물애용캠페인, 교통안전지도 캠페인
- ④ 교통안전 봉사활동 : 횡단보도안내, 도로표지판청소, 정거장안내, 교통사고지역조사, 교통지도활동
- ⑤ 기타 봉사활동 : 국제봉사(기술협력, 농·축·수산업, 교육분야,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 일선장병위문, 미담사례조사, 봉사활동 체험담발표회, 헌혈, 결연과 후원활동,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맺기

(5) 예절활동

- ① 전통예절활동 : 전통다도배우기, 한복예절배우기, 친족관계도만들기, 신토불이 상차림(으뜸 우리 음식, 바른 먹거리, 우리 음식 찾기, 손자랑 맛자랑, 신토불이 영양식), 동방예의지국(생활속의 예절, 예절 다듬기, 함께하는 예절)
- ② 생활예절활동 : 청소년 가정상호방문, 식사예절익히기, 가훈만들기, 존칭 및 호칭 익히기, 경칭어 바로쓰기, 이성간의 예의, 인사예절배우기, 절예절, 바른몸가짐, 방문 및 영접예절, 다과예절, 신부과정, 예비부모과정, 교통질서, 대화예절, 전화예절, 복장예절, 인간관계 예절, 토론예절, 공공시설이용예절, 현대인의 에티켓과 매너
- ③ 기타 예절활동 : 모의예절게임, 우리의 금전출납부, 티끌모아 태산, 우리 것이 좋아요

(6) 전통문화활동

- ① 민속놀이 및 의식활동 : 풍물놀이, 줄다리기, 굿놀이, 불꽃놀이, 뚝다리밟기, 차전놀이, 강강술래, 그네타기, 널뛰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자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윷놀이, 동채싸움, 세시풍속놀이
- ② 향토민속활동 : 전통생활용품의 조사, 고장의 인간문화재 알아보기, 순수 우리말발굴, 향교를 찾아서, 향토문화조사
- ③ 문화유적탐사활동 : 민속촌을 찾아서, 내고장 사적지탐사,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역사인물기행활동, 유형문화재 견학

- ④ 민속예술활동 : 전통음악강습, 탈춤교실, 단소특강, 민요강습, 판소리강습, 대금강습, 탈만들기, 인형극, 농악에 장단 맞추어(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 등), 거문고 및 가야금산조, 농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전통무용교실(진주검무, 승전무,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등), 사물놀이, 남사당놀이, 전통공예(바가지공예, 목공예, 죽공예, 양초공예, 금속공예, 표구만들기)
- ⑤ 기타 전통문화활동 : 청소년단오제, 청소년민속예능캠프, 생활문화 큰 학교(민요연구회, 한두레, 두령, 터울림), 전설의 고향(전설 속의 교훈, 고장 전설)

(7) 인간관계수련활동

- ① 나를 찾아서 : 별칭짓기, 나의 꿈, 나의 중요인물 20인, 어머니님 말씀 20가지, 50년후의 나, 마음의 대청소, 가치관 경매, 나의 장·단점 찾기
- ② 너와의 만남 : 아! 반갑습니다, 선물나누기, 최근에 있었던 일, 원하지 않는 만남, 신뢰의 산책, 경청과 대화, ‘나’ 말하기, 뜨거운 의자, 2분 문답, 2분 대화, 인간관계 그래프, 즐거운 대화여행
- ③ 소중한 우리 : 원안에 들어가기, 우리집 이야기, 역할극, 손거울, 잊혀지지 않는 싸움, 추억의 사진첩, 자기인상 나누기, 유언장 만들기
- ④ 새로운 세계 : 자연과의 대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창문열기, 연상화, 2000년대의 삶, 금강산으로 꾸미는 지구촌, 우리는 하나요
- ⑤ 기타 인간관계수련활동 : 발명화 그리기, 투시화 그리기, 희망과 사랑의 선물교환

(8) 자아개발활동

- ① 자질 및 심성개발활동 : 명언카드 감상, 효과적인 사고훈련, 소지품 소개, 선물주고 받기, 위기훈련, 성취동기 향상활동, 리더쉽 향상활동, 자화상, 자기표출, 긍정적인 자아상 갖기, 행복의 습관 갖기
- ② 인간관계개선활동 : 장님탐험, 어깨동무학습, 사물과의 대화, 의사전달 놀

이, 사랑의 편지, 세계인이 됩시다, 행동계약서 작성, 심리극, 갖고 싶은 마음과 버리고 싶은 마음

- ③ 가치관정립활동 : 가치관 투표, 청소년법정, 가치관 일기, 바른 시민이 되는 길, 죽음이 주는 의미
- ④ 진로탐색활동 : 우리의 진로, 전문직업인 초청간담회, 직업의 세계, 자기소개서, 50년후의 나, 가상 현장체험
- ⑤ 기타 자아개발활동 : 장애인을 위한 도심환경적응훈련, 모의법정활동, 인권 사각지대, 일상발표, 마음그림, 3분 연설가

(9) 과학활동

- ① 실험 및 실습활동 : 컴퓨터교실, 재미있는 과학실험(실험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익히기, 실험실습, 결과의 해석, 실험결과의 발표), 곤충 기르기, 공중위생 및 수질검사, 토양검사, 건전지와 빛, 전구의 밝기, 물컵 연주회, 도미노 게임과 소리의 전달, 풍선 데우기, 접착의 원리, 치마와 정전기, 먼지를 끌어당기는 브라운관
- ② 관찰 및 탐사활동 : 천체관찰교실, 개구리 관찰, 바닷말표본 만들기, 조개류 생태조사, 해양탐구활동
- ③ 견학활동 : 자연학습장, 비행기의 공중정찰, 기상대 견학, 발명품 전시회 참가 및 견학, 과학퀴즈대회
- ④ 과학공작활동 : 대나무 헬리콥터 제작, 모형자동차 만들기, 모형항공기 제작, 곤충표본만들기, 물고기표본 만들기, 목공, 라디오조립
- ⑤ 기타 과학활동 : 과학자와의 대화, 신발명품의 해설 프로, 과학비디오 프로그램, 첨단과학 분야의 제품전시, 생활과학입문교실, 컴퓨터교실

(10) 캠프활동

- ① 기초활동 : 야영장비의 선택법, 야영생활환경 만들기, 응급처치 및 구급법, 야외취사
- ② 야외교육활동 : 견학 및 탐사활동, 극기훈련, 오리엔티어링, 자연관찰 및

연구, 담력훈련, 안전교육

- ③ 친교활동 : 노래와 율동, 장기자랑(노래, 악기연주, 요술, 만담, 1인극, 성대 묘사, 신체적 장기, 암기력자랑, 손재주자랑), 스포츠활동, 추적활동, 등산, 분장 가장행렬, 촌극, 포크댄스, 퀴즈대회
- ④ 과학공작활동 : 대나무 헬리콥터 제작, 모형자동차 만들기, 모형항공기 제작, 곤충표본만들기
- ⑤ 기타 과학활동 : 과학자와의 대화, 신발명품의 해설 프로, 장영실의 하루

3) 수련활동 주제 결정과정

실시할 수련활동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제목)를 붙인다. 몸으로 움직이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인데도 교과활동에만 익숙하여 수련활동에 관심도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 수련활동의 주제(제목)를 정할때 학생들에게 직접 스스로 지어보라고 해도 좋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가 나타나기도 하고 수련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련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제목)를 정하도록 한다.

4) 담당자 준비모임 갖기

실시할 수련활동의 종류가 결정되고 제목도 붙었으면 수련활동을 준비할 담당자를 결정하고 준비모임을 갖는다. 보통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은 수련활동을 하게 될 학생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국민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한다면 3학년 담임교사들이 준비자가 된다. 그리고 3학년 주임교사가 조정자로서 준비모임을 주도하거나 수련활동을 준비

하는데 재능이 있는 교사가 준비모임을 주도한다. 수련활동의 성패가 이들 준비하는 담당자의 열의와 준비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담당자들이 결정되면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책임자(조정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는 준비모임을 주선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종합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담당자들이 결정되면 모여서 수련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준비모임을 가져야 한다. 보통 담당자로서 교사들이 결정되는데 수업을 하고, 학교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등 준비모임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교사들간에 모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방과후에 1시간이라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만나서 수련활동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준비모임은 보통 방과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하고 각각의 교사들이 미리 수련활동의 계획과 준비에 관해 생각을 해서 모였을때 서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준비모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결정된 수련활동에 관하여 언제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로 하고, 필요한 도구나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등 수련활동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운다.

준비모임에서는 5W1H에 의해, 누가(Who), 무엇을 위하여(Why),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에서(Where), 어떤 식으로(How)로 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준비모임은 2-3번은 하는 것이 좋다. 첫 모임에서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다. 이것을 한 사람이 정리하고 다음 모임에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정한다.

수련활동을 실시할때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를 명예교사로 활용하면 좋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수련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녀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자원하시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수련활동을 하므로써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자녀

에게 수련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명예교사로 자원할 학부모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모집하고 명예교사들과도 준비모임을 갖는다. 명예교사들은 보통 수련활동을 실시할때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특별히 재능이 있는 어머니들은 직접 수련활동을 지도하기도 한다.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수련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브레인 스토밍 법의 원칙

- ① 타인이 제출한 의견, 아이디어, 사고방식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 ② 자유롭게 발언한다.
- ③ 의견의 양을 계속 서술한다. 의견의 질은 다음으로 한다.
- ④ 타인의 이야기에 잘 응한다.

나오는 의견은 준비모임의 기록자가 그대로 기록하고 의견이 다 나온 단계에서 수정 작업에 들어가 정리를 한다. 정리가 끝난 것은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는 등 표시해 둔다.

- ① 같은 의견은 어느쪽인가를 없앤다.
- ② 의미 불명료한 것은 없앤다.
- ③ 의미가 몇개대로 해석 가능한 것은 없앤다.
- ④ 간단하게 생략하지 않는다.

5) 실시프로그램의 결정과정

준비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지 구상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실시프로그램으로 다음 [표 III-2]와 같은 것들이 있다.

[표 III-2] 환경살리기활동의 프로그램 구성(예)

단 계	단 위 활 동	활 동 내 용
인 식	우리집 환경오염 학교, 친구 그리고 쓰레기 다시보자! 쓰레기 그런티어링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환경오염의 심각함과 위험성 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살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의 태도와 동기를 부여한다.
이 해	우리집 환경이해 친구와 만드는 쓰레기분리대 공해지도 만들기 돌고 돌아가는 세상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환경보호의 방법을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 행	우리집 환경감시원 환경을 살리는 숨쉴자랑 함께하는 알뜰시장 자전거에 미래를 싣고	인식활동을 통해 느끼고, 이해활동을 통해 알게된 환경문제와 그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자료 : 환경살리기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수련거리, 1994.

준비모임을 통하여 수련활동의 실시프로그램을 결정할때 1학기나 1년동안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으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교사와 명예교사가 모여 준비모임을 가질 때는 한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과 실시방법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6) 수련활동 도구의 준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준비물과 도구를 생각해 보고 직접 만들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간단한 도구들은 학생에게 준비하도록 하거나 학부모를 통해 빌릴 수도 있으며, 수련활동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을 통해 빌리거나 구입하기도 한다. 또는 지역사회의 다른 학교들과 협력하여 서로 비슷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과 도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제2장 수련활동 실행 및 평가

1. 지도자와 학생의 역할

수련활동을 실시할 때는 수련활동의 목적에 맞게 지도자가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수련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도자(교사)는 적극적이고 낙천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유를 향유할 능력이 있으며 그들에게 자유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보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도자(교사)의 열성은 물론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교사의 열성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준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보통 담임교사, 명예교사(학부모), 외부의 지도자 등이 있다. 수련활동 지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해지든, 수련활동의 계획, 준비, 실시, 평가에 책임을 갖고 담당하게 된다. 보통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담당하게 되는데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전체 책임자가 총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련활동 지도자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수련활동 속에 감추어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지는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성숙한 인격과 섬세한 지도기술이 요구된다.

수련활동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관계성은 자전거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도자가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청소년은 뒷바퀴인 셈이다. 즉 두 바퀴는 어느 한 바퀴만 돌아서는 전진할 수가 없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모두 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자전거의 비유는 수련활동에서의 감추어진 지도력과 지도자와 청소년과의 관계성을 훌륭히 시사하고 있다. 첫째, 지도

자와 청소년은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다. 둘째, 둘 사이는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동반관계이다. 셋째, 둘 사이는 공동의 목적지를 가진 공동생명체이다. 넷째, 예정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인도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도자 자신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진행·마감·평가하는 전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에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도자는 개입시에 반드시 문제점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주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러한 부담감도 떨쳐 버려야 한다. 지도자는 활동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범하는 시행착오를 실패가 아니라 경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고 자료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학부모, 소속 학교 또는 단체, 지역사회 등에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려줌으로써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증진시키고 일들의 관심과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도자는 수련활동의 전과정을 기록·보관해 둬으로써 이를 평가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된다.

2. 수련활동 운영 계획서 작성

수련활동은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운영하되 그때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 활동 운영 계획서 ■

▪ 기본 계획

활동명				지도 대상	
일시				지도 교사	
장소				관련 교과	
목표					
준비물					
활동과정	시간	수량	활동내용		
평가					
지도상의 유의점					

▪ 세부 진행 계획

활동과정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준비물

수련활동의 세부 진행 계획을 세우고 각 단위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 각 단위활동 진행 담당자는 안전하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각 활동 개요

활 동 명		활 동 형 태	
목 표			
준 비 물			
활 동 내 용 및 방 법			
참 고			

수련활동을 실시할 때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책임교사가 수련활동의 전체 진행을 맡더라도 각 교사들이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단위활동이나 부분에 책임을 맡아 학생들의 안전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활동을 시키기 위하여 적은 수의 학생집단(팀)을 구성할 경우에 명예교사(학부모)를 지도자로 활용하면 좋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명예교사도 수련활동 실시를 위한 사전 모임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역할 분담표(예) ■

수 련 활 동 진 행 담 당		
총 책 임 자		
각 단 위 활 동	00활동	
	00활동	
	00활동	
	00활동	
필요 기자재 점검자		
안 전 점 검 자		
수련활동 기록자		

3. 수련활동 평가

수련활동 실시후 평가의 과정을 갖는다. 평가는 수련활동직후 담당자들이 모여 평가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가질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질문지나 토론시간을 통해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수련활동 평가표 ■

수련활동 평가표						평가	그외
1. 계획은 어떠했는지	A	B	C	D	E		
2. 필요 기자재 및 준비상태는	A	B	C	D	E		
3. 진행운영은	A	B	C	D	E		
4. 참여 학생의 반응은	A	B	C	D	E		
5. 전체 진행 시간은	A	B	C	D	E		
6. 진행 담당자의 반응은	A	B	C	D	E		
7. 기타	A	B	C	D	E		

VI. 학교 체험활동의 실제

제1장 중원국민학교

1. 자율학습의 날 운영 개요

서울시 교육청의 ‘자율학습의 날’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된 중원국민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자율학습의 날’은 한달에 1일, 주로 토요일에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날이다. 다른 교과활동과 더불어 ‘자율학습의 날’의 목표는 아이들의 인성함양에 있다.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물질만능주의 팽배 등 비인간화, 황폐화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식뿐 아니라 덕과 체를 갖는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자율학습의 날’의 목적이다.

특별히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평상시의 생활지도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어린이상은

- 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는 어린이
- 나.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어린이
- 다. 진실한 봉사의 정신을 갖고, 사랑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어린이
- 라.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어린이
- 마.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수용력을 가진 포용적인 인성을 갖는 어린이
- 바. 정이 있는 인간관계 함양에 힘쓰는 어린이
- 사.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어린이
- 아. 학교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아끼는 어린이 등으로 이와같은 어린이를 육성하려고 한다.

중원국민학교의 '자율학습의 날' 운영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료개발팀은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발간한다. 인성 환경팀은 계획을 수립하며 주로 학년 담당자이다. 연구보고서 작성팀은 맡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자율학습의 날' 운영팀은 학년 담당자, 운영 담당자, 자료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활동을 운영한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으로는 먼저 교과 과목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주임 교사가 팀장이며 각학년의 학년주임 교사는 팀원이 된다. 교과 과목을 통한 바른 인성 기르기는 저, 중, 고 학년으로 단계별 적용하여 창의적인 인성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교과 과목의 내용을 뽑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체험활동은 민속놀이 활동이다. 1995년 6월 24일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활동내용은 윷놀이, 땅따먹기, 고누놀이, 비석치기, 탈춤, 투호, 태극진, 두껍아 등의 민속놀이로 교내 운동장에서 5학년 전체 아이들, 5학년 담당교사들, 어머니 명예교사들, 개발원이 참여하였다. '자율학습의 날' 활동으로 민속놀이 활동의 계획, 준비,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2. 다른 활동들

1)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가족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가족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방법, 교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가 사랑의 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아동을 위하여 VTR 자료를 개발하거나 성적에 반영할 방안을 구안하고, 인성통지표에 기재하는 기존의 방법은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2) 효도활동

효도활동으로 효도 숙제를 아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효도 숙제의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효도 실천 기록장 ■

월	주	날짜	효도실천내용	준비물
3	1	3/1	가훈 적어 오기	효도기록장
	2	3/8	부모님과 함께 자기	자명종
	3	3/15	서점에 다녀 오기	용 돈
	4	3/22	손톱깎아 드리기	손톱깎기

3) 학부모 연수

학부모 연수를 통해 아이의 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실천 내용은

- ① 각종 어머니회, 아버지회에 개발된 인성 자료를 배부하고
- ② 각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특색있는 심성, 인성교육 방법을 수집하며
- ③ 우수 가정에는 표창 하고
- ④ 가정의 특색있는 인성교육 방법과 중원국민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간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지도후 학년말에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4) 소질상 수여

전교생에게 소질 및 적성상을 수여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무한의 인성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독서기록장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5) 동요부르기 대회

동요 부르기 합창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합창대회는 밝고 맑은 노래 부르기を通して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실시 방법은

- ① 곡을 엄선하고
- ② 곡을 전자オルแกน으로 연주하여 녹음시킨 후
- ③ 한달간 중간 체조가 끝난 후 돌려 주고
- ④ 녹음테이프를 반 별로 나누어 주며
- ⑤ 곡은 저, 중, 고 3곡을 선정하되 한곡의 길이가 2분이 넘지 않게 하여
- ⑥ 학기 당 1회씩 실시 한다.

6) 사랑의 빵

사랑의 빵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원국민학교에서는 원호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시 방법은

- ① 한국선명회(종교단체와는 무관함, 국내외의 불우이웃을 돕는 국제단체)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 ② VTR 자료를 전교생에게 보여주고
- ③ 소말리아, 아프리카 기근에 시달리는 난민에게
- ④ 식빵처럼 생긴 저금통을 희망자에 한해 배부하여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 활동들과 더불어 중원국민학교에서 '자율학습의 날'에 실시한 체험 활동은 소풍코스 다니기, 고령토 지역방문 등 지역사회와의 유적지나 공원 등을 방문하는 것이다. 지역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조사해 오도록 하여 교육적으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어머니들을 명예교사로 선정하여, 명예교사와 선생님들이 협의모임을 갖고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평가도 함께 하고 있다.

3. 계획수립과정

1) 서울시 교육청 방문(4월 24일)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진은 학교 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였다. 담당 장학사를 만나 학교에서의 체험 활동 현황과 연구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사회교육과에서 청소년 연맹이나 스카우트와 같은 청소년 활동을 맡고 있다.

학교에서는 체험중심의 활동과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한달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책가방 없는 날’(자율학습의 날)은 적어도 한달에 하루는 교과서를 떠난 체험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중원국민학교 방문하는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들을 담당교사에게 제시하여 활용방안과 수련거리 학교 적용방안을 의뢰하였다.

2) 중원국민학교 1차 방문(6월 14일)

중원국민학교는 ‘자율학습의 날’을 한달에 1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국민학교에서 ‘자율학습의 날’을 1주에 1회 실시하고, 그것을 다시 주 5일제 수업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중원국민학교는 6월 24일에 민속놀이를 5학년생들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민속놀이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협의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3) 학년협의회(6월 16일)

여러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6월 24일에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민속놀이로 결정되었다. 민속놀이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이 즐겁게 우리 것을 배우고 뛰노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5학년 학급담임 교사들과 명예교사(어머니)가 모여 사전 준비 모임을 가졌다. 교사들과 명예교사(어머니)가 교사의 수업이 끝난 오후 3

시 30분부터 5학년 3반 교실에 모여 6월 24일 민속놀이활동에 대해 협의 하였다. 협의 내용은 실시할 구체적인 민속놀이의 종류와 그 실시 세부 계획, 준비물, 업무 분담 등이었다. 모두 의견을 내고 5학년 주임 교사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4) 운영계획 수립

민속놀이 운영계획은 5학년 담임교사들과 명예교사들이 참여한 학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되었다. 민속놀이 운영계획서는 한명의 교사(운영책임자)에 의해 작성되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였다. 각 민속놀이활동에 대한 지도자로서 5학년 담임교사와 명예교사(어머니)들이 각각 1-2명씩 배치되었고 사전에 지도방법에 대해 익혔다.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은 다음 [표 IV-1]과 같으며, 세부실천계획은 [표IV-2]와 같다.

[표 IV-1] 기본계획

주 제	신바람 나는 민속놀이		장 소	본교 운동장
지도대상	5학년 전원		일 시	1995년 6월 24일
영 역	체육활동(민속놀이 활동)		관련교과	체육(계절 및 민속 운동)
지도 교사	5학년 교사 전원, 명예 교사 10명		교 통 편	없음
목 표	1. 전래의 민속놀이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 2. 친구들과 어울려, 모듬별로 즐겁게 민속놀이를 즐기며, 협동하는 정신을 기른다. 3. 학교내의 시설물을 아끼며, 활동이 끝난 뒷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활 동 과 정	시 각	시량	활 동 내 용	
사전활동	6월 16일(금) 15:30-17:00	90분	· 학년 협의회(준비물 확인, 진행 방법 협의)	
베이스 활동준비	08:00-08:50	50분	· 베이스 활동 배치 및 활동 준비물 확인	
시 업 전 [집합, 점검]	08:50-09:10	20분	· 집합 완료, 인원 점검, 준비물 확인	
민속놀이 안내	09:10-09:30	20분	· 베이스 구성 안내 · 베이스 순환 원칙 안내 · 베이스 활동 시중 보고 안내 · 활동시 유의점 · 평가 안내 · 활동 보고서 안내	
민속놀이 활동	09:40-12:00	140분	· 학급별,모듬별로 신명나는 민속활동 하기[8개 base] · 자율적으로 반장 인솔하에 순차적으로 환동에 참가하기	
집합·뒷정리	12:00-12:15	15분	· 활동에 대한 반성, 성적 발표 및 시상 · 운동장 청소(모두 함께)	
교실로 입실	12:15-12:25	10분	· 질서 지켜 입실하기	
하 교	12:25-12:30	5분	· 환동 결과 보고 및 하교	
사 후 활 동	6월 30일(금) 15:00-17:00	120분	· 환동에 대한 반성 평가 및 문제점 토의	
자 료	교사 : 구급약, 호각, 바둑돌 2세트, 고누놀이 프린트, 투호용 화살 8조, 향아리 8개, 비석치기 돌 50개 이상, 녹음기 2개, 진전지 12개, 녹음테이프[민속음악], 키보드, 책상 4조, 의자 반별로 3개, 사탕매달, 질서상표, 베이스 활동 참가 접수표, 무전기, 마이크, 홀라후프 아동 : 체육복, 필기구, 실내화			
평가 관점	· 민속놀이 활동에 신바람 나게 참여 하였는가? · 민속놀이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 즐거운 마음으로 규칙을 지키며, 협동하여 민속놀이에 참여 하였는가? · 학교 물건을 아끼고, 학교를 청결히 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			
지 도 상 의 유 의 점	· 전통 문화의 하나인 민속놀이 활동에 대한 정확한 놀이 방법을 지도한다. · 즐거운 민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명예교사가 협력하여 base활동을 이끌어야 하며,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부여한다. ·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시키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 놀이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관찰하도록 한다. · 교내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다른 학년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송 시설 사용은 최대한 절제해야 하며, 가급적 연락 사항은 무전기로 통제한다.			

[표 IV-2] 세부 실천 계획

활동 과정	시 간	활 동 내 용	담당자	준비물
[사전 활동] 학년협의회	6월 16 일(금) 15:30- 17:00	1. 협의회 가. 협의일시: 6월 16일(금) 15:30부터 나. 장 소: 5학년 3반 교실 다. 협의안건: 민속놀이 협의 라. 참가자: 교사, 명예교사, 청소년개발원 마. 협의내용: ① 실시 세부 계획 수립 ② 과정안 확정[활동주제선정] ③ 민속 활동 업무 분담 ④ 시상 계획 협의 ⑤ 협동 생활 지도 협의 ⑥ 사전 조사 팀 구성 2. 조직 가. 전체 지휘 및 진행: 배진수 나. 체육활동 베이스 진행: 담임·명예교사	5학년 학 급담임 전 원 명예교사	필기구 계획서 초안 협의록
사전과정 공부	6.16-6. 22사이 의 체 육시간 활용	1. 소감문 작성 요령 가. 소감문 배부 나. 소감문 작성법 지도 2. 활동 방법 지도 가. 활동의 평가 관점 제시 나. 준비물 안내 다. 활동할 때의 태도 3. 활동 계획 안내 가. 일시: 6. 24(토) 09:10-12:30 나. 장소: 본교 운동장 다. 준비물: ① 아동: 필기구, 실내화 ② 교사: 기본계획 참고 바람	각반 담임	소감문
사전 점검	08:50- 09:10	1. 학급별로 집합 2. 활동에 대한 주의 사항 전달 3. 인원 파악[참가 인원 파악 장부에 기재] 4. 인원 파악 보고 학급반장→담임→학년주임→학교장 5. 신체 허약자 조사: 학급 담임 파악 6. 준비물 확인 가. 아동: 각반 담임 나. 학교: 배진수 7. 준비물 이동 책임반: [명예교사 협조] 8. 소감문 배부: 교실에서 각 담임	학년 주임 각반 담임 배진수	기본계 획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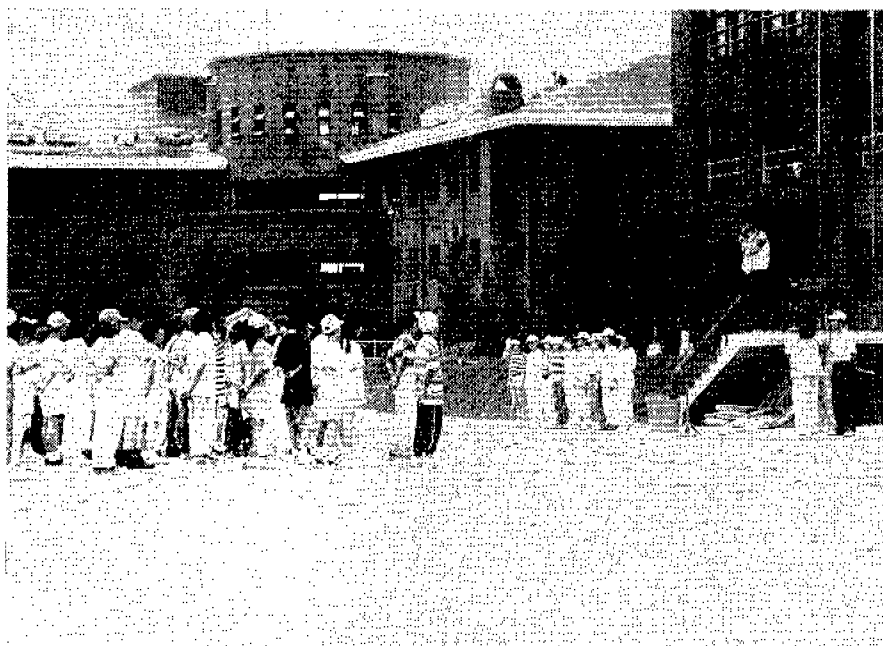
활동 과정	시 간	활 동 내 용	담 당 자	준 비 물
민속놀이 안내	09:10-09:30	☞ 명예교사들은 운동장에 08:30분부터 준비물 베이스 활동을 배치한다. 1. 운동장으로 이동 가. 안전에 유의하여 질서 있게 이동 나. 복도에서 부터 1줄로 다. 올바른 좌측통행 방법 지도[우측 통행] 라. 반과 반 사이 일정한 간격 유지 마. 운동장에 집합 대형으로 모이기 2. 베이스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 가. 베이스 활동 안내 나. 베이스 순환 원칙 다. 베이스 활동 시종 보고 안내 라. 활동시 유의점(안전 강조) 마. 평가 안내 바. 활동 보고서(소감문) 작성 안내 사. 청결 지도	각반 담당 명예 교사	호 각
* 안내 * [집합] [민속활동, 세팅]		1. 집합 가. 호각 신호에 의해 반별로 남녀 2줄로 집합 나. 보고서 수합 2. 민속 활동 안내 가. 각 종목[8개] 소개 나. 각 종목 담당교사 소개 다. base 활동 위치 안내 라. 사상 계획 발표 마. 각 base 활동 준비 보고 사. 반장 → base 활동 준비 보고 및 종료 ☞ 전체 차려, 열중 쉬어, 차려 ☞ 선생님께 경례 ☞ 바로 ☞ 제 #학년 #반 ##명 #베이스 활동 준비 끝 3. 체육활동 준비물 배부	배진수	반장 제훈연

활동과정	시 간	활 동 내 용	담 당 자	준 비 물
민속 활동	09:40-12:00	1. 교사 각 베이스 활동 위치로 이동 2. 아동: 각 베이스 질서 있게 이동하기 3. 각 base 위치 종목 및 담당 가. 1base = 윷놀이 [담당: 권영미님] 나. 2base = 땅따먹기 [담당: 명예교사] 다. 3base = 고누놀이 [담당: 홍강표님] 라. 4base = 비석치기 [담당: 한용기님] 마. 5base = 탈 춤 [담당: 전해숙님] 바. 6base = 투 호 [담당: 백승남님] 사. 7base = 태극진 [담당: 배진수님] 아. 8base = 두겹아 [담당: 명예교사] 4. 별지의 활동 배치도 참고 가. 한개 base 소요 시간: 20분 정도 - 호각 신호에 의해 이동함 5. 이동방법: 자기 base + 1로 이동 6. 이동시 유의점 전달: 한줄로 질서 강조 7. 우수조 시상 가. 금상: 점수표 3장 나. 은상: 점수표 2장 다. 동상: 점수표 1장 8. 준비물 회수: 명예교사	각반 담임 명예교사	사전계획 서 참고
집합 및 뒷정리	12:00-12:15	1. 주변 청소 활동: 마지막 베이스 활동에서 2. 반별 집합 3. 성적 발표 및 시상: 각 반별 최우수 모듬 사랑 메달 수여 4. 인원확인 가. 인원보고 학급 반장→담임→학년주임	시상: 학년 주임 진행: 배진수	사랑메달
학교 도착 하교 사후활동	12:15-12:40 6.26 - 6.30 학급담임재량 시간 활용	1. 활동 완료 신고 담임→교감→학교장 2. 전체 반성 및 활동 상황 평가 : 학년 주임 3. 준비물 회수하여 보관 4. 각 반별 담임 책임하에 하교지도 1. 활동 과정 반성 2. 정리 3. 평가 4. 문제점 토의 후 개선 방안 제시 5. 다음 달 행사 계획 수립 6. 명예교사의 적극적 활용 방안 협의	각 담임 학년 주임 각 담임	협의록

3. 실시 과정

1) 개요

미리 아이들에게 체육시간을 활용하여 민속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지도하였다. 당일에는 학급별로 집합하여 전체 지휘 및 진행을 맡은 교사가 주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8개의 민속놀이활동은 운동장에 다음과 같이 아이들이 이동하고 활동하기에 적당하게 배치하였다.

■ 운동장 배치 ■

2 베이스 땅파먹기	1 베이스 웃놀이	8 베이스 두 겹 아!
3 베이스 고누놀이		7 베이스 태극진
4 베이스 비석치기	5 베이스 탈춤	6 베이스 투호

학교 건물 위치

2) 단위활동

① 준비활동

인원을 파악하고, 교사는 준비물을 확인한 후 전체 준비체조를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하였다.



② 1베이스활동 : 윷놀이

윷놀이는 홀라후프로 말판을 만들었다. 팀의 3명은 말이 되어 움직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물주전자로 그린 사각형의 가장자리에 서서 동시에 한쪽 발을 던졌다. 운동화를 윷으로 삼아 운동화가 떨어지고 바로 떨어지는 것으로 도, 계, 걸, 윷, 모를 결정하였다. 다른 두팀이 서로 번갈아 가며 하되 교사의 지도하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운동화를 던지고 말을 옮기도록 하였다.



③ 2베이스활동 : 땅따먹기

땅따먹기는 물주전자로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바둑알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밀어 바둑알이 지나간 자리의 땅을 얻게 되는 활동으로 3번 한다. 한명이 3번 할 수도 있고 3명이 한번씩 하여 땅을 얻을 수도 있다. 교사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주고 어느 팀이 많은 땅을 얻었는지 알려주는 등 주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④ 3베이스 활동 : 고누놀이

고누놀이는 다음과 같이 물주전자로 고누의 모양을 그리고, 바둑알을 가지고 하였다. 4명이 한 팀으로 일대일 대결을 하였다.



⑤ 4베이스 활동 :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물주전자로 아이들이 서있을 위치, 비석놓는 위치 등을 그린다. 교사의 지도하에 한 팀씩 비석을 넘어뜨리며 여러 방법으로 비석을 넘어뜨리게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도하고, 이기고 진 팀을 판결만 해준다. 비석을 넘어뜨린 아이는 좋아서 환호하고 상대팀이 잘 할때는 박수를 치도록 하였다.



⑥ 5베이스 활동 : 탈춤

탈춤은 음악에 맞춰 교사의 탈춤동작을 따라 아이들이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는 활동이다. 미리 탈을 만들거나 준비하면 더 좋을 것이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명나게 추도록 하였다.



⑦ 6베이스 활동 : 투 호

투호는 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항아리에 집어 넣는 활동이다. 교사는 항아리에 들어간 나무젓가락을 기록하고 이긴 팀을 얘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신중하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 하였다. 민속놀이인만큼 토기 항아리를 준비하면 더 좋을 것이다.



⑧ 7베이스 활동: 태극진

태극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⑨ 8베이스 활동 : 두껍아!

‘두껍아!’는 철봉이 있는 모래바닥에 미리 물을 주어 젖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흙의 질감을 느끼면서 놀도록 하는 활동이다.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상대를 정하고 나중에 이긴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손 씻을 물을 큰 통에 담아 두어, 활동후 손을 씻고 다음 활동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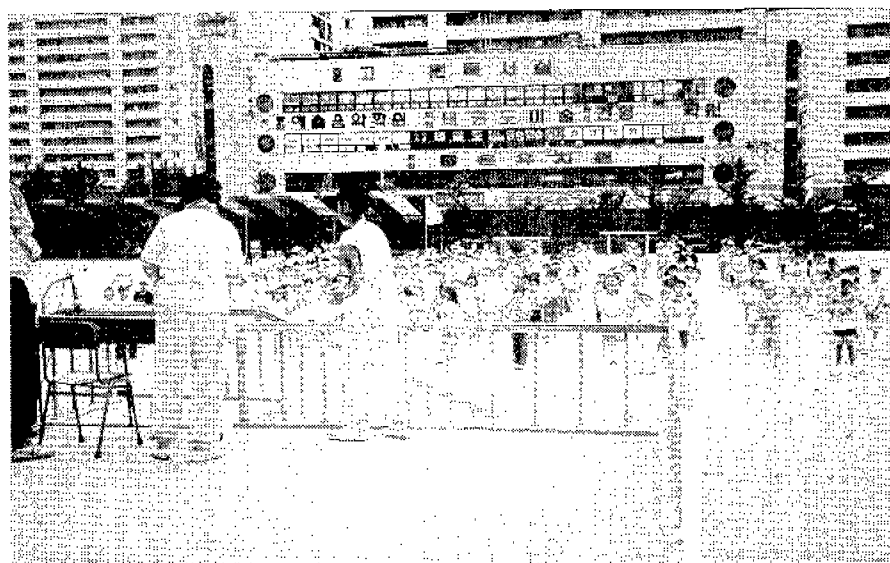


이동 모습은 팀이 한줄로 질서있게 움직이도록 하였다. 이것을 전체 지휘 및 진행을 담당한 교사가 기록하였다가 활동후 시상하도록 하였다.



⑩ 시상식

시상식은 모든 민속놀이활동이 끝난후 전체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다음에 이루어졌다. 활동을 점수로 기록하였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에게 1, 2, 3등의 사탕메달을 수여하고, 질서를 잘 지킨 팀, 열심히 활동한 팀에게도 시상하였다.



모든 활동을 마친후 반별로 학급반장이 인원보고를 하고 담임 교사의 지도 하에 하교 하였다.

참여했던 교사들, 명예교사, 개발원 연구진이 모여 민속놀이활동에 대해 평가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자율학습의 날' 운영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누었다. 다음 '자율학습의 날'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과 명예교사(어머니)의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2장 오남중학교

1. 개요

오남중학교는 특별활동을 1년 단위로 2주에 1일 2시간씩(수요일 6-7교시) 실시하고 있다. 특별활동반수는 40개 반이 있다. 향후 다양하게 편성하여 각 반에 30명씩 편성하려고 하는데 우천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여 더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남중학교의 특별활동반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특별활동 조직표

번 호	활 동 명	장 소	비 고
1	수학영재반	3-7	2, 3학년 평균 90점 이상
2	영어 이야기 읽기반	3-6	3학년 각반 4명씩
3	독서반	1-1	각반 1학년 2명, 2, 3학년 1명씩
4	영어 독해반	2-5	2, 3학년 각반 2명씩
5	문예반	3-3	각반 1명씩
6	신문 읽기반	1-10	각반 1학년 1명, 2, 3학년 2명씩
7	한자 펜글씨반	2-8	
8	펜글씨반1	2-10	3학년 각반 4명씩
9	펜글씨반2	1-3	1, 2학년 각반 2명씩
10	실용 한자반	3-9	
11	과학실험반	과학실	1, 2학년 각반 2명씩
12	과학탐구반	3-1	2, 3학년 각반 1명씩
13	과학독서반	2-2	
14	기독학생반	1-2	
15	합창반	음악실1	

번호	활 동 명	장 소	비 고
16	컴퓨터반	전산실	각반 1, 2학년 2명, 3학년 1명씩
17	사진반	2-3	수동 카메라 소지자
18	탁구반	2-4	2학년 남학생반 8명씩
19	배드민턴반	1-8	1, 2학년 각반 2명씩
20	무용반	체육관	무용반 학생
21	양호반	양호실	전학년 각반 1명씩
22	바둑반	3-4	
23	장기반	2-1	
24	에어로빅반	기술실	
25	환경보존반	1-4	전학년 각반 1명씩
26	도서반	도서실	각반 1학년 3명, 2학년 1명씩
27	미술반	미술실	각반 1학년 3명씩
28	영화 비평반	시청각 실	2, 3학년 각반 2명씩
29	비디오 한국인물 사	2-6	각반 1학년 2명, 2, 3학년 1명씩
30	니들 포인트반	2-7	각반 여학생반 3명씩
31	레이스 뜨기반	3-8	각반 여학생반 3명씩
32	농구반	3-5	3학년 남학생반 각반 6명씩
33	팝송반	3-10	2, 3학년 각반 2명씩
34	요리반	가사실	3학년 여학생 각반 6명씩, 재료비 각자 부담
35	볼링반1	1-5	1학년 각반 4명씩, 볼링비 각자 부담
36	볼링반2	2-9	2, 3학년 각반 2명씩, 볼링비 각자 부담
37	만화반	1-6	1, 2학년 각반 2명씩
38	누리단	3-2	
39	꽃꽂이반	1-7	여학생반 각반 2명씩
40	공작반	음악실2	여학생반 각반 3명씩

특별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나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적은 수의 아이들로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하고 싶으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교실)이, 특히 우천시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활동과 담당교사의 취미나 관심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도용 자료나 비용이 부족하여 학생들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 계획수립과정

1) 오남중학교 1차 방문(4월 21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습주임 선생님, 서무주임 선생님, 교도주임 선생님과 연구진이 만나 학교 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개발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방문시 함께 가져간 청소년개발원의 수련거리 책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호응이 높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지도, 즉 정서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위한 수련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셨다. 협의 내용은 오남중학교의 특별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연구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활동반 중에서 환경보존반과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오남중학교 2차 방문(5월 31일)

2차 방문의 목적은 환경보존반을 담당하시는 환경주임교사와 만나 연구를 위해 협의하는 것이었다. 환경보존반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기고, 처음 담당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다. 특별활동반은 격주로 수요일에 2시간(2시 30분-4시 30분)동안 실시된다. 환경보존반은 1, 2, 3학년 학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수가 반영되는 1학년은 열심히 하는데 반하여 3학년은 관심이 적다고 한다. 학교행사가 있으면 주로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운 계

획에 비하여 적게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 개인에게 화단이나 화분을 지정해 가꾸게 하였더니 아주 정성으로 가꾸고, 자신이 가꾼 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뿌듯해 한다고 한다. 그밖에 환경보존반 아이들이 주당 2-3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점검하고 있으며 잘 된 반은 점수를 많이 주고, 잘안된 반은 점수를 적게 주어 시상한다고 한다.

3) 운영 계획 수립

환경보존반 연간 지도목표는 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봉사하는 것이다. 환경보존반의 연간 운영 계획은 다음 [표 IV-4] 와 같다.

[표 IV-4] 환경보존반 연간 운영 계획

차시	주 제	활 동 세 부 계 획	준비물 및 유의점
1	조직	CA조직	
2	운영계획	연간 운영계획, 조편성	필기도구
3	주변봉사활동	학교 주변 상황 파악하기	필기도구
4	봉사활동 자체평가	쓰레기 점검반 교실 분리수거 점검반 자체 평가 및 느낀점	필기도구 및 점 검표
5	견학	하수처리장	필기도구
6	봉사활동	학교 주변 도로 봉사활동	비닐봉지, 집게
7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 알아 보기	복사자료물
8	식품오염과 건강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유인물
9	견학	정수시설	필기도구

차시	주 제	활 동 세 부 계 획	준비물 및 유의점
10	폐품 이용한 작품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해 작품 만들기 -공동작품, 개인작품-	각자 필요한 재활용품
11	폐품 이용한 작품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해 작품 만들기 -공동작품, 개인작품-	각자 필요한 재활용품
12	캠페인	봉사활동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 -교내, 교외-	비닐봉지, 집게 유인물
13	스크랩	환경에 관한 자료 모으기	스크랩북
14	자유토론	주제: 쓰레기 줄이기 방안	필기도구
15	견학	환경교육장	필기도구
16	비디오 감상	환경에 관한 비디오 감상	비디오
17	독서 감상 발표회	환경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 발표 및 감상을 서로 나눈다.	독후감, 책
18	견학	안양천의 수질 알아보기	필기도구 및 실험도구
19	무공해 비누 만들기	폐식용유를 이용해 무공해 세제를 만들어 본다.	폐식용유, 양젓물, 나무젓가락
20	평가	환경보존반을 통해 얻은점, 느낀점 및 앞으로의 각오	

3. 실시과정

1) 활동1. 수질검사

환경보존반 활동의 하나인 수질검사는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 교육을 해준다는 공문이 와서 3월에 예약된 것이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도 물, 지하수, 하천수 실험을 실시해 주었다.

수질검사활동 운영 계획서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활동 운영 계획서

활 동 명	수질검사	지도 대상	환경보존반, 과학실험반 남녀 학생들
일 시	1995년 6월 7일 수요일	지도 교사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연구원 2명
장 소	과학실험실	관련 교과	과학
목 표	수돗물과 지하수의 맛·냄새, pH, 탁도, 철, 붕,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등을 기준치와 비교		
준 비 물	수돗물, 지하수, 알콜램프, 삼발이, 비이커, pH측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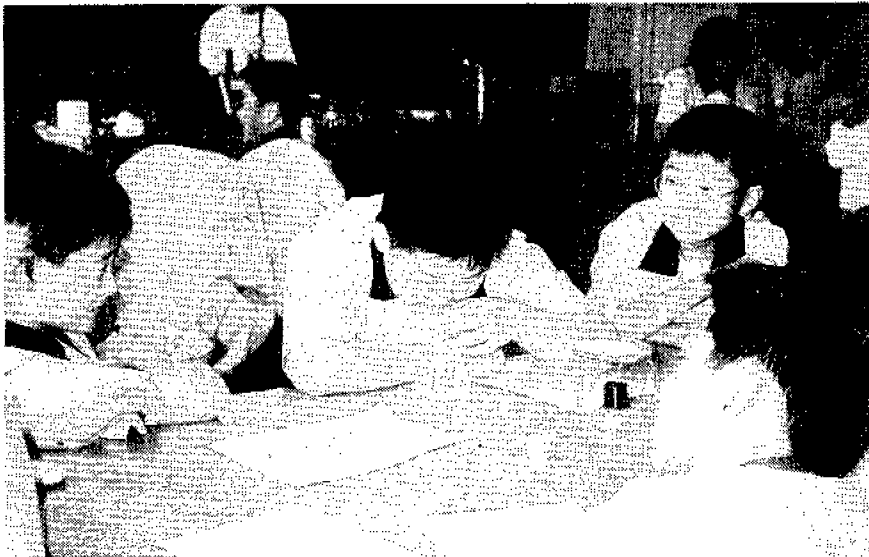
1시 45분에 서울시 수도기술 연구소에서 강사 2명이 도착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다. 2시 30분에 정희선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수질검사 담당자를 소개함으로써 특별활동이 시작되었다.



참여한 아이들은 환경보존반과 과학실험반으로 1조 7명, 2조 7명, 3조 6명, 4조 9명, 5조 8명, 6조 7명, 7조 5명, 8조 8명, 그밖에 7명 등 총 54명이었다. 강사 1명은 수질검사 재료를 준비하고 1명은 실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오른쪽 아이들은 지하수를, 왼쪽 아이들은 수돗물을 검사하였다. 각 조별로 실험재료는 알콜램프, 삼발이, 삼각플라스크 이었다.

강사는 먼저 삼각플라스크에 담긴 물을 알콜램프를 켜서 데우라고 했다 (40~50℃). 수질검사를 측정하는 기계를 교탁에 놓고 한 학생을 앞으로 불러 색과 pH를 보게 하였다.

다음으로 데운 삼각플라스크 용액의 냄새를 맡으라고 하였다. 각 조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삼각플라스크 용액의 냄새를 맡았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고 서로 냄새를 맡았다. 강사는 pH에 대하여, 수질검사후의 색과 탁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고 약간 지루해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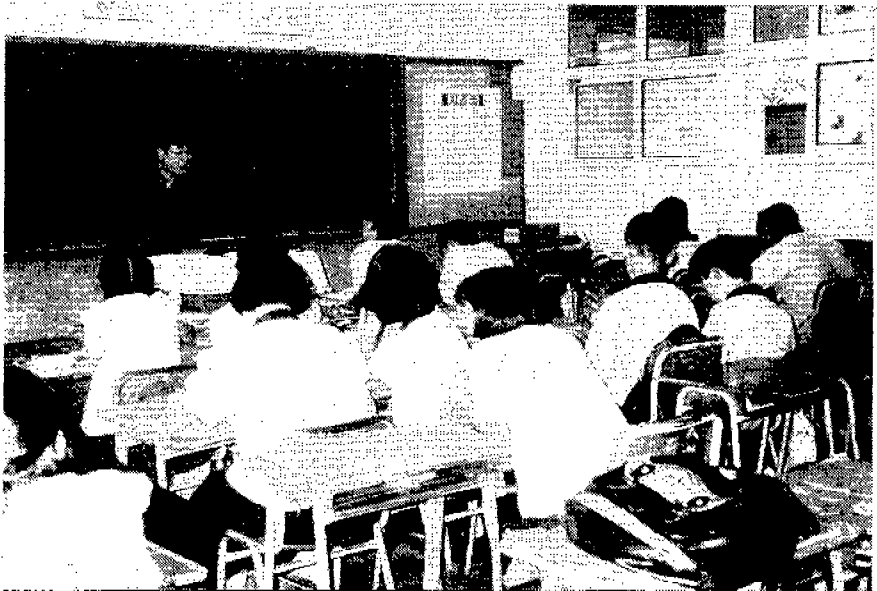
실험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았으며 강사는 수질검사 항목별 특성을 설명

해 놓은 유인물을 통해 수돗물과 지하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다. 다음시간 까지 아이들은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표 IV-6] 수질검사 결과

구 분	맛,냄새	pH	철	동	암모니아성 질 소	염소이온	탁 도
기 준	-	5.8-8.5	0.3이하	1.0이하	0.5이하	150이하	2도 이하
수돗물	0	7.2	0.06	0.01	0.00	11.2	0.29
지하수	X	7.0	0.37	0.07	0.00	24.5	1.12

3시 25분에 특별활동 2교시가 시작되었다. 정희선 환경주임교사의 소개로 청소년개발원의 정희욱 박사가 환경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4시부터는 정희선 환경주임교사와 다음 특별활동에 대해 협의 하였다. 소재로 비디오 감상, 소감문 발표 등이 있는데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을 것으로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정희선 선생님은 ‘갯벌은 살아있다’라는 비디오를 추천하였다. 그밖에 교내 매점에서 캔과 폐품이 많이 나오므로 폐품을 활용한 공동작품 만들기를 하여 10월과 11월에 작품 전시회를 가져도 좋겠다고 하였다. 작품으로는 폐품활용 작품, 스크랩, 교내 담에 벽화그리기, 오염지역 사진찍기 등이 있으며 아이들이 활동을 좋아하므로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3장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자율학습의 날'

일본에서는 학교의 자율학습의 날을 1995년 4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풍부한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풍요롭고 윤택한 품성, 개성 및 창조성이 요구된다. 주 5일제는 아이들의 생활에 여유를 가져오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부성에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오늘날 일본의 아이들에게 부족한 체험이 무엇이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1994년 3월에 실시한 문부성의 「학교교육과 주 5일 학교제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부족한 체험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사·가업 돕기(전체 학부모의 61.0%)
- ② 자연과 친밀한 생활(전체 학부모의 55.5%)
- ③ 독서(전체 학부모의 41.0%)
- ④ 친구들과의 교류, 놀이(전체 학부모의 32.9%)
- ⑤ 자원봉사 활동(전체 학부모의 32.5%)
- ⑥ 지역 사람들과의 깊은 교류 활동(전체 학부모의 31.5%)
- ⑦ 지역의 단체·그룹·씨클에서의 활동(전체 학부모의 24.5%)
- ⑧ 가족들과의 접촉(전체 학부모의 23.4%)
- ⑨ 공부(전체 학부모의 10.0%)
- ⑩ 아르바이트 등 사회에서 일해본 경험(전체 학부모의 6.8%)
- ⑪ 부족한 것이 없다(전체 학부모의 0.8%)
- ⑫ 그 외(전체 학부모의 1.0%)

- 주) •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의 응답
- 질문항목에 관해서는 간략화 함
 - 응답은 복수응답

자료: 문부성 「학교교육과 주 5일 학교제에 관한 의식조사」(1994년 3월)

누구나 아이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길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람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현재 학교는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아이들이 여러가지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서 체험해 보고, 스스로 배워 가는 힘,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힘 등을 기르게 하려 한다.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의 장점을 소중히 하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힘을 기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체험을 통한 학습이나 과제를 추구하는 학습을 도입하거나 다수의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등,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휴일에는 소년자연의 집이나 청년의 집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아이들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려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접목시키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길러지길 원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적·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능

전체 부모의 22.6%, 국민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2.6%,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27.5%,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14.7%,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5.0%

② 평생동안 스스로 학습해나갈 수 있는 힘

전체 부모의 30.6%, 국민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28.7%,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0.5%,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1.7%, 고

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2.6%

③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폭넓은 능력

전체 부모의 39.5%, 국민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5.9%,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36.9%,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44.2%,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45.1%

④ 진학하는 데 필요한 힘

전체 부모의 6.8%, 국민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2.4%,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4.7%,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8.7%,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16.8%

⑤ 기타

전체 부모의 0.5%, 국민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0.4%,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0.4%,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0.6%,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0.5%

- 주) • 국민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의 응답
• 질문항목에 관해서는 간략화 함
• 응답은 복수응답

자료 : 문부성 「학교교육과 주 5일 학교제에 관한 의식조사」(1994년 3월)

일본의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1989년에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학습지도 요령은 지금부터의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다음 4가지의 방침을 주축으로 하여 개정된 것이다.

- ① 품성하고 윤택한 심성의 인간 육성
- ② 기초·기본의 중시와 개성교육 추진
- ③ 자주적 교육력 육성
- ④ 문화와 전통의 존중과 국제 이해의 증진

이와 같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습능력관을 토대로 학습지도 방법이 연구된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타입의 고등학교를 만들고 입학자 선출 방법을 개선하고 진로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다.

다음 미국의 사례는 문사라(1995)의 “노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에서 주로 발췌한 내용들이다.

2. 미국의 체험활동 사례(마이크로 소사어티)

아이들에게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직접 실생활에 연결시켜볼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의 능력은 어른의 능력과 동일하다는 의식의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능력은 어른의 그것과 동일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때는 분명 학교에서 배웠음직한 것인데도,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안타까워 했던 경험을 한두 번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왜 필요한 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좀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후회도 했을 것이다.

교문을 나선 뒤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생활에 살아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설령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습득한 지식들이라 해도, 그것이 말이나 글로써만 배운 것이라면 오래도록 기억에 ‘살아있음’의 확신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를 ‘교육의 방법’으로 압축해보자.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아있게 하는 교육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산 지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만약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과 직접 연결시켜 볼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사회로 나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미국의 바넘 브룩 중학교의 학생들은 우리가 동경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라 불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이것은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충동원해서 만들어낸 작은 사회, 말하자면 가상사회의 축소판인 것이다.

지금부터 전개될 바넘 브룩 중학교 학생들의 작은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21세 예비 변호사 사라 몰턴의 파란

페퍼렐 하우스 복도에 재판 공고문이 나붙었다. 케이틀린이 이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이다.

원고 케이틀린의 변호사로 선임된 사라 몰턴은 곧장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도서관에서 의뢰받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법조문과 판례 등을 찾아보며 나름대로 재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사라 몰턴이 변호사가 된 것은 지난해 8월, 그 뒤로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모두 사전 심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해 냈다.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그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재판이지만 사라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페퍼렐 하우스에는 사라 외에도 다섯 명의 변호사가 있다. 사라는 그들 중 한 사람과 상대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들 훌륭한 변호사예요. 특히 제이슨과 윌리엄,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해

요. 제이슨과 윌리엄은 제가 자기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사건을 맡지 않기를 바랬대요.”

사라는 이제 5학년. 그가 의뢰받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또 이러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또래집단의 자율 사고를 유도함

미국 동북구 보스턴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그라톤 시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페퍼렐 마을에는 바넘 브룩 중학교가 있다. 전교생이 8백 30명, 미국 지방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중학교이다. 4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는 미국 학제의 초중등학교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이 다니는 학교다.

뷰락 선생님이 맡고 있는 5학년 교실에는 스물네 명의 학생들이 둘러 앉아 수업을 받고 있다. 몇명의 학생이 차례로 교단으로 나와 주어진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뷰락 선생님은 한켠에 서서 조용히 경청하고 있다. 동료 학생의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태도도 사뭇 진지하다. 이따금 손을 들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한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뷰락 선생님은 발표 내용에 대한 총평과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이런 전경 역시 미국 중등고등학교의 어느 교실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수업 방식이다. 그러나 바넘 브룩 중학교의 경우 이것은 오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모두 무슨 급한 약속이나 있는 것처럼 어디론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녹장을 부리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작은 사회, 즉 페퍼렐 하우스다.

페퍼렐 하우스 안, 그곳 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키 큰 학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그곳 작은 사회의 경찰인 제시 에이건으로 현재 7학년 학생이다. 그는 지금 학생들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출입증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패스 검사는

경찰인 제시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 가운데 하나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에겐 일단 경고하고 즉석에서 패스를 발행해 준다. 세 번 경고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징수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5마이크로 달러가 더 부과된다. 물론 벌금은 제시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들어간다.

드디어 한 학생이 걸렸다.

“자, 넌 출입증 없이 다녔기 때문에 벌금을 받부해야 겠어.”

“이번엔 또 뭐야. 믿을 수 없군.”

걸려든 학생은 볼멘 소리로 투덜대기는 했지만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시는 걸린 학생에게 패스를 발행해 주고는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을 검문한다.

“자, 여기 있다. 너는 출입증 어디 있어? 음, 됐고... 그 옆에 너, 출입증 있어?”

하우스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진열대를 옮기느라 작은 소란이 일고 있다. 저마다 상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전 내내 수업을 받던 교실이 순식간에 시장으로 둔갑해 버린다.

그러는 사이 ‘작은 사회’의 은행도 문을 열었다. 은행 직원이 연 금고에는 작은 사회의 화폐단위인 ‘마이크로 달러’가 가득 들어있다. 상인들은 능숙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그 위에 물건들을 진열한다. 그들이 취급하는 물건들은 거의 비슷하다. 목걸이, 팔찌, 반지, 머리핀 같은 장신구나 액세서리, 소품들이 울망줄망 놓여 있다. 4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고객 취향과 구매력을 겨냥한 상품들이다. 파는 물건들이 엇비슷해서 상점 간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

한 여학생이 머리핀을 가리키며 가격을 묻는다.

“저 핀은 얼마죠?”

“그것은 40마이크로 달러예요.”

“그걸 살게요.”

손님이 50마이크로 달러를 건네자 가게 주인은 그 돈의 액수를 확인한다.

“네 50마이크로 달러 받았습시다. 거스름돈 10마이크로 달러, 여기 있습니다.”

기성사회 여느 상점과 다를 것이 없는 거래 현장이다. 옆의 다른 가게에도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거나 아이쇼핑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장사에서 성공하러

면, 무엇보다도 고객의 관심을 끌 만한 물건을 확보해야 함은 필수요건. 한 가게의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검정색과 흰색의 팔찌들도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가게의 주인은 여학생으로 인근 도매점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팔찌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재료를 구입해 온다는 도매점은 소매상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5학년생인 팀 맥컬리와 손 스코필드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사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성업 중이다. 작은 사회에서 은행 다음으로 가장 많은 마이크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작은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업소다.

방금 전 문을 열었는데도 밀려든 손님이 원하는 물건들을 꺼내주고, 손은 받은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다.

비록 아마추어 상인들이긴 하지만 그날 그날의 매상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매일 팔린 물건의 품목과 액수를 적어 그 합계가 실제 들어온 돈의 액수와 맞아 떨어지는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간의 경험에 의해 장부 정리가 물건을 파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벌어들인 마이크로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고 있다. 비록 진짜 돈은 아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바로 마이크로 화폐인 까닭이다. 기성사회처럼 모은 돈으로 물건도 사고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벌금을 부과 받으면 벌금도 내야하고.... 요컨대 이 작은 사회에서도 돈 쓸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상가가 끝나는 복도의 끝에는 정부 종합청사 구역이 있다. 비록 인구가 1백 60명에 불과한 작은 사회지만, 정부는 필요한 것이고 그 업무도 단순하지만은 않다.

정부청사 구역 한쪽에 「노동통상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사무실이 있다. ID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특허권을 내주는 게 이 부서의 주요업무로, 작은 사회에서 바쁜 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은 법이다. 작은 사회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노동통상부를 찾는 시민의 절대 다수가 ID카드를 분실한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노동통상부는 ID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부주의한 시민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라는게 한 직원의 푸념이다.

정부의 수입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관청이 있게 마련이다. 페퍼렐 하우스에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조세국」이 있다. 조세국의 국장은 7학년생인 토드 넬슨.

그의 설명에 의하면 행정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매주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것이란 걸 인정하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세금이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인은 세무서 직원. 작은 사회의 조세국 국장 토드 넬슨에게도 그런 직업적 애환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가 말하는 조세국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친구를 많이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반면 배우는 것도 많다. 이를테면 돈을 거둬들이는 법, 장부를 작성하는 법, 세금 걷는 법,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재무성」을 둘러보자. 재무성은 작은 사회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관장하는 곳으로 5학년생인 마크로퍼가 재무국장이다. 각 행정부처의 예산은 물론 재무성에서 나온다. 그 예산을 재무국장이 임의대로 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재무국장 마크로퍼의 말을 들어보자.

“월요일마다 국회가 열리는데 돈이 필요한 부처는 거기에 가서 요청하지요. 국회의 승락을 받으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때 돈을 내주죠.”

마크로퍼는 20만 마이크로 정도의 돈이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장 제임스 맥코믹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만든 작은 사회에서도 돈을 둘러싼 부정은 있는 모양이다.

“저희도 사회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행이 돈에 대한 유통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에도 암시장이 형성되어서 한 학생이 1만 마이크로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

자 은행은 즉시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요. 당연히 그 1만 마이크로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었죠.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회 체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사회에는 팀과 손이 운영하는 도매점처럼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지만 불황에 허덕이는 업종도 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사진관이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사진관에서도 나름대로 도마뱀을 이용한 고객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를테면 손님의 머리카락, 등에 도마뱀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진을 찍을 때 ‘자, 웃어요. 그 표정이 좋아! 정말 멋진데...’ 하는 등의 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바람잡이 역할이 제법 효과를 거두는 것 같다. 한 학생이 도마뱀을 머리 위에 놓고 사진을 찍자 구경하던 학생들도 그런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자청하고 나선다. 비디오 시대의 불행한 사진사들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불황 타개책은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페퍼렐 하우스에는 출판부, 방송국 등이 있다. 시장과 은행에서 수와 셈을 배우듯, 출판부에선 언어를 배우고 실습하게 될 것이며, 작은 사회 방송국 직원들은 첨단 방송 장비들을 다루며 과학과 과학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작은 사회의 아이들은 축소된 현실 세계에서 실전을 경험하며 사회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껏 학교 교실에서 배워 온 수업의 학과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아이들이 왜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마련

이제는 법정을 둘러보기로 하자.

인구 1백 60명의 작은 사회에서도 재판은 끊이지 않는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도 법정에서는 한 건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것은 바로 케이틀린이 이

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날은 생업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제법 많다. 특히 이 소송은 벌써부터 작은 사회의 큰 화젯거리였다. 맞고소사건은 작은 사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느 재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들어찬 방청객들로 이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만큼 배심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재판이므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피고인 이안으로부터 그 경위를 들어보자.

“며칠 전 저는 시장에 갔었죠. 시장 입구 통로에 있는 휴지통 옆에 제 책을 놔두었어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장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니 케이블린이 제가 놓아둔 책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제 책은 케이블린의 발에 걸려 찢어졌구요. 그래서 책값을 물어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많이 사서 그것들을 잔뜩 들고 있었는데 내 책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물건들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까지 다쳤다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원고 케이블린의 변호를 맡은 사라의 주장에 의하면 케이블린은 그 사고로 발목을 다쳐 발목 붕대를 사야 했고, 3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제이슨과 워커 두 사람이다. 이들 역시 작은 사회에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변호사다. 사건을 의뢰받은 사라와 워커, 제이슨은 관행대로 사전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다. 그러나 양측이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사라는 사건의 경위로 볼 때, 원고측이 유리한 사건이라며 승리를 장담하면서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반면 피고측은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다.

몰려든 방청객들로 인해 술렁이던 법정엔 검은 법복을 입은 재판장이 입장하자 일시에 조용해진다. 서기관이 ‘기립!’ 하고 외치자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재판장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해 서

기관이 ‘착석’ 이라고 외치자 다시 제자리에 앉는다.

이어 서기관이 개정을 선언한다.

“본 사건은 케이틀린 그린과 이안 세인트 조지와와 민사사건입니다. 케이틀린이 복도에서 책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안은 자신의 책을 케이틀린이 찢어 놓았기 때문에 1백 50마이크로 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첫 공술을 해주십시오.”

당당히 앞에 나간 사라는 자신에 찬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배심원 여러분. 케이틀린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안보다 안전한 곳이 아닌 문 바로 앞에 책을 놓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안이 현재 피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의뢰인에게 찬성표를 던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면 케이틀린은 결백하고 이안이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첫 공술을 마친 사라는 여유있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이어 피고측에서는 위커가 첫 공술에 나섰다.

“배심원 여러분. 방금 원고의 공술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안이 책을 문 바로 앞이 아니라 문의 옆에 두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케이틀린은 아무 물건에다 넘어지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증인을 세울 차례다. 사라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자신의 의뢰인인 케이틀린.

다리를 약간 절며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케이틀린을 지켜보는 사라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치고 지나간다. 다리를 저는 정도가 그녀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실은 증인석으로 나갈 때 심하게 절기로 그녀와 약속이 되어 있었던 터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끌여가는 한편 배심원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어보겠다는 게 사라의 속셈이었던 것이다.

실패만큼 확실한 인생의 교훈은 없다

증인석에 가서 선 케이틀린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느냐’는 서기관의

물음에 한 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한다. 이어 사라의 증인 심문이 시작된다.

사라 :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정황을 생각나는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 : 시장 구역을 벗어나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살펴보다
가 바닥에 있는 책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라 : 책꾸러미가 문 옆에 있으리라고 예측했습니까?

원고 : 아니오.

사라 :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고 : 다리가 그냥..., 못 일어났습니다.

사라 : 발목은 어땠습니까?

원고 : 발목을 빼었습니다.

사라 :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사라가 증인 심문을 마치고 들어가자 이어 서기관은 피고측에게 반대 심문의
의사를 묻는다. 반대 심문에 나선 피고측 변호사는 제이슨이다.

제이슨: 네, 이름과 나이를 말해주세요.

원고 : 케이틀린이고 아홉 살입니다.

제이슨: 안경이나 렌즈를 끼니까?

원고 : 렌즈를 끼요.

제이슨: 왜 끼십니까?

원고 : 몰라요. 그냥 좀 더 잘 보려구요.

제이슨: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진 나쁜군요.

원고 : 예

제이슨: 근시입니까? 원시입니까?

원고 : 근시입니다.

제이슨: 본 변호인에 대한 증인 신청권을 유보해 놓겠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의 반대 심문이 끝난 뒤 케이틀린은 웬지 초조한 기색을 감추

지 못한다. 사라의 표정도 다소 굳어 있다. 다음은 이안이 증언할 차례이다. 위커가 증인 심문에 들어갔다.

위커: 본인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추정합니까?

피고: 케이틀린이 책에 걸려 넘어졌어요.

위커: 원고가 당신의 책에 어떻게 넘어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피고: 모릅니다.

위커: 본인이 책을 놓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책을 옮겨놓을 가능성이 있나요?

피고: 네. 왜냐면 저는 되도록 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책을 놓았기 때문
입니다.

이어 사라의 반대 심문.

사라: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샀나요?

피고: 아니요.

사라: 교과서를 어디에다 놓았나요?

피고: 되도록이면 복도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휴지통 옆에요.

사라: 왜요?

피고: 시장 볼 때 교과서가 방해되지 않도록 간편하게 하려구요.

사라: 다른 사람에게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그랬어요? 이는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피고: 학생들이 주위에 없었어요.

사라: 선생님도요?

피고: 대부분의 선생님이 일하느라 바빴어요.

사라: 그렇게 많은 학생 중에 책을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피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맡길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사라: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안은 사라의 애매한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표정이다.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사라가 재빨리 질문을 바꾸어 던진다.

사라: 다시 고쳐 물겠습니다. 케이틀린이 넘어진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었나요?

피고: 없었습니다.

사라: 그러니까 별 도리없이 케이틀린은 책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군요.

피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복에서 이안의 변호사가 묘한 제스처를 보내는 것을 목격한 사라가 재판장에게 즉각 이의 신청을 한다.

“이의있습니다. 피고측에서 피고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위커가 당황하며 변명을 한다.

“손을 좀 흔들었지만 답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기가 높아진 사라는 재빨리 증인신청을 미루었다.

“이상입니다. 본 증인에 대한 신청권을 유보합니다.”

이번엔 다시 케이틀린이 증인석에 나갈 차례다. 다시 증인석으로 나가는 케이틀린은 이번엔 잊지 않고 다리를 심하게 절룩인다. 그런 모습을 보며 변호사 사라는 고개를 가로 젓는다.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연기로는 역효과만 볼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 사라에겐 불안하기만 한 의뢰인이다. 그녀가 반대 심문을 받을 때는 더욱 불안하다. 도대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상대의 함정에 걸려들지는 않을지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안의 변호사 제이슨이 반대 심문을 시작한다.

제이슨: 책이 바닥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까?

원고 : 못 봤습니다.

제이슨: 걷는 길을 잘 살펴볼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고 : 위도 봤다가 아래도 봤다가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제이슨: 답변만 하십시오.

사라 : 이의있습니다. 원고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판사 : 받아들입니다.

제이슨: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을 잘 살피면서 걷는 편입니까?

원고 : 조금요.

제이슨: 조금이라니요?

원고 :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사라 변호사의 차례다.

사라: 케이틀린! 당신 앞에 있던 책을 볼 수 있었습니까?

원고: 아니오.

사라: 당신이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고: 없습니다.

심문 내용이 이쯤에 이르자 이안측의 변호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사라는 유리한 국면임을 의식한 듯,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다음 질문을 계속한다.

사라: 그렇다면 앞을 봐어도 멀리 발 밑까지 보진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원고: 그렇습니다.

사라: 그러니까 이안이 땅바닥에 책들을 놓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군요.

원고: 그렇습니다.

사라: 이상입니다. 증인 신청권을 유보합니다.

증인 심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사라의 얼굴엔 만족스런 미소가 흐른다, 사라의 심문이 끝나자 판사는 정회를 선언한다.

“내일 법정을 재개하겠습니다. 본 법정을 정회합니다.”

1차 공판을 끝낸 법정엔 희비가 엇갈린다. 사라와 케이틀린은 여유만만한 표정인데 반해 이안과 그의 변호사들의 얼굴엔 불탄의 빛이 가득하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는 사라 변호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전환 점은 언제였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계속해서 피고를 불러 세워서 그가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었을 때요.”

그러면 피고측 변호사들의 불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위커의 대답을 들어보자.

“원고측의 이의 제기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피고 변호인의 이의 제기로 그런 증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이나 양측 변호사들이 펼친 공방전, 심리전, 심문 등은 기성사회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것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우며, 작은 사회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정담당교사 레츠는 이렇게 말한다.

“법정을 선택한 아이들은 4주에 걸쳐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요. 대학의 법대 과정과 거의 같은 공부죠. 헌법이 어떻게 법정에 적용되는지,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해요. 또 직접 법원에 가서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배우기도 해요. 아이들이 헌법이나 법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도 받지만 변호사나 판사가 되려면 법 전반에 걸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판사가 되려면 95점이상, 변호사가 되려면 85점 이상이 되어야 해요.”

재판이 끝나자 페퍼렐 하우스의 아이들은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각 개인의 자리를 정리하고는 귀가 길에 오른다. 이렇게 해서 오후 수업을 끝내고 평범한 아이들로 돌아가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각자 몸 담고 있는 분야에서 그들이 펼쳐 보였던 직업적 경지가 경이롭기만 하다.

포인트는 프로그램, 권위의 시작이기도 하다

바넘 브룩 중학교의 전교생은 8백 30명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작은 사회의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절대 다수라 할 6백 70명의 아이들은 미국의 평범한

중학교 교실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통적 방식의 수업을 받는다.

페퍼렐 하우스는 그 학교 안에 세워진 작은 실험학교로 현재는 1백 60명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도 오전에는 평범한 수업시간을 갖는다. 말하자면 작은 사회는 이들의 오후 수업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중학교에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당시 막 취임해 온 교장 제임스 맥코믹 씨가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실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했던 것. 그리하여 몇몇 교사들이 며칠 동안 연구한 끝에 제안한 것이 바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작은 사회 프로그램이다.

당시 프로그램 연구에 참여한 일원이자 현재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존 맥쉬히 씨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희가 맨처음 제안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기존의 교육방식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른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에 접근하는 방법론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제안자인 8학년 담임 메리 페헤이 씨의 얘기도 들어보자.

“우리는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바넘 브룩 중학교는 미국 지방 도시의 낙후된 교육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바넘 브룩의 이름은 명문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것은 물론 ‘페퍼렐 하우스’라는 애칭이 붙여진 작은 사회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은 물론, 타성에 젖어있던 선생님들을 부추겼다. 오전 수업의 내용도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이것 역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실제로 오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장을 들여다 보자.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오전 수업은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의자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라의 5학년 교실. 첫 시간은 언제나 뉴스 논평으로 채워진다. 교재는 뷰락 선생이 칠판에 붙인 신문이 전부이다. 수업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대화, 질문·응답형식으로 진행된다. 신문에 나온 뉴스에 대해 학생과 선생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논평을 하는 시간이다.

뷰락 선생이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뉴스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젯밤 NAFTA의 투표가 있었다. 누가 투표를 했습니까? 사라가 말해볼까.”

“하원의원들이요.”

“그래, 클린턴은 몇 표가 필요했지? 사라?”

“2백 18표요.”

“그래, 2백 18표가 필요했다.”

“그런데 2백 34표가 나왔어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안은 바지의 실밥을 뜯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손을 들어 대답할 기회를 찾기도 한다. 논평 시간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이안 같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수업인 것이다.

그 내용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정치, 경제, 과학, 수학, 사회 등 학생들이 배우는 전 과목에 연결된 다양한 주제들을 논평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번에는 과학분야다.

뷰락 선생이 다시 질문을 던진다.

“파괴된 오존층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사라가 대답한다.

“스프레이를 쓰지 말아야 해요. 염화불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에어컨도 아주 더운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해요. 냉장고도 쓰지 않으면 꺼져야 해요. 냉장고는 전기를 소모시키니까요.”

사라의 대답은 툭툭한 생김새만큼이나 정확하고 막힘이 없다.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 그날의 뉴스를 읽어보고 있다는 얘기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페퍼렐 하우스의 작은 사회가 또다

시 분주하게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사라는 또 학교 도서관을 찾아가 책, 자료들과 씨름을 한다. 오후에 있을 2차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라의 공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변호사의 업무량은 점심시간도 아껴써야 할 정도로 사라의 생활 전부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케이틀린과 이안 사건의 제2차 공판이 열릴 재판정은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꽉 들어찼다. 어제의 치열했던 공방을 전해 들은 시민들까지 가세해서 목요일의 법정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서기관이 목청을 가다듬고 제법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한다.

“폐퍼렐 하우스 목요일 법정을 개정합니다.”

원고 케이틀린이 증인석에 섰고 사라 변호사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사라 : 11월 2일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진술해 주십시오.

원고 :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책더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라 : 넘어질 때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까?

원고 : 예.

사라 : 넘어져서 그것들을 다 못쓰게 됐나요?

원고 : 예.

이 심문의 목적은 케이틀린이 받은 물질적 피해 여부를 부각시키는 데 있는 듯, 그에 관련된 상황과 결과를 묻는 질문 몇 개만을 던지고 사라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다.

이어 케이틀린을 상대로 반대 심문에 나선 위커는 ‘걸고 있는 곳을 잘 살펴면서 걸었느냐’는 질문만을 던졌다. 이에 케이틀린이 그렇다고 대답했음은 물론이다.

피고측 변호사 위커가 내세운 증인은 그의 의뢰인인 이안이다. 그를 상대로 양측 변호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책을 놓아 둔 장소였다. 먼저 심문에 나선 위커는 증인으로부터 책을 문옆이 아닌 가장자리 쪽 휴지통에 놓아

두었다는 대답을 끌어내고는 심문을 마쳤다. 이어서 사라의 반대 심문.

사라 : 반대 심문하겠습니다. 이안, 책이 몇 권이었습니까?

피고 : 책 네 권이랑 바인더 하나였습니다.

사라 : 그러니까 책들을 문 아주 가까운 곳에 놔두었다는 말입니까?

피고 : 아주 가깝지는 않았어요.

이 질문에 이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 없는 어조로 대답한다. 사라는 드디어 상대의 약점을 잡은 듯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사라 : 방금 문 아주 가까이에 놔두었다고 했잖습니까?

피고 : 휴지통 옆에 가까이 놔습니다.

사라 : 그 휴지통은 문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했죠?

피고 : 어쨌면요.

점점 더 찢찢 매는 이안.

사라 : 휴지통이 문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피고 : 네.

사라 : 그렇다면 당신은 책을 문 앞에 둔 것입니까? 옆에 둔 것입니까?

드디어 판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대답을 묻는 질문이 던져진다. 이안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슬아슬한 순간 워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제치를 발휘한다.

“이의 있습니다. 증인에게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그의 이의를 받아들였고 사라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사라 : 그러면 책이 문 옆에 있었습니까?

피고 : 네, 조금요.

사라 : 케이틀린이 그 책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피고 :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았습니다.

사라 : 이상입니다.

워커는 진땀을 빼고 자리로 돌아온 이안의 등을 두드리며 ‘잘 했다’고 격려해 준다. 그러나 이안은 피로운 듯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싼다.

이어 양측 변호사 모두 반대 심문할 의사도, 그리고 더 이상 채택할 증인도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최종 변론과 배심원의 판결만 남게 되었다.

먼저 최종 변론에 나선 사라 변호사의 어조는 자신감에 차 있다.

“어제 증언에서도 나타났지만, 물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해도 피고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뢰인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또, 책이 찢어진 것은 제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피고가 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해서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던들 책이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제 의뢰인의 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워커의 변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피고 이안의 변호인으로서 케이틀린의 무참한 어거지 비난에 대해 저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고측의 고소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검증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안이 원고측으로부터 1백 50마이크로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고가 책을 찢어버렸으니까요.”

사라가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데 반해 워커의 변론은 다분히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분위기다.

아무튼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의뢰한다.

“배심원 여러분이 이안과 케이틀린의 사건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이안이 책을 잘못 놓음으로써 과실을 범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은 상의해 주십시오.”

페퍼렐 하우스 법정은 미국의 법정을 본뜬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위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작은 사회의 모범 시민들이다. 그들이 그들만의 숙의를 갖기 위해 자리를 뜬다.

교사가 낄 자리와 관찰할 자리

그런데 웬일인지 사라가 좌불안석이다. 어제, 그리고 방금 전 최종 변론에서 보인 자신에 찬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배심원들이 숙의하는 시간은 길어봐야 10분 정도. 그 시간을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가 어려운지 법정을 서성이며 방청객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한편 이안과 두 변호사는 머리를 맞대고 무슨 애긴가를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이따금 미소를 짓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이 신경이 쓰이는지 사라는 공연히 그들의 주변을 배회한다.

그러자 워커가 사라에게 편잔을 준다.

“매처럼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군. 왜 그래? 이안과 사적인 얘기 좀 하자구.”

이안은 사라에게 저리 가라며 손을 내젓기까지 한다.

이윽고 배심원들이 숙의를 마치고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소비한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으나 사라에겐 10시간 정도는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서기관이 개정을 선언하자 판사가 피고측에게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한 다음 배심원들을 향해 묻는다.

“배심원들은 판결에 도달했습니까?”

“네.”

“어떤 결론입니까?”

배심원의 대표인 한 여학생이 담담한 어조로 답변한다.

“이안에 찬성하는 결론입니다. 교과서를 아무 곳에도 둔 방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케이틀린은 벌금 1백 50마이크로 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케이틀린과 사라의 완전한 패배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인다. 사라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역력하고 이안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오른다. 이안과 그의 변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판사가 양측 변호인들에게 판사석으로 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라는 그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에게 양해를 구한다.

“잠깐만요. 의뢰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내일 열어도 될까요? 네, 항

소하겠습니다.”

열띤 변론을 할 때와는 달리 침착성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이다. 이런 사ارا를 보다 못한 레츠 선생이 달려와 제지한다.

“일단은 정회를 시켜라. 항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

그제야 사라는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서기관은 법정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다음 정회를 선언한다. 방청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법정에는 소송 당사자들만 남았다. 피고측 변호인들이 사라와 케이틀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사라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패배가 믿기지 않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왜 내가 졌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보다 잘했는데 말야.”

“맞아. 처음에는 가망이 거의 없었는데..., 하지만 나는 배심원들에게 설득을 잘했어.”

위커의 설명이 자화자찬으로 들린 탓일까? 사라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제이슨이 잘 도와준 것 같아.”

이때 재판을 방청했던 한 여학생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네 최종 변론이 마음에 들었어.”

“맞아, 최종 변론이 문제였어.”

사라가 그 여학생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자, 위커는 우쭐대며 다시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거라구. 중간에 고전하는 듯하다가 나중에...”

“네 최종 변론에 문제는 있었지만, 하여튼 좋았어. 나도 다음 항소심에서 이용해야겠어.”

위커의 최종 변론이 판결의 향방을 1백 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라는 그제야 웃음으로 패배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녀의 재판 소감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다.

“공평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항소할 거예요. 배심원 중에 4학년이 한

명밖에 안됐고 그 4학년도 남학생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얻은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승리라 해도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패배의 고통은 오래 남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승리한 자는 얻지 못할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남겨준다.

여드름 철부지들을 성숙한 미국인으로 만드는 일

매주 월요일은 작은 사회의 의회가 열리는 날이다. 작은 사회의 의회는 아이들이 실습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해하는 수업시간이라 할 수 있다.

참석한 의원 가운데는 경찰관도 끼어 있고 사라의 얼굴도 보인다. 옆의 의원과 무언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라도 오늘은 입법부의 의원이다. 사라뿐 아니라 모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겸직 의원들이다.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출석을 확인한 의장이 마샬 의원에게 개회제의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입법부 회의는 참석한 의원의 제의를 받아 개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은 마샬 의원의 개회제의 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본 회의 개회를 제의합니다.”

첫번째 안건은 조세국의 예산 요청에 관한 것이다. 예산위원회의 에이저오 의원이 발언권을 얻었다.

마샬 : 조세국은 예산위원회에 정부로부터 7백 50달러의 예산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위원회 분과는 이 안건을 투표에 붙이고 싶습니다.“

의장 : 그러면 의회는 다음 회기까지 예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의장 이하 의원들 모두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엿보게 해준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회 직원이 의제 안건이 실린 유인물을 의원들에게 돌린다. 의제는 페퍼렐 하우스의 벽보 규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

의장은 의제 설명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찬반투표에 붙인다.

“다음 안건은 교실이나 복도 등에 부착물을 붙일 때에 필요한 정부허가 건입니다. 노동통상부나 행정부에서요,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손을 들지 않은 의원은 모두 열 명이다. 그 안에는 사라도 포함되어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간단하게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의장이 의원들에게 논의사항이 있는가를 묻자 호모레스키 의원이 손을 들었다.

“호모레스키 의원 발언하세요.”

“우리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사라도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한다.

“본 법안이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도는 규제해야 하지만 교실과 그 외의 구역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 붙이는 부착물의 적합 여부는 선생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영역인 교실에서의 부착물 규제는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발언이 끝나자 술렁이는 의원들. 대다수의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동시에 미묘한 문제를 지적한 까닭이다. 우선 학생과 선생의 권한 또는 영역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논란이 일 것이고 오늘 회의에서 바람직한 결정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험이 많고 현명한 의장은 이럴 경우 의제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편이 낫다는 걸 알고 있다.

“여러분, 조용! 다음에 더 논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시퀀 의원 발언하세요.”

“재청합니다.”

시퀀 의원의 재청을 끌어낸 의장은 나머지 의원들에게 찬성 의사를 묻는다.

“찬성합니까?”

의원들 대부분이 의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동감하고 있는 모양이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의원들. 그러자 의장은 이번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가를 묻는 주도면밀함도 보인다.

“아니오”

이번에도 거의 이구동성의 대답이다.

단박에 분위기를 주도하여 발의된 의제를 다음 회기로 넘기는 의장에게서 나에게 걸맞지 않는 노련함이 엿보인다.

이렇게 해서 작은 사회의 의회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페퍼렐 하우스의 한 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작은 사회의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다.

바넘 브룩 중학교의 작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도 실험 단계에 있다. 그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가 교사들의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페퍼렐 하우스 교사들의 직업적 자각에서 비롯된 자발적 열의이기도 하다.

그들의 회의 내용을 들어보자. 마침 맥쉬히 선생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아직 지침서 같은 것이 없잖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책자도 필요하구요.”

그의 말에 한 여선생이 동감을 표시한다.

“지침서가 있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성적을 대길때 참 곤란하거든요.”

그녀의 말을 받아 맥쉬히 선생의 말이 이어진다.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와 외부 세계가 별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두 세계가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런 장벽을 허물어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4학년 담임이자, 은행담당 지도교사인 세런 포티에르 선생이 맥쉬히 선생은 이렇게 주장한다.

“또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도 다른 면에서 탁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마이크로를 통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감도 갖게 돼

요. 늘 뒤쳐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맥슈히 선생의 발언.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에는 교육에도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겁니다.”

학생이 제외된 교육정책도 정책인가

목요일 오후, 학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 작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 후원회 회원들이다. 참석자들은 페퍼렐 지역의 교육감독관인 헤링턴 씨, 피츠버그 주립대의 교육학 교수인 찰스헤슬 박사, 바넘 브룩 도서관 사서인 에일런 바너크트 부인, 부교장인 자넷 굿리치 선생, 그리고 페퍼렐 하우스의 선생들과 학생, 학부모 대표들이다.

이 자리에는 여학생 한 명이 참석, 눈길을 끌고 있다. 바넘 브룩 중학교 6학년 학생이자 페퍼렐 하우스 입법부 의장인 캐롤라인이다. 학생 대표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 후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작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피츠버그 대학 교수인 찰스헤슬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희는 이 교육 프로그램 후원회의 회원들로서 이번이 올해로 두 번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후원 그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대학, 학생, 학부모, 학교 행정당국, 선생님들을 연결해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는 것입니다. 미국 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상상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상력이 결핍된 지도자들은 정부나 학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정열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이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바른 교육을 위한 봉사와 투자의 이념과 철학이다. 그러나 작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이같은 정신적인 후원 외에도 그 교육 성과만큼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제로 페퍼렐 하우스로부터 후원회가 지원을 요청받고 있는 필요 용품들을 보면, 컴퓨터와 은행 업무에 필요한 현금 전자계산기, 카메라와 필름, 인화지, 편집기 등 수십 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넘 브룩 학교 당국은 전교생 모두를 이 프로그램에 참가시킬 예정이다.

1967년 하버드의 리치먼드 박사에 의해 창안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은 그 해, 문제점 많은 5학년 교실에서 실험된 이후 해마다 도입하려는 학교의 수가 늘고 있다.

이제 5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바넘 브룩 중학교의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놓고 그 성과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육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육의 의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이 학교 교장의 말을 들어보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해답이 나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페퍼렐 하우스의 작은 사회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현실 세계의 축소판에서 살고 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서로 부딪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타인의 존재를 배우고 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작은 사회에선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소수의 엘리트 그룹을 위해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교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은 사회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열의는 곧 그들 모두가 자기 능력에 맞는 평범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삶은 곧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아이들.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것은 교육의 다른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사회는 바넘 브룩 중학교 외에도 미국의 20여개 학교에서 실험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학생 중 일부만 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활동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에 하루 일과 중 약 1/4의 시간을 할애해서 모의 사회생활을 해보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교육이 얼마나 밀도있게 진행되는지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회에 나가면 어차피 다 하게 되고 배울텐데 구태여 학교에서 힘들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학교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비판을 들 수 있다. 특히 학교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페퍼렐 하우스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협동정신, 리더쉽, 봉사정신을 일깨워주는 데 이러한 단체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그 첫번째 장점이다. 이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어디서나 익히는 기초학습에서 배울 수 없는 사회생활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또한 실제 사회생활을 해봄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실감하게 되고,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두번째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5학년 학생 사라는 법정의 논리 및 생리까지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이 학생의 경우 학교의 사회 공부는 매우 실감이 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중학교의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것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당장 우리나라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은 아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살아 숨쉬는 교육', 그리고 '사회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을 실험하고 수용해야 할 시기가 다소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사업으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수련거리 27종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실천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하는데 있어 수련거리의 목적과 목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수련거리의 현장 적용도,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모델,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 반영 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도의 제고이다. 아무리 좋은 수련거리라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수련활동을 하게 되는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면 이 수련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장에 대한 연구, 수련거리의 현장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현장은 크게 가정, 학교,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이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련거리 운영모형개발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수련거리 현장운영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면담 및 자문, 그리고 시범운영 및 참여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고 학교들의 수련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학교는 '자율학습의 날'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현장의 교사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참여하였다. 한국청소년개

발원은 연구 주체로 수련활동 내용과 실시 전략을 제시하고, 학교는 운영 주체로 수련활동을 직접 실행하는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협력 학교는 서울중원국민학교와 오남중학교로 각 학교별로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크게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된 활동은 특별활동이다. 특별활동은 구체적으로 학급회의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의 세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학교 수련활동은 클럽활동 및 학교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학교 수련활동은 주로 특별활동과 ‘

자율학습의 날’에 실시되고 있는데, 특별활동은 1시간은 집회활동을 하고 1시간은 특기나 적성 개발 활동을 하여 1주에 2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학습의 날’을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1일) 아동들이 책가방없이 등교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수련활동은 주로 특별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별활동은 1주에 1시간 또는 2주 1일 2시간씩, 특기나 적성 개발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행사로는 의식 행사 활동, 학예 행사 활동, 보건·체육 행사활동, 현장 학습 활동, 안전·방재 활동, 봉사·지원 활동 등이 있다.

학교 수련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무슨 일이 있다가나 학교 시험이 있으면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다. 특별활동 시간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도 특별활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행히 특별활동이 교사의 특기나 취미활동과 부합되면 열심히 하지만 입시위주의 학교풍토 속에서 특별활동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의 수련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수련활동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평가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되기도 한다.

학교 수련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활동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

- 1) 특별활동 목표의 문제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년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 2) 특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학습 자료가 부족하며, 갖추어져 있는 시설

도 활용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 3) 교사 측면에서의 문제는 지도에 필요한 기능을 소유한 교사가 부족하다.
- 4) 업무량의 과중으로 특별활동 지도는 부담이 되고 있어, 지도하려는 의욕이 대체로 저조하다.
- 5) 학생 측면에서의 문제는 과중한 학습량으로 특별활동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으며, 참여 의식 및 활동 의욕이 결여되어 있고 지당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될 경우 더욱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 6) 특별활동 조직의 문제는 부서를 설치할 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것인가, 교사의 자질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 7) 특별활동 결과 평가의 문제는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출석율에 의해 형식적으로 평가된다.

수련활동 운영은 정보수집, 계획, 필요 기자재 준비 및 구입, 학생의 동기 유발 및 사전지도, 적극적인 실행과 참여, 평가의 과정을 갖는다.

수련활동 기본계획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수련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 2) 실시할 수련활동을 결정한다.
- 3) 수련활동 테마(주제, 제목)를 결정한다.
- 4) 수련활동 계획, 준비 담당자 결정 및 준비 모임을 갖는다.
- 5) 실시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 6) 구체적인 수련활동 도구를 준비, 제작한다.
- 7) 수련활동 계획시 5W1H를 염두에 둔다.
- 8) 수련활동 계획은 학생들을 지향해서 한다.

수련활동 운영은 보통 담임교사, 명예교사(학부모), 외부의 지도자 및 학생들이 함께 참여 한다. 학생들은 수련활동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수련활동을 해야 하며, 교사는 수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체적인 수련활동을 운영한다.

2. 제언

학교에서는 수련활동을 야영활동이나 극기훈련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체험중심활동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의 수련활동 운영 현황과 수련활동 운영자들의 요구에 따르면 국민학교는 ‘자율학습의 날’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율학습의 날 운영은 주로 지역사회의 특정지역을 견학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으로 움직이고 학급을 분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활동 프로그램에 개념학습, 비디오 보기, 개인학습 등을 포함하고, 전체 학습, 소집단학습, 견학,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 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의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학생들의 생활환경,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조건들에 맞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학생들의 방학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여 학생들의 인격적 자기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활동 운영에 있어서 수련활동 시간 단կ은 학생들에게 자율의 경험을, 팀단위 활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금 못하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서툴더라도,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활동의 주도권을 맡겨야만 한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지금 학생들에게 그들의 시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시간을, 활동을 채워나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수련활동에서만은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활동의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운영하고 활동하도록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있는 지도성은 수련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유능하고 성실한 수련활동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수련활동의 성패가 지도자의 자질여하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련활동 분야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지도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두승(1994),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이중 외(1987), 청소년활동프로그램백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경철(1986),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보경문화사.
- 김성수, 권일남(1994),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성호(1994),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문이당.
- 김은경(1994),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정명(1993), “ 청소년활동의 전개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
개발원.
- 김정명 외(1991), 청소년활동동기부여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남세진(1992),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부성(1995), 學校週 5 日制의 解説と 事例, 子供の豊かな人間形成のために.
- 문사라(1995), 노는 게 배우는 것이다. pp73~108.
- 서울신상계국민학교(1994), 종합학예발표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상설 특별활동
반 운영을 통한 예·체능 특기 신장.
- 서울중원국민학교(1995), 자율학습의 날 운영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1995), 책가방 없는 날 운영 방안(국민학교).
- 오남중학교(1995), 학교교육계획.
- 우리교육(1995), 우리 반 개성 살린 알뜰배움장터, 10월호(중등용).
- _____ (1995), 자연속으로 떠나는 미술여행. 8월호(중등용).
- _____ (1992), 즐겁게 참여해서 보람 나눠 갖는 특별활동. 4월호.
- 유자와 아키라(1994), 이벤트 소프트.
- 환경(1995), 등산학교로 자연을 보호하자. 1월호.
- 한국청소년연맹(1986), 누리활동사례집.

부록 1. 일본의 주 5일제 학교 사례¹⁾

- 아이들의 풍요로운 인격형성을 위해 -

목 차

1. 국민학교 사례

사례1. 지도내용 및 방법의 연구

사례2. 주당시간과정의 연구와 지도계획의 개선

2. 국민학교 사례에 관하여

3. 중학교 사례

사례1. 주시간과정의 연구와 지도내용의 정선·지도방법의 연구

사례2. 지도방법의 연구와 학교행사

4. 중학교 사례에 관하여

5. 고등학교 사례

사례1. 주체적인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도방법 개선

사례2. 특별활동, 실습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6. 고등학교 사례에 관하여

1) 자료 : 문부성(1995), 學校週 5 日制の 解説と 事例, - 子供の豊かな人間形成のために -.

일본에서는 1989년 12월의 지정이후, 학교 주 5일제의 실천적 연구에 착수하여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월 1회 또는 월 2회 주 5일제 학교를 시범 운영하였다. 각 학교에서 월 1회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둔 사례를 학교별로 제시 하였다. 또한 사례 뒷부분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관한 교육과정상의 대책 및 학교운영상의 대책을 고찰 하였다.

1. 국민학교 사례

사례 1. A국민학교(지도 내용 및 방법의 연구)

1) 특징

이 사례는 주 5일제 학교를 도입함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에 힘쓰고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주력하였다.

첫째, 수업시간은 현행대로 하되,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교과외 활동시간으로 사용한다.

둘째, 지도내용을 중점화 하고 체험학습이나 개인에게 적절한 지도방법을 개선했다.

2) 학교의 실태

아동수 463명, 학급수 15(특수학급 포함)개, 교직원수 25명이며 자연의 혜택을 풍부하게 입고 있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시설·설비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지역이다. 아동들은 밝고 솔직하며, 보호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원칙적으로 월 1회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부터 착수하였다.

3)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

교과, 도덕 및 특별활동의 각 수업시간수, 각 학년마다 주어진 총수업시간수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시간수를 확보한다. 또한, 교육수준 유지, 향상에 힘쓰고 아동 학습부담이 과중해 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4) 교육과정의 태도

① 수업시간수 확보

수업시간수 확보는 학교행사의 의의를 찾아 학교생활에서 여유가 있도록 배려하고, 기존의 학교행사를 재고하고 정선한다.

예를들면 수업시간이나 횟수를 줄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육상대회(이틀을 하루로) 6시간 감소
- 학교행사 연습(운동회) 4시간 감소
(졸업식) 2시간 감소
- 아동집회(6종목을 3종목으로) ... 2시간 감소

삭제시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대청소 3시간 감소
- 아동집회(명절 집회) 1시간 감소
(제초, 휴지 줍기) ... 1시간 감소

학교행사에서 교과로 이동시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 테스트(고학년 체육으로) ... 6시간 감소
- 지역 견학 (중학년 사회로)..... 6시간 감소

이와 같은 결과로, 5학년 아동활동에서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전의 28시간을 24시간으로 줄였으며, 학교행사 실시전의 100시간이었던 것을 79시간으로 줄였다.

■ 수업일수 ■

	실시전	실시후
1~5년	239일	229일
6년	240일	230일

각 교과 수업시간수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하되, 토요일 수업시간은 종래의 목요일 다섯시간째에 실시하던 학교재량시간을 정선하여 그것으로 충당한다.
(예)

휴업일 ... 1990년 10월 27일(토) (4째 토요일) 해당 토요일 수업시간수 3시간 중 첫째 시간 교과를 10월 4일(목)의 다섯째 시간인 학교 재량시간에, 둘째 시간 교과를 10월 11일(목)의 다섯째 시간인 학교재량시간에, 셋째 시간 교과를 10월 18일(목)의 다섯째 시간인 학교재량시간에 각각 실시한다.

② 지도방법의 연구 및 개선

본교에서는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학교운영의 자세」를 주제로, 「주 5일제 학교 실행으로 아동의 주체적인 활동 추구」를 부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이 주체적인 활동의 근본이 되는 자질이나 능력의 육성은 학교생활은 원래부터 아동의 가정이나 지역에서의 학습이나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어 주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을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스스로 배울 의욕과 주체적인 학습과 개인에 따른 지도에 착안점을 두어 지도방법의 연구, 개선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먼저 학습 기반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으로

-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학급 만들기
- 교사와 아동, 아동상호간의 인간관계 만들기(접촉을 중시)
- 학습태도의 육성(학습준비, 말하고 듣는 태도, 자주학습)
- 학력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

둘째, 지도안 작성 포인트

- 수업의 중점 사항을 명확히 하기(개선의 구체적인 방책)
- 학습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상세하게 파악
- 지도방침으로는 체험적인 학습과 개인에게 적합한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고, 지도계획과 실제 실시시간의 전개 중에 위치를 확립
- 지도목표를 분석(하위목표, 관련도 작성 등)
- 좌석표에 개개인 아동의 실태와 하위목표에서의 실패점, 지도시 배려, 기대되는 반응 등을 표시

③ 학습지도의 실제

수업연구 및 일상 수업실천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 체험적인 학습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험, 관찰, 견학, 조사 외에, 구체적인 물체를 이용하여 조작하는 활동, 실감하게 하는 동작화나 발산을 아동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워크시트 활용, 학습형태 연구(그룹, 페어, 개별학습 등), 실패 진단 테스트 단계별 연습문제 제시, 좌석표시 이용에 따른 지도 등, 한사람 한사람의 학습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연구한다.

④ 성과와 과제

- 성과로는 수업시간이 계획적으로 확립되고, 아동의 자세에 변화가 보이고, 학력도 향상되었다.
- 과제로는 먼저 아동의 학습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충실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연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여유가 없어지거나 학교행사나 아동집회가 줄어들어 아동의 즐거움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습면에서도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학습방법을 연구, 개선하여야 하며 교사는 가르치는 교사에서 잘 배우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 아동은 휴업일이 되는 토요일(만남의 날)에 즐겁게 생활체험을 하고 자연, 문학, 다른 사람과 만나며 여유롭게 보낸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수업시간수 확보는 어렵지만 아동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학교교육의 과제를 되짚어가면서, 창의적으로 연구, 개선을 해야 한다.

사례 2. B국민학교(주당시간과정의 연구와 지도계획의 개선)

1) 특징

주 5일제 학교를 실시하면서 부담이 과중되지 않고 교육수준을 유지, 향상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 ① 스스로 배우는 목표, 주체적인 학습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② 체험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아동이 선학습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내용을 중점화 하고, 동시에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을 교재로 도입한다.
- ③ 발전학습, 응용학습을 도모하고 조사학습을 도입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을 휴업일 생활에, 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학교의 학습에 활용 한다.

2) 학교의 실태

전교아동수는 635명으로 2학급(특수학급 포함)이고, 교원수는 25명이고, 대규모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기족 가정은 별로없고, 아동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3) 기본적인 사고방식

아동의 심신의 불균등한 발달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으며 학교가 본래 갖추어야할 자세는 무엇이며,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교육으

로 전환할 때임을 알려 준다. 학교는 여유있는 생활과 수업을 확보하고 아동의 풍요로운 인간형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생애학습의 기초를 배양함과 동시에 「스스로 배울 의욕과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각 아동이 스스로 배울 목표를 정하고, 주체적인 학습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학부모의 바램이나 사고방식에 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돈독하게 함이 중요하다. 학교는 PTA나 각종 단체,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재발굴과 효과적인 운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휴업일인 토요일에는 다른 휴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주체적인 생활하도록 한다.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아동들은 자유롭게 등교하여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등을 이용하게 한다. 다른 아동은 각자의 가정 실정에 맞게 휴일을 나름대로 보내거나 놀거나 지역의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한다.

4)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

아동의 자기교육력을 육성하도록 표준수업시간수 확보, 지도내용의 충실, 학교행사의 사전·행사중·사후지도의 태도 검토, 체육시간에 스포츠테스트 실시, 각 교과 지도내용, 교재의 정선 등에 힘썼다.

주 5일제 학교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휴업일 등 자유시간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동으로 키우는 것이다.

① 과정연구

각 교과, 도청, 특별활동의 수업시간은 종전과 같다. 월 1회 휴업 토요일 3시간 수업은 월요일 첫째 시간에 1주, 3주, 4주에 각각 한시간씩 실시한다.

② 지도계획 연구 및 개선

각 교과 지도내용을 중점화하고 교재를 정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단원(제재) 구조도 작성과 각 단위시간 목표 등을 명확화하고, 체험활동을 중시하며, 발전학습이나 응용학습을 정착시킨다.

각 교과 단원지도계획에 신중을 기하였다. 예를 들어 6학년 역사학습은 먼저 각 단원의 중심개념·하위개념·기본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그 시대의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한 역사학습을 구조적으로 그려, 지도내용을 중점화하고, 교재의 정선을 기한다. 그리고, 각 단위시간의 내용을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명확히 한다. 지역소재의 교재화에 있어서는, 특히 인물이나 문화유산이 그 시대의 이미지를 표현, 시대층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상 2가지 사항에 주의하여 교재를 정선했다.

박물관, 향토자료관, 지역의 유적이나 문화재 등의 견학, 관찰, 청취, 조사 활동을 중시한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도 중요하게 여긴다. 본시간에 학습과제를 명확히 하여, 아동 조사 학습 등을 정착시킨다.

단원말 단계에서 역사 신문을 작성하여 그 시대의 특색 등을 정리한다.

단원에 따라서는, 아동 한사람 한사람의 흥미·관심에 따라서 과제별 학습을 확립시킨다. 각 단원에 대하여 아동의 학습상황을 파악하고, 시간 배분이나 지도내용 등에 관해서도 체크한다.

5) 성과와 과제

성과로는 주 5일제 학교 연구에 있어서 교육과정상의 문제(표준수업시간수의 확보·아동 학습부담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대책에 힘쓰고 함께, 사회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덕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고, 스스로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실천하여 명백히 밝히려고 하였다.

실천 과정에서 아동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 생활과에서 아동이 주체적으로 생동감있게 자신을 발휘하도록 이야기하

기, 쓰기, 놀이,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다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과에서 지역의 소재를 살린 수업실천을 통해 학습이 아동 자신의 생활과 관련되도록 하여 아동이 한층 더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박물관이나 지역시설, 근접 지역의 유적 등을 견학, 관찰, 받아적기 등을 하여 아동과 지역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났다. 학습의욕 육성에도 효과적이었다.
- 도덕시간에 교사의 확고한 태도 때문에 도덕심과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의욕과 학습의욕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
- 지역활동의 발전을 기원하는 수직분할반에 의한 놀이나 집회의 실천은 휴업 토요일 아동의 놀이나 집단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지역의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이나 시각, 사고방식의 폭이 넓혀졌다.
- 공공시설 이용이나 시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등 아동자신의 생활이 계획적, 자주적, 행동적이 되었다.
- 가족들과의 접촉, 지역사람들과의 접촉이 심화되고 친구관계가 밀접해져 또래집단 의식이 길러졌다.
- 토요일 휴업일이 되자 아동생활에 여유가 생겨 아동의 흥미나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향후 과제로는

- 연간지도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한층 정선해 갈 필요가 있다.
- 각각의 아동의 장점과 가능성을 파악하여 그것을 살리는 학습지도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지역과 학교가 협력체제를 조직하여 지역에 아동을 위한 학습의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각지구에 있는 집회장, 사회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동의 생활이 넓어짐에 따른 학부모의 자세에 관하여 지역주민 토론회를 갖고 휴업일의 해당 활동에 대하여 공동이해를 심화하여야 한다.

2. 국민학교 사례에 관하여

주 5일제를 실시함에 있어 학교는 그 도입 취지나 교육수준의 유지, 학습부담 등의 문제에 해결하면서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아동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살리는 것을 학습지도의 기초로 삼고 새로운 학력관을 세우며, 수업일수,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개선하여야 한다.

1) 수업시간수 운영

수업시간에 관해서는 각 교과 등 표준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도내용과 관련, 아동의 학습부담 등에 배려를 하여 학교에서 적절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두 사례 국민학교 모두 각 교과 등 표준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교과외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정선하여 그것으로 충당해 가는 등 수업시수를 삭감한다.

학교행사나 교과외 활동으로 매꿔졌던 시간을 삭감하여 대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위 단축수업을 검토하여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을 그 외 요일로 상충시킴으로 대응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5일제 학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시간 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휴업일인 토요일분의 수업시간은, 양국민학교 모두 4주간을 1사이클로 하여 주시간중에 조정틀을 설치하여,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A교에서는 목요일 5교시에, B교는 월요일 1교시에 충당하고 있다.

주시간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아동의 일주일이나 하루의 학습, 생활리듬, 집

중력이나 지속력의 유지 등에 유의하여 각 교과 수업의 배열 및 학교재량시간의 배치 등을 연구하고, 부담감을 경감시켜 여유가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지도내용의 개선

지도내용에 관해서는 새로운 학력관을 세워 각 교과 교재 정선을 도모함과 함께 체험적인 학습이나 문제해결적 학습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행사나 교과외 활동에 관해서는 교과 지도내용이나 학교외 활동과의 관련을 고려해서 정선을 짜할 필요가 있다.

A국민학교에서는, 학교행사 준비로 충당해 왔던 활동을 검토하여 삭감하거나, 교과활동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학교행사를 정선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외 활동에 관해서는 교과활동에 체험적인 활동을 끼워넣는 등 정선하고 있다. 예를들면, B국민학교에서는 사회과의 역사학습에 있어서 각시대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내용을 중점화하여 교재 정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체험적인 학습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역 역사나 문화, 자연, 시설·설비의 견학과 관찰, 조사 등을 삽입하고 있다.

지도내용에서는, 각 학교마다 학교나 지역의 실태, 아동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꾀하는 것이 기본이다.

각 교과외 활동에 관해서 각 교과 활동으로 발탁함으로써 정선을 하거나 지역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선한다.

3) 지도방법의 개선

지도방법에 관해서는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아동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표현으로 도움이 되도록 아동 이해를 심화시키고, 개인에게 맞게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습발달이 늦은 아동에게는 보충지도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A국민학교에서는 전체 수업연구를 열거나, 초임자 연수에서의 시범수업으로 연구를 심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맞는 지도방법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B국민학교에서는 단원에 따라서 아동 한사람 한사람에게 과제별 학습을 확립해 주거나, 아동의 학습상황을 메모로 쓰거나, 시간 배분이나 지도내용에 관해서 체크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지도방법에 관해서는 각 학교마다 아동의 실태나 교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이러한 방법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도방법의 연구개선은 신학습지도요령이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각 학교마다 아동의 주체적인 학습활동이 성립되도록 배려하고 교사가 그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서 각 교과와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응용이 필요하다.

3. 중학교 사례

사례 1. A중학교

(주시간과정의 연구와 지도내용의 정선·지도방법의 연구)

1) 특징

학생의 학습부담이 과중되지 않으면서 교육수준을 유지하도록 다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 ① 각 교과 수업시수는 현행과 같이 하되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간은 각 교과와 활동시간의 일부로 충당한다.
- ② 각 교과 지도내용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화 하고 「자기과제 기록표」를 작성하여 자주적, 자발적인 학습을 실천하도록 개인에 맞는 지도에 힘쓴다.

2) 학교의 실태

학생은 679명, 학급수는 19(특수학급 1개 포함)개, 교직원수는 35명이며, 인구 14만여인 도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매월 1회, 2번째 토요일을 휴업일로 삼는다.

3) 기본적인 사고방식

각 교과와 연간 수업시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학교행사나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 교과와 활동의 정선하여, 표준수업시수를 확보해 왔다. 이번 연구를 기하여 휴업일인 토요일분의 수업시수는 학교재량시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학력수준 유지는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적절한 교육과정 관리와 원만한 학교운명을 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 하였다.

- ① 「주 6일주」와 「주 5일주」 두가지로 나눠 주 시간과정 편성을 연구 한다.
- ② 각 교과와 상한과 하한의 폭을 정하고 표시된 표준수업시수 취급에 관해서는 교내 실정에 맞춰 검토한다.
- ③ 사전에 주시간과정 조정을 실시하여, 출장 등으로 인한 자습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4) 주시간과정의 연구

구체적인 주시간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휴업일인 토요일의 3수업은 다른 3주 목요일 6시간제 학교재량시간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3주에 걸쳐서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5) 지도내용의 개선과 지도방법의 연구

주 5일 학교제도 연구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가나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시기가 신교육과정 이행기간과 맞물린 것을 고려하여 다음을 배려하여 실천하였다.

- ① 새로운 학력관을 교사, 학생 모두가 자각토록 할 것
- ② 각 교과와 기초적·기본적인 사항 지도를 철저히 할 것
- ③ 과제해결적 학습이나 체험적 학습 및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 학습의 충실, 학생들에게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과제 기록표」를 작성시켜 실천하도록 촉진
- ④ 개인에 맞는 지도에 철저히 할 것
- ⑤ 학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내용에 중점화할 것
- ⑥ 각 교과마다 지도안 형식을 통일하고, 특히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확립해서 활용하도록 지도방법 연구개선

6) 성과와 과제

성과로는 주 5일 학교 실시로 새로운 학교 운영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반면 보호자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과제로, 현행 연간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 지도내용의 개선·지도방법의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을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학교행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며, 예를들어 수학여행 행사지도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등, 계획, 실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자기과제 기록표 등 자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향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운영조직을 재검토하거나 교육사무의 합리화 등 이것을 계기로한 학교운영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교과별 실천사례이다.

■ A중학교 교과별 실천사례 ■

교과	지도내용의 개선	지도방법의 연구	성과 및 과제
국어과	고전에 있어서 기초적·기본적 사항을 검토하고, 음독(음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반복해서 읽힘으로 해서, 내용이해로 파악시켜 학습심화를 도모하는 지도과정 연구 했다.	지도전반의 심화, 학습의 심화는 보여지나, 예제 수업시간수를 상회 하였다.
수학과	「관수와 비례」에 집중하여 기초적·기본적인 사항 검토를 실시했다.	개별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법 연구를 실시해 보았다. (일체 테스트를 실시,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충지도를 실시했다.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을 되짚어 보는 「과제학습」을 수업시간에 포함시켜갈 필요가 있다.
미술과	지도내용을 발상·구상단계, 표현단계, 완성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을 지도했다.	- 워크시트를 연구하고, 발상·구상에서 표현·완성까지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이 전개되도록 배려하였다. -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지도 충실에 힘썼다.	-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인 진전 되었다. - 지도과정을 구조적으로 다시 파악하여, 창조하는 기쁨이 있는 학습실현에 힘썼다.
영어과	언어활동 충실에 중점을 두고 회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동사를 사용한 표현에 대해 지도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픽처 카드나 게임의 효과적 지도를 통하여 내용 이해 원조와 언어활동 활발화를 꾀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게 되었다.
도덕	특히 빠져들기 쉬운 항목에 대해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에 관련된 시청각교재를 수집하고 활용을 도모했다.	기본적 생활습관 정착을 도모 하였다.
특별활동	- 수업전개 자세를 연구하고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 충실을 꾀했다. - 진로지도 진채구상·연간계획을 정비하고 계통적인 지도계획을 꾀했다.	- 수업전개 자세를 연구하고, 교사의 공통실천을 기했다. - 활동전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자주활동을 도모하였다. - 자주운영을 조장시켰다. - 계통적지도에 유의했다.	- 학습활동의 계통적 지도와 수업시수를 확보하였다. - 학생들의 자주활동 자주운영이 이루어졌다. - 진로지도에 충실하였다.

사례 2. B중학교 (지도방법의 연구와 학교행사)

1) 특징

학생의 학습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교육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① 각 교과와 수업시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간은 각 교과와 활동시간의 일부로 충당한다.
- ② 각 교과 수업시간으로 소집단 학습을 도입하여 지도방법의 개선에 힘쓰고 함께,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중시하여 각 학교행사 내용을 재검토한다.

2) 학교의 실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뉴타운내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다. 학생수는 763명, 학급수는 21학급, 교직원수는 38명인 학교이다. 신흥주택지역과 역사가 오래된 마을로 나뉘져 있다. 원칙적으로 매월 1회, 2번째 토요일을 휴업일 삼고 있다.

3) 기본적인 사고방식

현행 교육과정은 되도록 교육활동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연간 수업시간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수는 각 교과와 활동시간으로 충당해왔던 시간(소위 학교재량시간)의 일부를 이용한다. 따라서, 일과표 연구, 학습효과를 올리는 지도방법 연구, 학교행사의 정선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효과를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주일을 휴업 토요일이 있는 주 30시간, 다른 주를 33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휴업토요일이 있는 주의 3시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까, 또는 여기에 동반되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대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음 3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하였다.

① 수업시간 확보에 관한 연구

휴업토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첫주째 학교재량시간에 휴업토요일 2시간분의 수업, 둘째주 학교재량 시간에 휴업토요일 1교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학습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첫째주 금요일 5교시 및 6교시, 둘째주 5교시를 합쳐 3시간을 총당하나, 학교행사나 연간행사 등의 계획과 관련하여 4주간 안에서 조정,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교과 등 실시상황에 관해서 정기 테스트까지 구분, 조사하고 각 교과마다 그 후 수업시간을 조정 하였다.

② 교육효과를 향상시키는 학습지도방법 연구

학습지도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학습에 대한 참가도를 상승할 필요가 있다. 주 5일 학교제도를 연구하기 이전부터 수업이나 단기 학습활동 등으로 소집단을 이용한 학습지도법을 취해왔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 상호활동을 소중히 한 소집단 학습은, 대화도 활발하여 전체적 수업보다 학습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 소집단에 관한 사고방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문제(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지니며, 추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 과제해결 학습에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여 하도록 소집단학습을 도입,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각 교과외의 대부분의 수업에서 소집단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실 좌석 배치가 「반」 단위로 되어 있다. 좌석배치는 6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장을 중심으로 하여, 하루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반」은 교과나 교과외 수업에서의 「학습반」과 청소나 단기학습활동, 급식시의 「생활반」으로 양분된 기능을 하고 있다. 좌석배치는 남여가 교대로 앉도록 연구되었으며 반장은 반내에서 투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 교과 수업에서의 소집단이용 사례

소집단 학습에서는, 반내에서의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등, 반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이나 이해가 심화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집단 학습에서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집단」에 의해 단결되고, 질이 향상되어, 다시 「개인」으로 되돌아간다는 패턴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통상은 단체 수업의 형태로 실시, 「대화」가 필요할 때에만 반이 되는 방법으로도 응용하고 있다.

○ 단기학습활동 소집단이용 사례

단기학습활동은, 사회를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의 「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답임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단기학습활동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숙제, 제출물, 읽은 사항, 학급·반목표 결정이나 수업 반성 등은 반장을 중심으로 「대화」에 의해 확대된다. 이와같은 단기학습활동에 있어서도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활동이 전면에 나타난다.

③ 학교행사 등의 정선에 대한 연구

학교행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사전지도나 준비로 충당해 왔으나,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간을 학교재량시간의 일부로 충당함으로 인해 그 운영 등에 관해서도 재검토를 하였다.

○ 학교행사에 관하여 사례와 기본적인 사고방식

학교행사로는 의무식, 학예회, 여행·집단숙박행사 등이 있다. 본교는 종래의 학교행사는 폐지하지 않았다. 학교재량시간을 활용하여 준비시간 등으로 충당하였던 시간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중시하여 행사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 수학여행 사례

수학여행 행선지는 동경의 하꼬네 방면이다. 이전에는 교사 주도형이었으나 수년전부터 학생들의 반별 자유행동을 기본으로 한 「프리타임」 형식으로 하고 있다. 동경의 여관을 출발하여 하꼬네에 도착하기까지가 자유행동이다. 도중에 체크는 일절없고 점심식사도 쇼핑도 자유이다. 「프리타임」 동안의 행동은 계획이 중시되고 있다.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서는 반에서 대화이나 교사 지도시간이 필요하다. 학교재량시간이 이용되나 그 외에는, 단기학습활동 등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발행하는 홍보지 등으로 철저한 연락을 기하고 있다.

○ 여유있는 야외활동 사례

지금까지의 야외활동이라고 하면, 연습에 쫓기고 많은 행사 준비로 몹시 바빠했던 것이 보통이었다. 캠프를 가더라도, 일정이 너무 빡빡하여 느긋하게 보낼 시간이 거의 없고 자연을 느껴본다는 본래의 목표도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주 5일 학교제 실시와 함께 행사나 준비, 연습 자세를 재검토하고 일정 등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게 되었다. 남은 시간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여유있는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 행사 사례

행사는 학교행사 이외에는 학생행사와 학년 행사가 주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행사 중에서 「모두 함께 하는 점프 대회」나 고등학생들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학교 조사」 등은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연만들기·연날리기 대회(10시간 정도)나 집단으로 모뉴먼트제작(9시간정도) 등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거나 반활동을 이용하여 행사를 지속하고, 교사 주도형 행사를 폐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4. 고찰: 중학교 사례에 관하여

학교에서는 신학습지도요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실현을 도모하는 관점에 서서 교육과정상의 대응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살리는 학습지도를 근거에 두고서 새로운 학력관을 세워 수업시간, 지도내용 및 지도방법 등에 관해서 연구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심신발달이 현저하고 개성이 다양화 되어가는 시기이므로 개개인 학생들의 특성이나 과제에 관해서 충분

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상 대응은 수업시간의 운용, 지도내용이나 지도방법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여, 단순히 수업시간 운용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고에 입각하여 조사 연구협력교의 실천사례에 대해서 수업시수의 운용, 지도내용의 개선, 지도방법의 개선 등의 시점에서 고찰하였다.

1) 수업시수의 운용

수업시수에 관해서는 각교과의 표준수업시수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도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배려하여 학교에서 적절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는 양학교 모두, 교과과정의 기준에 유의하여 각교과의 연간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 때, 주시간과정 상에서는 4주를 1싸이클로하여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주 6일인 주의 이른바 학교재량 시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동반하여, 학교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전개하였던 각교과의 활동이나 학교행사에 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학교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학교재량시간을 이용해 왔던 B중학교에서는 주5일 학교제도 도입을 계기로 하여 각행사의 내용적 검토를 하여 종래부터의 학교행사에 관해서는 모두 계속하면서, 교사주도형으로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행사를 폐지하는 등 연구를 하여 대응하고 있다.

학교행사나 각교과의 활동으로 충당해 왔던 시간의 삭감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른바 단축수업을 검토하거나,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시간을 그 외 요일로 집어넣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주 5일 학교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시간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주 시간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교과에서 그 실정에 맞게 연구하는 것이 기본이겠으나, 학생들이 일주일이나 하루마다의 학습과 생활 리듬,

집중력과 지속력 유지 등에 유의하여 교과 등 수업 배열이나 학교 재량시간 배치 등을 연구하여, 부담감을 경감하여 여유가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도내용의 개선

지도내용의 개선에서는 스스로 배울 의욕과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의 정선에 힘쓰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 A중학교에서는 각교사가 각각 담당하는 교과에 대해서 학생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내용을 검토하고, 그 개선과 중점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수업에서 기초적·기본적인 사항 지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도안의 형식을 연구하고, 기초적·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확립하여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도내용 개선은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 불완전한 부분도 있어 오늘날의 학교교육의 과제가 되었다. 주5일 학교제도 도입을 기회로 신학습지도요령이 목표로 하는 교육을 진행해가는 관점에 입각하여 지도내용을 검토하고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때, 종래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감안하여, 배우는 학생 입장에 서서, 지금부터의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중학교에서는 체험적인 학습이나 자주적·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각 학생들에게 「자기과제 기록표」 작성토록 하여 가정이나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학습할 계기를 가져다주도록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는 휴업일인 토요일 시간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생애학습 등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큰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중학교에서는 각학교행사 활동내용을 사전지도나 준비의 경감화를 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여유를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행사나 각교과의 활동의 정선에 있어서는 각각의 특성을 배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행사에 관해서는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상학습 성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장으로써 그 준비에 충당해 왔던 활동은 필요한 것으로 정선한다. 또한, 학교행사로써 실시해왔던 것들 중에서 지역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지역과의 연휴를 기하여 정선한다.

각 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각교과 활동으로 발탁할 수 있는 것은 정선하거나, 지역활동과 관련을 고려하여 정선한다.

3) 지도방법의 개선

지도방법의 개선에서는 교사주도형 수업을 재검토하여 개성을 살린 교육으로 충실을 기하는 관점에서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A중학교에서는 예를들면 수학과에서는 습득하고 익히는 정도를 고려한 개별 지도에 중점을 두고, 또한 미술과에서는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발상이나 표현을 소중히 하여 주체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등, 교과의 특성에 맞는 지도방법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B중학교에서는 각교과수업을 필두로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의 거의 전영역에 걸쳐 소집단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 한사람 한사람의 학습, 생활에서의 주체적인 참가를 촉진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 좌석배치가 모두 「반」 단위로 되어 있어, 반장을 중심으로 하루 학교 생활을 전개하고 있다.

지도방법 연구개선은 신학습지도요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학교 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되어 있어, 학습형태, 학습과정, 교육기기 활용을 시작으로 폭넓은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각교과에서 관찰·실험, 조사, 견학, 과제연구 등 활동을 중시함과 함께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개인에 맞는 지도방법의 연구개선에 힘쓰고, 또한 시청각교재, 교육기기를 적절하게 선택, 활용하여 학습의 동기부여와 이해 촉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다양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점에서 방법의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5. 고등학교 사례

사례 1. A고등학교

(주체적인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도방법 개선)

1) 특징

기초적인 재검토와 지도방법의 연구개선을 통해서 교사가 주입시키는 지도에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지도로 학습지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꾀함과 함께, 각교과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표준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하고 있다.

- ①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교재의 정선을 도모한다.
- ② 개별지도를 중시함과 함께, 시청각 교재나 프린트 교재 등을 개발,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태도를 육성한다.
- ③ 각 교과마다 사전에 면밀히 의논하여 지도방법의 연구 개선을 기한다.
- ④ 학교행사를 정선하여, 출장 등에 다른 결강을 대체수업에 의해 실수업시간으로 확보하려 노력하고 연간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2) 학교의 실태

전일제·정시제·통신제 과정을 둔 대규모 학교로, 졸업후에는 대부분이 대학 등에 진학하고 있다. 전일제 과정은 인문계 29학급, 자연계 3학급, 함께 32학급, 1415명, 정시제과정 4학급 59명, 통신제 과정이 1255명이다.

3)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

각 교과·과목 수업시간은 표준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특히 배려한다. 학력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해 지도방법 재구축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도 방법의 연구개선이나 교제의 정선·배열의 검토·적정화 등을 기해 종래 이상으로 효과적 효율적인 수업전개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각 담당자마다의 협의, 사전 회의 등을 면밀하게 실시함과 함께, 각 교과 주임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적 연구를 실시 하도록 하였다. 기초적·기본적 사항의 지도를 중시하며, 끊임없이 지도효과, 학생들의 이해도 등에 대해서 체크를 실시함과 함께, 생애 학습 사회 도래를 전망하여 개개인 학생들에게 자주적 학습 태도의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도록 하였다.

4) 지도방법 개선

각교과 연구 담당자에 의해 「주5일 학교제에 대응하는 학습지도 개선 연구의 시도」, 「연간지도계획」, 「학습지도안」, 「각학기마다 반성점」, 「1년간의 반성점」을 작성하여 책자로써 전교직원에게 배포하였다. 이것을 기반으로 기초적·기본적 사항을 중시한 밀도 높은 수업을 목표로함과 함께 그 전착화를 기하고 보다 발전적 자주 학습을 학생들에게 촉진시키는 지도를 계획하였다.

○ 각 교과 지도방법의 연구, 개선의 예

(공통 사항)

- 지도발전에 있어서 판서사항의 정선과 설명·발문 내용·방법·시기 연구
- 일제지도와 개별지도의 배려, 격려나 면담 등의 중시, 학생들의 사고
- 추측, 감상 등의 중시, 시청각교재·부교재·프린트 자료의 활용, 철저한 중점 정리, 과제
- 자주학습의 표시 등에 유의
- 출장 등에 의한 결강을 교체 수업으로 실시, 병결 등으로 인한 결강은

타교과 과목으로 보충하는 등 수업시수 확보

- 학교행사 등은 될 수 있는한 휴업일이 아닌 토요일에 실시

[1990년도]

(국어과 (국어 I 1단위삭감))

- 면밀한 지도계획과 그 탄력적 운용, · 각 장르의 문장 독해와 요약력의 양성
- 문법, 어법은 내용을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지도,
- 어법 노트 작성
- 교재 프린트 사용,
- 휴업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소논문 학습과 국어 테스트 설정
- 휴업일인 토요일 활용을 위해 과제를 설정
- 수업 개시 시에 미니 테스트를 적당히 실시

(사회과 (현대사회))

- 지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연구,
- 최신정보의 교재화,
- 인물중심으로 지도내용 정선,
- 15분간 테스트 활용

(수학과 : 수학 I)

- 학생들의 실태와 단위수에 적합한 교과서 채택, 노트를 제출시켜 점검 및 지도

(이과 : 화학)

- 면밀한 연간지도계획 작성과 요점지도를 하고,
- 세미 노트식 프린트 활용, 예습,복습의 습관화

(이과 : 물리)

- 수업일지 활용,
- 내용의 정선과 유기적 구성, OHP나 프린트 교재의 활용, 실험시간의 효율화,

- 과제설정에 따른 자주학습 촉진,
- 「사고」와 「실험관찰」 중시

(영어과 : 영어 I)

- 통상 토요일에 테스트를 실시, 질문, 학습상담 분위기를 조장하고, 부교재 활용,
- 흥미, 관심을 심화시키도록 연구,
- 요점지도와 정착화

[1991년도]

(국어 목표~문장 요약력 양성)

- 과목내 분야별 이수 연구,
- 중점사항 검토, 설정,
- 이해도 체크테스트 작성, 보조교재활용, 어휘력 강화

(사회과 목표~교재의 적정화, 자신의 교육력을 기르는 수업)

- 자작 교재의 활용,
- 중점을 파악한 수업,
- 효과적인 판서,
- 부교재에 의한 종합적 이해,
- 보조적 개별지도

(수학 목표~성적 부진 학생의 지도법, 학습 사항 정착화)

- 적절한 문제집 채택, 노트 기술법 지도, 소노트로 이해도 체크, 보조 프린트로 성적 부진자 지도,
- 노트제출로 자주학습 독려

(이과 목표~자주학습 촉진)

- 교재의 시스템화,
- 실험횟수 재검토와 실험방법 연구,
- 컴퓨터 활용,
- 논문, 리포트 지도,
- 정리 프린트 활용,

- 적절한 평가방법
(영어 목표~자주 학습이 가능한 자세를 만드는 수업)
 - 예습, 복습용 프린트 교재 작성,
 - 내용파악 중심 수업,
 - 흥미를 환기시켜주는 교재 활용,
 - 시청각 교재의 활용,
 - 첨삭지도,
 - 자주학습 활용 교재 추천
- 개선 사례 (교과 : 국어, 과목 : 국어 I)
- 단위수의 감소 [6] 단위 → [5] 단위

	단위수	단위의 배분
1989년도	6	현대문2 · 고문3 · 한문1
1990년도	5	현대문2 · 고문2 · 한문1
 - 연구개선의 기본적 고려점
 - 고문1단위의 보충에 관해서, 특히 독해의 기초가 되는 고전문법에 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 표현력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 구체적 대책
 - 연간 지도계획의 재검토
개선의 기본적 시점에 기반을 두고서,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교재의 정선
현대문, 고문, 한문 모두 기본적으로는 「국어 I」 교과서의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나, 특히 현대문에서는 각 단위 복수의 교재 중에서 적절한 교재를 정선하도록 한다.
 - 수업(지도) 연구
문법, 어법 등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내용 및 지도시기를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지도하고, 고전문법, 한문의 구형에 대해서 반복

해 쌓는 학습을 노린 지도방법을 연구한다. 등교하는 토요일 교과관계 시간을 활용한다. 휴업일인 토요일에 적절한 양의 과제를 부여하고 수업 시작시에 간단한 미니 테스트를 적당히 실시하고, 가정학습에 힘쓰고 학습정착도를 관찰한다.

표현지도의 구체적 방법으로써, 1학년에서는 「요약력」의 양성을 지도한다. 이것은, 사고력이나 표현력 육성을 위한 기초학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단시간에 100자 정도의 요약문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로해서, 수업 중에 적당히 실천한다. 이 지도에 필요한 보조 프린트 양식을 검토하고, 실천한다.

5) 정리

교장의 리더쉽 아래 각종 위원회, 회의, 연구회 등을 반복함에 따라 전 교사의 공통 이해사 이루어짐과 함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으로의 전망이 탄생되어, 교사의 모럴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교재 정선, 연간 지도계획의 재검토, 지도법 연구 등에 의해 종래의 획일적, 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기초적·기본적 사항의 효과적 정착화를 꾀할 수 있음과 함께, 학생들의 발전적, 자주적 학습이 가증하게 된다.

자신의 교육력 육성을 전제로 하여, 진로, 적성, 흥미·관심 등에 적합한 여유롭고 풍성한 인간성을 육성함과 함께, 학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자주적 학습을 지원하는 방책(학습상담일의 설정, 휴업일인 토요일 학교개방에 따른 자주 등교 학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홈룸 지도가 종래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어감과 함께, 담당자들간의 한층 긴밀한 제휴가 필요하다 하겠다.

사례 2. B농예고등학교

(특별활동, 실습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편성)

1) 특징

학교재량 시간의 활용, 씨클 활동 등에 대해서 교육과정 편성을 연구함과 함께 장기휴업일 활용이나 과제 연구와의 관련을 되짚어가면서 농업실습 등 내용을 정선했던 것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하였다.

- ① 학교재량시간을 교과·과목 수업의 일부로 충당함과 함께, 씨클활동 부 활동 대체를 실시한다.
- ② 농업실습 등 내용을 정선했고 동시에, 장기 휴업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중에 실시한다.
- ③ 과제연구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도내용을 정선했다.

2) 학교 실태

도시 안의 농지도 점재하는 푸르른 한적한 주택지에 주재하는 중규모 전일제와 정시제과정을 설치한 직업고등학교이다.

3) 교육과정 편성의 특징

- ① 연간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교과외 활동을 실시해 왔던 학교재량 시간을 교과·과목 수업으로 일부 충당한다.
- ② 지도내용에 정선을 기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위한 지도법을 연구한다.
- ③ 특별활동 등으로 충당한 수업시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4) 대응방안

① 각 교과·과목

- 농업에 관련된 교과·과목 지도에 대해서는 실험·실습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의 정착을 기하도록 개선하였다. 예를들면, 장기휴업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는 실습에 대해서는 장기 휴업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 퍼스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OHP 등의 교육기기를 활용하고, 수업에 변화를 주어 효과적인 지도를 명심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개별지도를 실시하였다.
-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해가는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하고, 자주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배려하였다.

② 특별활동

- 홈룸활동 등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방과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학교행사에 관해서는 학생들과 협의를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향상시켰다.
- 부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씨름활동 수업의 대체를 실시하였다.
- 휴업일인 토요일에 시기를 잡아, 농업씨름 대회, 스포츠 대회 등 자주적인 활동을 실시 하였다.

5) 정리

주 5일 학교제도 시행을 실시하여도 교육수준 전하는 인정할 수 없어, 교과과정의 재검토와 지도방법의 연구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보호자 중에서는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등의 의견도 있어, 학생들이 의의가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정비를 포함하여, 토요일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관해서 지도를 보다 연구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정선을 한층 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5일 학교제에 대한 교사간 공통 이해가 얻어져, 각 교과·과목 단위수와 학년배당의 사용, 지도내용의 정선, 지도방법의 연구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② 휴업일인 토요일을 보내는 방법을 지도함에 따라, 다른 휴업일에 대해서도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겼다.
- ③ 가족과의 단란, 지역의 교육력, 문화적·교육적 시설을 재검토하여 활용하려는 계기가 되었다.
- ④ 계절성을 동반하는 농업실습에 관해서는, 탄력적인 취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⑤ 휴업일인 토요일에 농업 씨클 활동이나 학내미화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부 교사의 대응이 필요하였다. 또한, 휴업일인 토요일 농장 작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웠다.

6. 고찰: 고등학교 사례에 관하여

주 5일 학교제 아래에서의 교과 과정은 지금까지 주 6일간에 실시해 왔던 것을 동일한 형태로 주 5일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습지도요령이 목표로 하는 학력관에 입각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전체를 돌아보는 중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스스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런 자질이나 능력을 모든 학생들에게 익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교재 정선을 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주적·자발적인 학습을 촉진시키도록 지도방법을 연구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지역 실태를 되짚어보아 특색이 있는 학교만들기를 추진하는 중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배려해 가면서 교육과정상의 대응을 고려해 가는 것이 중점 사항이다.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고에 입각하여, 수업시수의 운영, 지도내용의 개선 및 지도방법의 개선, 이 3가지 시점에서 실천내용의 고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1) 수업시수의 운영

수업시수 운영에 관해서는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실태에 맞는 각 교과 외 활동이나 학교행사를 정선하거나, 교재의 정선이나 지도방법의 연구에 따른 표준을 상회하여 정해져 있는 수업시수를 삭감하거나 하는 등, 학교와 지역, 학생들의 실태에 배려를 하여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A고등학교에서는 교재를 정선하고 지도방법을 연구하는 중에, 각 교과 연간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교육과정 편성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과목, 특별활동(홈활동이나 씨클활동)을 가능한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잡고, 토요일은 학교행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학교행사는 그 내용을 될 수 있는한 정선하였다. 또한 출장 등으로 인해 수업이 빠지지 않도록 교체수업을 실시, 수업시수확보에 힘쓰고 있다.

B고등학교에서는 연간수업시수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하고 학교행사나 각 교과 외 활동의 의의나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 외 활동을 교과·과목 지도로 도입하거나, 토요일이 휴업일이 됨에 따른 시간의 부족 중 홈활동, 씨클활동에 대해서는 방과후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씨클 활동에서는, 부활동과 연계시켜가면서 활동의 충실에 힘쓰고 있다.

각 학교의 수업시간 운용에 있어서는 지도내용 개선이나 지도방법 연구를 통해서 학습지도에 한층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배려해 가면서 교육수준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토요일에 교과 이외 수업을 집중시켰을 경우, 평일 학생들의 부담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균형있는 시간 편성은 보다 심화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지도내용의 개선

학교교육은 스스로 학습하는 의욕과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나, 지식이나 기능일지라도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충실을 기해갈 필요가 있다. 지식이나 기능은 단편적, 고정적인 것을 단순히 결과로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살려가며 일해갈 한사람 한사람의 학생들의 고유 능력으로써 익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나갈 장면을 지도계획 안에 적절하게 자리잡아,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의 정선을 기함과 동시에, 체험적 학습이나 문제해결적 학습을 중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지도내용은 각 교과·과목뿐만이 아니라 특별활동등과의 관련을 되짚어보아 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중에서 개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A고등학교에서는 각 과목마다 논의나 연수를 면밀히 실시하여,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교재를 정선했고 함께, 자율학습습용 자료나 과제를 연구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홀름활동을 중시하고, 교과담당자 등과의 연계를 해가면서 교과외의 장에서의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다.

B고등학교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교과외의 실험, 실습을 정선했고, 기초적·기본적인 내용의 확실한 정착을 꾀함과 함께, 장기휴업 기간중에 실시할 수 있는 실습 등은 당해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행사를 정선했고 동시에, 그 실시시간을 홀름활동과의 관련을 되짚어가면서 검토하여, 양자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학교행사의 정선은, 그 교육적 의의를 되짚어봄과 함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실습, 씨쿨활동 등과의 관련을 꾀하면서, 기획이나 운영 단계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3) 지도방법의 개선

지도방법의 개선은 신학습지도요령의 취지를 살린 지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결여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지금부터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을 중시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자질이나 능력은 한사람 한사람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응하여 형성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도입한 학습의 장을 설치하는 등, 한사람 한사람의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A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주입식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워가는 수업으로 지도방법이 개선됨과 동시에, 지도의 성과나 학생들의 이해도를 항상 점검하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습복습용 프린트, 발전학습용 과제, 노트 침삭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B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 등 교육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을 주체로한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학교행사의 운영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과제연구의 성과를 수업이나 홈룸활동에 살리는 등, 학생들의 자주성을 길러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등의 지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각 교과·과목 지도뿐만이 아니라 특별활동 등도 포함한 학교교육전체를 통해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부록 2. 자율학습의 날에 활용가능한 청소년개발원 수련거리2)

청소년 수련거리 (1)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문화권 탐방활동	올림픽 문화권	1. 기본코스 (1) 올림픽 공원, 몽촌토성대회가 개최되었던 현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요 유적지와 곳곳의 명소들이 연계되도록 구성됨 ● 올림픽 공원, 몽촌토성 ● 암사동 선사 주거지 ● 태릉 선수촌 건학 ● 태강릉 답사 ● 국립 중앙 박물관 ● 잠실 선착장 ● 여의도 선착장 ● KBS 본관 ● 국립보지 캄배 ● 서울 대공원 관람	4학년	34쪽
문화권 탐방활동	올림픽 문화권	1. 항몽 문화 코스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남쪽 지역 특히 항몽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강화도를 탐방 항몽 유적, 항일 유적지인 강화도 탐방 ● 고려궁터 → 전등사 → 초지진 → 마니산 → 철성단	4학년	35쪽
		2. 통일 문화 코스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북쪽 지역을 탐방 (1) 국립중앙박물관 → 북악 스카이웨이 → 팔각정 (2) 평릉 수목원 → 38선 휴게소 → 철원 (3) 서울 → 북한산성 → 서오릉 → 임진각 → 행주산성 → 서울	5-6학년	36쪽

2) 자료 :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수련거리 (2)

책 (활동영역)	판 동 명	환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바들산 체험활동	① 야영활동	1. 야영 장비의 선택법 2. 배낭 꾸리기 3. 야영 생활 환경 만들기 4. 천막 다루기 5. 버너 다루기 6. 공구 관리 및 사용법 7. 매듭법 8. 응급처치	4~6학년	33~110
	② 수상활동	1. 수영 2. 수상 레크리에이션	4~6학년	112-127 186~192
	③ 항공활동	1. 글라이더	4~6학년	194~197
	④ 자연탐구활동	1. 자연속의 멋진 질서 2. 저공해 비누 만들어 쓰기 3. 자연물을 이용한 표현활동 4. 별자리 관찰 5. 달의 관찰 6. 암석 수집 7. 수생 무척추 동물의 관찰 8. 연못 속의 작은 생물들 9. 식물 채집 및 관찰 10. 자연 놀이 11. 삼림 관찰 12. 곤충 채집	5~6학년	221~236

청소년 수련거리 (3)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예술감상 활동	①영원한 자 유로움 끝 없는 부정	1. 예술의 역사 - 원시시대의 예술, 고대의 예술 - 중세의 예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 근대의 예술 2. 예술과 미와의 관계 - 미의 본질 - 예술과 미와의 관계	4~6학년	44
	②예술 작품 좋은 작품	1. 예술과 예술 작품 - 미술작품의 판단 기준 - 미술작품이란 -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인가	전학년	51
	③아름다움 느끼기	1. 왜 감상하는가 2. 왜 우리는 예술작품을 보는가 3. 무엇을 느낄 수 있나	전학년	59
	④영상 속의 예술가 (아마데우스)	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 - 1763년 일곱살 나이로 첫 연주 - 경이, 신동, 기적으로 불리면서 - 삶이 경박과 방랑과 산만함이 보통 사람의 지겨움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충분히 존경받 는 악곡들 때문에 그의 천박함까지 용서된다	전학년	76
	⑤명사와의 대화 마당 (피카소의 그림)	1. 피카소의 그림(안필준) 2. 자포메띠의 조각(정진홍) 3. 말러의 교향곡(오정무) 4.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소리(정인상) 5. 금동사유반가상(매종무)	6학년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예술감상 활동	① 전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시청각 자료)	1. 인생을 가르쳐 주는 연극(한상철) 2. 백자의 여백미(김기희) 3. 예술과 생활(이양우) 4. 고호의 자화상(차해규) 5. 우리의 소리-국악기 6. 흙에 스민 고려인의 마음-청자 7. 서민예술의 정수-판소리 8. 건축양식과 미술품-사찰 9. 한국의 탈	3~6학년	96 97 98 99
	② 문인들의 음악세계	1. 톨스토이의 눈물 2. 재즈음악을 사랑했던 러셀 3. 폴루트와 햇새 4. 루소의 편곡	4~6학년	129 131 134 136
	③ 명화의 고 향(화가의 생 애가 담긴 비 디오)	1.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다빈치 2. 렘브란트, 장 프랑소와 밀레 3. 오키프트 르노와르, 폴 고갱 4. 파블로 피카소	4~6학년	144~148
	④ 주제별로 엮어보는 영화 감상회	1. 스탠바이미, 사랑의 하모니 2. 굿바이 칠드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며 (사랑과 우정)	전학년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예술감상 활동	① 명곡의 고향(음악가 의 생애가 담긴 비디 오)	● (가족의 슬픔과 기쁨) 1.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2. 개 같은 내인생, 장남 3. 뮤직 박스, 황혼 ● (사람이 사는 여러 길) 4. 마틴루터 킹, 간디, 로메로 5. 라임라이트, 마더테레사의 사랑 ●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6. 시네마 천국, 갈매기의 꿈 7. 스타워즈, 2001년 우주여행 ● (음악가의 생애) 8. 모짜르트, 리스트, 슈베르트 9. 베르디, 브람스, 쇼팽 10. 바그너, 그리그, 드뷔시 11. 하이든, 요한슈트라우스 12.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 13. 쇼스타 코비치	전학년	151
	② 우리의 소리와 춤사 위(우리전통 문화가 담긴 비디오 목 록)	1. 전통무용, 판소리, 김덕수 사물놀이 2. 명창 박동진	4~6학년	165
	③ 미술 사 랑방	1.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2. 주제별 미술감상(한국의 풍경) 3. 사진으로 본 한국의 모습, 관화전 4. 한국의 수채화, 사군자(한국의 풍속)	전학년	177~183

청소년 수련거리 (4)

책 명 (활동영역)	환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독서교실 활동	① 공공 도서관 방문	1. 관찰 대상이 되는 도서관에 방문 허가를 받는다 2. 출발전에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알아두어야 할점, 주의사항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려 준다 3. 관찰이 끝나면 관찰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활동을 마친다	2~6학년	45~48
	② 책과 인생	1. 독서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적 절한 인사를 선정한다 2. 강사는 책에 관련된 경험이나 철학을 정해진 시 간동안 이야기 한다 3. 강의를 끝난후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다	5~6학년	49~50
	③ 내가 권하는 책 - 책 소개장 만들기	1. 평소에 읽은 책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하게 한다 2. 소개장을 만들도록 한다 3. 소개장 만들기가 끝나면 소개장을 주고 싶은 사 람에게 전해주면서 활동을 마친다	4~6학년	60~62
	④ 분량 서적 모 의 재판	1. 분량 일본 만화에 대해 모의 재판을 실시할 것을 알린다 2. 연기자와 준비요원과 함께 대본을 준비하여 연습 을 한다 3. 주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재판을 시작하도록 한다 4. 재판장은 일본만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판결 을 내리도록 한다	5~6학년	80~86
	⑤ 읽고 싶은 책 을 나누 며	1. 이미 읽은 책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집에 쌓여있는 현재를 갖고 오도록 한다 2. 책을 소개하는 사람과 추천 이유등을 적은 소개 서와 함께 도서를 모은다 3. 수집된 자료를 전시한다 4. 전시의 목적,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후 관람하 도록 한다 5. 읽고 싶은 책은 서로 교환하도록 한다 6. 활동후 느낀점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7. 전시물을 정리하면서 활동을 마친다	5~6학년	19~150
	⑥ 1년 후 나의 모습(1년 독서 계 획 작성)	1.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자료(추천도서 목록)를 제공한다 2. 자신의 1년 독서 계획을 세워 계획표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3. 독서 계획표가 완성되면 각자의 계획을 발표하도 록 한다	5~6학년	146~148

청소년 수련거리 (5)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명절시기 활동	① 인사 예절	1. 절의 의미와 종류 2. 절의 횃수, 방법 3. 평절, 큰절 실기	1~6학년	56~68
	② 한복예절	1. 한복의 유래와 명칭 2. 남여 한복입기 실기	4~6학년	69~74
	③ 바른 몸가 짐	1. 선 자세 2. 걷는 자세 3. 앉는 자세	1~6학년	74~79
	④ 방문침 영접 예절	1. 명절 손님 접대하기 활동 - 방문 예절, - 영접 예절 - 손님 배웅	3~6학년	79~84
	⑤ 다과예절	1. 차, 과일 내오기 2. 차 마시기 지도 3. 찻잔 치우기 지도	5~6학년	84~88
	⑥ 친족 관계 도 만들기	1. 이론 지도 - 친족 관계, 손수, 호칭 2. 친족 관계도 그리기	6학년	88~93
	⑦ 예절을 주 제로 한 즉흥 연기	1. 주제별 활동 - 전화 예절, - 소개 예절 - 버스에서의 예절	4~6학년	94~99
	⑧ 연하장 만들기	1. 연하장의 유해 2. 병풍 모양의 연하장 만들기	5~6학년	113~112
	⑨ 명절놀이 활동	1. 전통명절놀 - 윷놀이 - 신발을 이용한 윷놀이 - 투호 놀이 - 제기 차기 - 줄당기기(몸다리기) - 석전 놀이(콩주머니 이용) - 뽕다리 밟기 - 널뛰기 - 씨름, - 가마싸움 - 강강수월래	1~6학년 4~6학년 1~6학년 4~6학년 3~6학년 4~6학년 4~6학년 5~6학년 3~6학년 5~6학년 5~6학년	149~152 152~153 153~154 155~158 160~162 164~165 166~168 170~175 175~177 177~180 180~185

청소년 수련거리 (6)

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도시 농촌 교환 봉사 활 동	□환경보 호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1. 쓰레기 모의기 (1) 모아진 쓰레기 분리하기 (2) 분리된 쓰레기의 재생가능에 대해 알아보기 (3) 종이의 재활용을 알아보기	3~6학년	90~96
	■오염 측정 실험	1. 몇개의 구멍을 판 땅을 찾아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넓고 깊게 판다 2. 하나의 구멍속에 사과속, 다음 구멍에는 배추 3. 다른 하나에는 플라스틱 나머지에는 스티로폼을 넣는다 4. 구멍은 흙으로 덮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는다 5. 한달후 다시 그곳으로 가서 구멍을 파본다 ① 빗물의 성질(산도) 조사방법 1. 비이커에 빗물을 받는다 2. 깔대기와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3. 여과한 물을 PH 시험지를 이용하여 산도를 측정한다 4. 여러가지 액체(수돗물, 강물, 식초) 등과 비교해 본다	3~6학년 5~6학년	97~100
	■대연 측정	1. 투명한 접시 3개를 준비한 뒤 그위에 흰색천 혹은 솜이나 가아제를 깐다 2. 솜을 깨끗한 물로 적신뒤 오염물질 배출원 가까이 1개, 배출원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1개, 교실안에 1개씩 놓아둔다 3.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 부터 하루정도 단위로 일정한 시각에 솜을 넣어 둔다	1~36학년	101

청소년 수련거리 (7)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환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국토탐사 활동	□ 아름다운 나라 (태고의신비)	1. 태고의 신비 -동굴 탐사 (1) 고수동굴(충북 신단양 소재) - 동굴이 형성된 생성원인 - 동굴속의 2차 생성물인 지형지물에 대한 관심	5~6학년	10~11
	② 시간의 나라 (역사의 터 탐사)	❶ 역사의 터 탐사 1. 전폭리 구석기 유적관(경기도 연천군) - 30만~250만년전의 구석기 시대인들의 생활 상 - 100여점의 관련 유적 자료 감상 2. 낙화암(충남 부여) 및 부여 박물관 - 낙화암에 얹힌 전설 - 국립부여 박물관: 1500여점의 유물 3. 전등사(경기도 강화군 소재) -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창건 - 고려대장경 판각, 항몽의 호국 영원 4. 소덕사(충남 예산 소재) - 대웅전: 국보 제49호 - 고려 후기의 목조 불전 5. 강화 전적지(경기도 강화군) - 병인, 신미양요 때의 전적지 -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6. 아우내 장터(충남 천원군 소재) - 유관순 등 3천여명의 항일 만세시위지 7. 임진각(경기도 파주군) - 분단의 현장 체험 - 자유의 다리	5~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5~6학년	32 33~34 39 40 46~47 47 48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국토탐사 활동	③ 빈영의 나라(첨단 산업시설)	1. 첨단 산업시설 타맛 - 대덕 연구단지(충남 대덕군) - 각종 연구소	6학년	72
	④ 그윽한 향기의 나 라(숨겨진 문화 유 산)	1. 숨겨진 문화 유산 (1) 비원(서울 소재) - 창덕궁의 별궁 - 조선왕궁의 대표적인 조원 유적 - 조선 문화의 특징	1~6학년	80~81
	⑤ 꿈의 나라(미래 의 땅)	1. 미래의 땅 - 바다 (1) 인천 -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 간단한 차가 심한 갑문식 부두 - 부두의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은 전국의 20%임 (2) 수원(경기도) - 수원성 - 농업 연구 기관이 많음	5~6학년	107 115

청소년 수련거리 (8)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안전사고 대비 훈련 활동	① 위험 할 땐 이렇게	1. 청소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도상훈련을 통해 숙련시킴	고학년	16~22
	② 우리 집은 안전지대	1. 가정내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 황들을 가상의 상황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가정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처 요령을 숙지함	중·고 학년	41~48
	③ 안전 하고 즐겁게	1.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등 교통수단과 관계가 있는 놀이 기구를 안전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 실습 및 교육을 통해 안전사 고 발생시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을 안다	고학년	64~72
	④ 내가 만드는 안전 주머니	1. 안전사고 발생시 처치에 필요한 각종의 물품을 담은 응급상자를 만드는 훈련을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인식함	고학년	75~79
	⑤ 추적! 안전 사고	1. 가상으로 상황을 만들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 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고학년	101~ 108
	⑥ 함께 하는 우리	1. 안전 사고 대비 훈련이 예방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이외에도 인간의 생명과 삶의 고귀한 가치 를 심어 줌으로써 안전한 삶이 누구에게나 어떤 환 경과 상황에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일깨워 줌	저·중 학년	109~ 113

청소년 수련거리 (9)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자연농장 활동	①꽃과의 만남	1. 논밭 주변에서 주로 자라는 들꽃의 종류와 생태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2. 논밭 주변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들꽃의 종자를 채취하여 화단이나 화분에 길러 본다.	5~6학년	23~30
	② 밭로 흙을	1. 흙 위에 맨발로 강강수월래나 짝꿍기 등을 하며 자유롭게 뛰어 논다. 2. 흙 위에 주저앉아 공기놀이 땅따먹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3~6학년	31~38
	③ 신토불이	1.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인형극을 구성해 발표한다. 2. 우리 농산물과 농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회를 갖는다.	6학년	51~57
	④채소밭 가꾸기	1. 채소밭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씨를 뿌리고 손질하여 수확한다.	5~6학년	73~101
	⑤꽃밭 가꾸기	1. 꽃밭의 규모에 적합한 화초를 심고 잘 자라도록 돌본다. 2. 무궁화꽃 가지치기를 통해 모양을 다듬어 주고 꺾꽂이로 번식시킨다.	5~6학년	102~108

청소년 수련거리 (10)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모 의 지방의회 활동	① 공정한 선거	1. 선거에 대한 절차와 선거 문화에 대한 이해 높이기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 - 공고 - 명부작성 확인 - 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관리 (3) 선거일 공고 (4) 선거 방법 ; 1시표, 무기명, 비밀투표 (5) 투표자 명부작성 (6) 후보자-등록신청 (7) 선거운동 (8) 투표 (9) 개표 (10) 당선인 공고	5~6학 년	53~78

청소년 수련거리 (11)

책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도시 지방 의회 활동	① 동전찾기	- 가슴깊이의 수영장에서 참가자들은 원형대형을 바깥쪽을 향하여 눈을 감고 서 있다. - 아동들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동전을 여기 저기 떨어뜨린다. - 지도자의 신호와 함께 게임의 참가자는 동전을 찾기 시작한다. - 많이 찾아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3~6학년	56~57
	② 탁구공 릴레이	- 참가자들은 가슴높이의 문속에 들어가 동일한 인원수의 2팀을 구성한다. - 지도자의 신호와 함께 각팀의 선수는 탁구공을 입으로 붙어서 목표 지점까지 갔다온다. - 릴레이가 이어진다.	5~6학년	72~73
	③ 해저터널 탈출하기	5~6명이 1팀을 만들어 팀마다 1일 종대로 선다. - 출발신호와 함께 맨 뒷사람이 팀 전원의 가랑이 사이로 잠수하면서 통과해 선두에 선다. - 다시 맨 뒤 사람이 잠수하여 아까처럼 반복하여 전원이 빨리 끝난 팀이 승리한다. - 한 사람이 1번 잠수를 원칙으로 한다.	5~6학년	103~104

청소년 수련거리 (12)

책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① 나의노래 ② 나의추억	-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노래 가락을 떠올린다. - 떠올린 노래가락을 읊조리면서 관련된 추억과 경험을 기억한다. - 그 추억과 경험이 현재 자신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한다. - 자신의 기억한 노래와 추억,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찾는다.	4~6학년	23

청소년 수련거리 (13)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우리 악기 익히기)	① 우리 악기 알기	<악기 이름 맞추기> 1. 큰 종이에 악기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림 위에는 비치지 않는 두꺼운 종이를 덮어 적당한 크기로 퍼즐처럼 잘라서 번호를 매긴다. 2. 두개의 모듬으로 나누고 각 모듬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나와 다른 모듬의 대표와 가위, 바위, 보를 한다. 3. 이긴 사람이 두꺼운 종이를 한 조각 떼어낸후 보인 그림을 보고 악기의 이름을 말한다. 4.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5. 먼저 악기 이름을 맞추는 모듬에게 상을 준다.	4학년	<음악> 교과서 11 수련거리 29~30
	② 우리 악기 이해하기	<소리쫓아 정상까지> 1. 구할 수 있는대로 우리 악기를 모은다. 2. 모듬별로 대표자를 한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눈가리개를 한다. 3. 악기의 소리를 하나씩 모두 들은 다음 모듬마다 악기 하나씩을 선정한다. 4. 자기 모듬의 대표가 부르는 악기의 소리를 듣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고 제한시간내에 모듬의 목표지점에 도착한 사람수가 많은 모듬을 뽑아 기념품을 준다.	4학년	<음악> 교과서 11 수련거리 43~44

청소년 수련거리 (14)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우리춤 익히기)	① 내가 좋아 하는춤은?	1. 각자가 알고 있는 우리춤의 종류와 특징을 발표 한다. 2. 모듬별로 한가지 종류의 춤을 선정해 춤추기를 한다. 3. 이미지를 잘 표현한 모듬에게 상품을 준다.	4~6학년	29~32
	② 우리춤 연출자가 되어	1. 모듬별로 하나의 춤을 선정해 적합한 옷과 색채 를 고른다. 2. 간단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춤에 활용할 물품을 만든다.	4~6학년	50~52
	③ 사위따라 리듬따라	1. 준비한 음악을 모두 함께 듣는다. 2. 5m전방에 곡의 제목이 적힌 음악 막대기를 준비 하고 각 모듬에서 한명이 나와 고리를 던진다. 3. 고리가 들어간 음악막대기에 따라 음악이 나오고 모듬별로 적합한 춤을 춘다.	4~6학년	65~67
	④ 동물모양 춤추기	1. 상자에 동물을 그린 종이를 넣은후 모듬마다 하 나씩 고른다. 2. 모듬대표가 뽑은 동물의 특징을 신체로 표현한 후 모듬전체가 춤을 배운다. 3. 모듬별로 춤 춘후 가장 잘한 모듬을 뽑아 상을 준다.	4~6학년	87~89
	⑤ 말이 아니 어도	1. 반쪽 대본의 대사롤 가지고 상대방에게 춤으로 표현한다. 2. 대본을 보고 춤을 추는 상대방의 춤을 글로 적는 다. 3. 대화를 마친후, 서로의 대본을 비교해 보고 정화 성은 평가한다.	4~6학년	108~109

청소년 수련거리 (15)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우리국 익히기)	① 분임 토의	1. 토론의 주제골 소개하고 3~8명의 소집단을 편 성하여 토론하게 한후 결과를 대표가 발표하게 함	5~6학년	9
	② 내담대로 흔들기	1. 눈만 보이는 보자기를 쓰고 고전음악, 팝송, 탈 춤가락에 따라 몸을 흔들고 의미 토론하기	1~6학년	26
	③ 시대따라 극따라	1. 시대별로 모듬을 나눈후 각 모듬별로 뽑은 카 드와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정함	4~6학년	33
	④ 비디오로 만나는 우리국	1. 시청각 자료를 보고 각자 느낀 우리국의 특징 과 성격에 대해서 발표한다.	5~6학년	46
	⑤ 생생한 현장으로	1. 우리국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국 공연 실태를 관람한다. 2. 관람후 감상문을 작성, 발표한다.	4~6학년	54

청소년 수련거리 (16)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우리국 익히기)	① 내담 대로 흔들기	1. 눈만 보이는 보자기를 쓰고 음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신을 표현한다. 2. 고전음악, 팝송, 가요 등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탈춤가락에 따라 몸 을 흔든다. 3. 보자기를 벗고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 하고 가면극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토론한다.	4~6학년	26~27
	② 생생한 현장 으로	1. 우리국을 공연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조사한다. 2. 공연장을 방문하여 우리국 공연실태를 관람한다. 3. 우리국을 관람한 후 느낌이 어땠는지 감상문을 만 든다.	4~6학년	54~55
	③ 탈의 진짜 얼굴은	1. 사람이 얼굴을 가렸을때 어떤 느낌이 들고 그 기능 이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2. 정해진 모듬에서 만든 탈은 두르고 정해진 시간동 안 춤을 추면 나머지 모듬은 탈을 쓴 사람이 누군 지 종이에 적어 제출하면 많이 맞춘 모듬이 제일 에서 이긴다. 3. 탈을 썼을 때 자신의 느낌과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야기 한다.	1~6학년	82~83

청소년 수련거리 (17)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전통문화 사랑방 활동 (우리풍속 익히기)	① 우리 풍속알기 (토론, 강의)	1. 십간, 십이지판? (1) 십간 : 갑-계 (2) 십이지 : 자-해	6학년	31~34
	② 우리 풍속 이해 하기(게시, 전시, 토론)	1. 음력달력 만들기	6학년	12~14
	③ 우리 풍속 의미 찾기(역할 연기, 토론, 강의)	1. 어디 숨었나 나의 신발 (신발 숨기기 놀이)	2~6학년	70~72
	④ 우리 풍속 지키기 (토론, 분임 토의)	1. 동위에서의 꽃게 싸움(눅다리 밟기)	5~6학년 (여자)	81~83
	⑤ 우리 풍속 새모습 찾기(게시, 전시, 토론, 구연법)	1. 환경굿드리기 (물의 중요성 깨닫기 위한 환경굿) 제문작성→죽문(개인소망)→제삿상 마련 → 제사진행→뒷풀이(춤, 운동)	5~6학년	96~98

청소년 수련거리 (18)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가치관 정립 활동	① 눈 감 으면 떠오 르는(자신 을 돌아 본다)	1. 명상법 익히기 명상에 대하여 배우고 필요성을 인식한다. 2. 주제를 정해 명상하기 주제를 정해 명상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3. 명상에 대한 토론 명상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 토론 한다.	4~6학년	58~65
	② 내가 본 나(자 기 자신에 게 솔직해 보자)	1. 자기 소개서 쓰기 자기 소개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 2. 현실과 이상가치의 차이 알아 보기 현실 가치와 이상 가치의 차이를 인식한다. 3.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글을 통해 원하는 가 치관 정립을 꾀한다.	4~6학년	67~74
	③ 다른 사람이 되 어(가정내 에서 내가 다른사람 이 되어 본다)	1. 역할극 준비 하기 역할 놀이 준비를 한다. 2. 다른 가족이 되어 보기 2명씩 작은 지어 역할극을 발표 한다. 3. 다른 가족 이해 하기 역할 놀이를 통해 느낀 가족 사랑을 실천 한다.	4~6학년	

청소년 수련거리 (19)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바른 시민 생활 활동	㉠색은 알면 민주 주의가 보인다.	1. 자유로운 행동에 관해 토론 2. 남녀 평등에 관한 의견 발표회 3. 박애실천을 위한 장애체험 게임	5학년	

청소년 수련거리 (20)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환경 살리기 활동	㉡ 환경살리기 인식하기 (우리집 환경오염)	1. 환경보호 인식 카드놀이	5학년	53~54
	㉢ 학교, 친구 그리고 환경	1. 환경 불감증 테스트 2. 환경 모의 재판	4학년	61
	㉣ 다시보자 쓰레기	1. 쓰레기 관련 비디오 보기 2. 동네 쓰레기 분포도 만들기	3~6학년 6학년	75 75~76
	㉤ 그린 오리엔티어링	1. 자연탐구 관련 비디오 보기 2. 그린 오리엔티어링	4학년 6학년	99 100
	㉥ 우리집 환경이해	1. 환경 주사위 게임 2. 가공식품 원료 조사표 만들기	3~6학년 5학년	121 123
	㉦ 친구와 만드는 쓰레 기 분리대	1. 쓰레기 분류게임 2. 환경 살리기 발표회	2학년 6학년	131 133
	㉧ 공해지도 만들기	1. 환경사진 찍기 2. 환경공해지도 만들기 3. 환경상상도 그리기	5~6학년 6학년 5~6학년	139 140 141
	㉨ 돌고 돌아가는 세상	1. 문 처리과정 실감게임 2. 하수처리장 견학 3. 하천탐사	6학년 3~6학년 6학년	147 148 149
	㉩ 우리집 환경감시원	1. 환경일지 만들기	5~6학년	162
	㉪ 환경은 살리는 숨씨 자랑	1. 환경살리기 위한 숨씨 발표회	6학년	173
	㉫ 함께 나누는 알뜰시장	1. 알뜰시장 개최	6학년	185

청소년 수련거리 (21)

책 명 (활동영역)	활동명	활동내용	적용 학년	책의 쪽수
지역사회 봉사활동	① 사랑의 지도 만들기	1. 목표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연대 의식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안에서의 봉사활동의 분야를 알게 한다. 2. 내용 : (1) 우리 마을 알기 (2)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3) 우리 동네 탐방 (4) 사랑의 지도 만들기	3~4학년	37~50
	② 손끝으로 사랑을	1. 목표 : 기초적인 수화동작을 배우고 노래를 수화 로 표현해 봄으로써 간접적인 청각, 언어 장애를 경험해 본다. 2. 내용 : (1) 노래 (2) 지화로[가, 나, 다, 라...] (3) 간단한 수화 단어 익히기 (4) 노래를 수화로	2~3학년	95~112
	③ 재활용 으로 복지문	1.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여 재활용이 환경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워 재활용에 동참시킨다. 2. 내용 : (1) 매립장 견학 (2) 우리집 쓰레기 부터 (3) 학교 쓰레기 분리 수거 (4) 재활용으로 복지문	5학년	169~ 182
	④ 사랑 나누기 대회	1. 목표 : 작은 봉사활동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 즐거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2. 내용 : (1) 행사 계획 (2) 포스터 작성 및 홍보 (3) 봉사지킴 향하여 (4) 시상 및 사례 발표	6학년	185~ 200

청소년 수련거리 (22)

책 명 (활동영역)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적 용 학 년	책의 쪽수
정신건강 활동	① 표현활동	1. 첫인상 게임 2. 자기 표현(2)	3학년 6학년	31 49
	② 자기 주장 성 활동	1. 참여자 소개 2. 자신에게 말하기	4학년 5학년	54 71
	③ 꿈찾기 활동	1. 상상력 게임 2. 개인 문장 3. 가장 소중한 것 4. 자유, 선택, 책임	6학년 5학년 2학년 4학년	90 93 96 104
	④ 의미불이기 활동	1. 자신의 삶의 의미찾기 2. 죽음에 주는 의미	5학년 6학년	118 121
	⑤ 경험 활동	1. 상대방 칭찬하기 2. 경험과 대화 3. 시작에 의한 정신건강	3학년 4학년 5학년	137 148 158
	⑥ 주도성 갖기 활동	1. 부모님의 장점 찾기	2학년	181
	⑦ 휴식활동	1. 고민 퇴치활동	6학년	194
	⑧ 심리극 활동	1. 갖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5학년	246
	⑨ 합리적인 사고하기 활동	1. 절대적인 사고 피하기	6학년 5학년	258 285

부록 3. 활동사례

목 차

1. 특별활동 사례
 - 공해연구반
 - 광고문안 만들기반
 - 놀이연구반
 - 만화그리기반
 - 생활미술반
 - 신문반
 - 좋은 노래 부르기반
 - 좋은 영화 감상반
 - 텔레비전 · 잡지 모니터반
 - 향토조사반
2. 학교행사 사례
 - 촌극무대
 - 교내 학예 발표회
 - 가정초청 학급파티
 - 가을을 여는 조출한 학급행사
 - 모듬 대항 놀이
 - 아나바다 장터
3. 기타활동 사례
 - 소박하지만 일찬 환경전을 열어 봅시다
 - 여러 마당으로 구성된 환경전
 - 환경보전 산행
 - 전일제를 이용한 생태탐사 현장학습
 - 자연속으로 떠나는 미술여행
 - 이웃돕기 바자회
 - 복지시설 위문 활동

1. 특별활동 사례

공해문제 연구반

1) 공해문제 연구반 소개

오늘날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온갖 공해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만큼 위협적인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공해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여 공해방지, 공해문제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도 공해문제의 심각성이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했다. 이제 민간 차원의 공해추방 노력의 진전과 함께 학교에서도 공해문제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공해연구반은 공해문제의 연구와 실태조사, 공해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공해추방운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공해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나 공해추방운동 단체들의 활동사례를 참고하면 학생이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각 지방의 특수한 조건들과 맞물린 독특한 공해문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도 있다.

3) 활동내용

- ① 기존의 공해관련 단체에서 만든 자료집이나 신문, 잡지 등의 공해관련기사 등을 통해 공해의 종류, 현황, 심각성 등 공해문제 전반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둠별로 조사하게 하고, 지도 교사도 함께 연구한다. 외부 전문가나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할 수도 있다.

- ② 모둠별로 우리 고장에는 어떤 공해문제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사·연구해서 발표하게 한다.
- ③ 생물이나 화학, 물리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고장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정도 등을 직접 조사·연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다.
- ④ 공해추방 운동 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공해문제의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연구해보고 학급별로 학생회 차원에서 실천운동을 벌여 나갈 수도 있다.

광고문안 만들기반

1) 광고문안 만들기반 소개

현대는 다양하게 분화된 직업과 복잡해진 생활양식으로 인해 널리 알려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에 따라 온갖 대중매체를 동원한 효과적인 선전과 광고가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대부분이 저급한 몸짓이나 언어로 시청자의 눈길을 끄는 데 급급했지 깊은 의미를 담은 광고문안으로 시청자를 감동시키거나 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신문광고, 단체나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홍보유인물 등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대량 선전, 홍보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참신한 선전 광고문안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갖게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의 싹을 틔우고, 학생들에게 유망한 직업을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이 반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광고문안 만들기반의 활동은 주로 광고비평과 광고(선전)문안 만들기의 두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광고비평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광고내용에 대한 비평활동이며, 광고(선전)문안 만들기는 텔레비전 상품광고문, 신문광고문, 행사안내문, 기타 선전문안 등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3) 활동내용

- ① 그동안 보고 들은 광고들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광고의 중요성과 영향, 좋지 않은 광고의 문제 등을 알게 한다.
- ② 모둠별로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를 녹화하거나 녹음하여 모으게 한다. 신문광고문도 참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모으도록 한다. 모은 자료는 모둠별로 정리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특활시간에 수시로 이용한다.
- ③ 모아진 광고문안들을 모둠별로 검토하고 광고로서 좋은 점과 문제점들을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발표하게 한다. 문제점이 심각한 광고는 신문사나 방송국 등에 직접 전화나 편지를 하여 고치도록 한다.
- ④ 광고문안, 선전문안을 직접 만들어 본다.
 - 텔레비전 광고문안 : 어떤 상품을 지정해 주고 그 상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어 본다(음악과 동작도 함께).
 - 신문광고 문안 : 상품에 대한 다양한 신문광고 문안을 만들어 본다.
 - 행사 안내문 만들기 : 학교축제, 학급축제, 가을 낙엽제, 전시회, 교회의 행사 등에 초대하는 안내문을 만들어 본다.
 - 일반 선전물 만들기 : 활동중인 청소년 단체나 가상의 단체 등 여러가지 단체의 활동상, 하려는 일 등에 대해 선전물로 만들어 본다.

놀이연구반

1) 놀이연구반 소개

과다한 수업내용에 지친 아이들은 가끔 ‘선생님, 오락해요’라고 애원하듯 소리지른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좁은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이렇듯 놀이를 좋아한다. 오락실의 파괴적, 폭력적 개인주의 문화와 매스컴의 불건전한 문화가 학생들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 어떠한 대안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교사의 무기력함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놀이를 개발·창작·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놀이연구반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각 놀이에 맞게 교실, 운동장, 야외장소를 선택한다. 설명중심은 교실에서, 야외놀이는 소풍이나 사생대회, 방학중에 할 수 있다. 한가지 놀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놀이의 의미나 배경을 설명하면 좋다. 아울러 놀이반의 활동의의를 충분히 설명하여 즐겁게 노는데 그치지 않도록 한다.

3) 활동내용

- ① 놀이반의 의의와 활동개요를 설명하고, 모둠을 편성한다. ‘모둠일지’ 쓰는 방법을 알려 주어 ‘놀이모둠일지’를 쓰도록 이끈다. 첫모임에서는 난장트리나 박수놀이 등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 좋다.
- ② 놀이패도를 활용한다. 놀이 속에 노래가 있을 때는 노래패도를 만들고, 복잡한 놀이는 놀이패도를 통해 설명하면 좋다.
- ③ 학생들이 많이 하는 놀이의 종류와 이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다. 바람직한 놀이가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학년초에 모듬을 구성할 때 모듬이름, 모듬구호, 모듬노래 등을 만들고 모듬을 자랑함으로써 모듬원 끼리의 유대를 강화한다.

- ④ 청소년 놀이문화 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교지나 학급신문에 실거나 공고판에 게시한다.
- ⑤ 앞의 조사를 통해 얻은 건전한 청소년 놀이를 우정에 관한 놀이, 공동체 놀이, 모듬대항 놀이, 창작놀이 등의 놀이영역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배치한다.

만화그리기반

1) 만화그리기반 소개

만화라는 독특한 양식을 통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교사는 그려진 만화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주변이나 사회현상들에 대해 진지하게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며 나아가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깊이있게 사고하고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다. 잡지에 실린 만화나 만화가계에서 대여하는 만화들에 대한 토론과 비평활동을 통해 건전한 만화를 가려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오늘날 독자적인 예술양식이 된 만화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을 키워준다.

2) 활동개요와 특기사항

만화반의 활동은 만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여러가지 만화들에 대한 감상과 토론 및 비평활동,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처음 한두 시간에 만화반에 대한 소개와 만화반 활동의 의의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한 뒤 세가지 활동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 해가면 되나 그리기 기능을 위주로 지도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세계,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솔직하게 만화로 표현할 수 있는가이다. 활동결과물은 학교 신문이나 학급신문, 게시판에 게재하여 학교문화를 풍성히 할 수 있고, 탁월한 작품은 모아 단행본으로 묶어낼 수 있다.

3) 활동내용

- ① 고학년의 경우 신문에 나오는 만평과 4단 만화를 오려모아 각각의 만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쓰게 하고 특활시간에 돌려 보고 비평이나 토론을 할 수 있게 한다.
- ② 어린이 잡지, 청소년 잡지 속에 실린 만화나 만화가계에서 대여하는 만화책들에 대해 함께 감상하고 느낌이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하게 한다.
- ③ 자신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을 컷수 제한없이 만화로 표현하게 한다.
- ④ 자신이 가장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한다.
- ⑤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 등에 대한 자신의 소감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만화를 그리게 한다.
- ⑥ 신문의 4단 만화나 만평 등을 돌려 보고 담긴 의미를 토론하게 하며, 주변의 사건이나 여러 현상들에 대해 직접 4단 만화로 표현하게 한다. 주제를 제시해 그럴 수도 있다.
- ⑦ 자기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을 소재로 또는 짙막한 이야기를 소재로 줄거리가 있는 만화를 그리게 한다.
- ⑧ 공동창작하기, 만화이어그리기, 만화그리기 대회 등을 할 수도 있다.

생활미술반

1) 생활미술반 소개

특별활동 가운데 미술반은 늘 있어왔고 그 기능과 내용은 흔히 재능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능을 숙달시켜 대학입시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각종 미술대회 등에 내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활미술반은 학생들의 생활을 주체적인 학생생활문화로 이끌어 일상생활에서 유용성을 갖도록 한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민화, 전통공예 등 다양한 지도영역의 예시작품을 준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기심과 참여의식을 높인다. 생활 속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정서인 서구식 미술형식이나 내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족미술을 표현한다.

3) 활동내용

- ① 생활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지도영역의 예시작품을 보여 준다.
- ②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 토론하고 현재의 옷문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토론을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손수건이나 옷만들기를 한다. 옷(손수건)에 들어갈 그림을 정하고 실크스크린으로 떼서 찍어서 입는다.
- ③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보면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공책, 필통 등에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뜻모를 영어와 외국의 만화, 연예인 사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전쟁무기나 로봇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일상학용품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책받침 만들기 등을 한다.

- ④ 예로부터 한 마을에서 민속놀이를 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글귀나 그림을 그린 깃발을 이용하여 놀이나 행사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깃발을 통해 시각적 공유를 얻어냄으로써 놀이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 옛날 깃발 그림 등을 연구하여 유성물감으로 쓰임에 적당한 크기의 그림을 그려 깃발을 만든다. 사전에 모둠별로 사용목적, 그림내용, 문구를 토의하여 정한다.
- ⑤ 절개그림은 본래 굿판이나 불교사찰의 집회에 사용된 무속화와 탕화가 그 유래다. 이것은 회화기법을 활용한 매체로서 액자그림이라는 회화의 소극적 표현기법으로부터 탈피하여 현실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쓰이는 시기와 장소, 성격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선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⑥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벽보 그림,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달력만들기 등을 하고 전시회를 열어 전시한다. 모든 행사는 평가를 해보고 지적된 점은 다음 행사에 반영하면 좋다.

신문반

1) 신문반 소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자유의 하나로 강조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학생들이 직접 누려 보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신문의 제작과정, 제작방법 등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학교생활이나 학급생활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학급)신문을 직접 발행해 본다. 일간지의 기사나 사설 등 시사문제들에 대한 자료수집 또는 연구나 토론을 함으로써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야를 넓힐 수도 있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신문부의 활동은 주로 신문 일반에 대한 이론 공부, 신문만들기의 구체적인 방법연구, 신문스트랩 및 시사토론, 학교(학급)신문 만들기 등의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웃 학교 신문부와 교류하거나 신문사 견학 등도 할 수 있다.

3) 활동내용

- ① 3~4월경에 지도교사가 신문 일반에 관한 대략적인 연구를 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중2 국어 교과서에 다룬 신문에 대한 내용 정도만 지도해도 좋을 것이다.
- ② 모둠별로 일간 신문의 사설이나 만화 칼럼, 사건기사 등을 나누어 스크랩 하도록 한다. 한편 이미 발간된 학급신문이나 학교신문, 다른 학교의 신문들을 모아 평가해 보는 것도 좋다.
- ③ 신문반 내의 모둠별로 학교신문을(소속 반별로 학급신문)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한다. 신문은 자발적으로 만들때에만 그 의미가 있으므로 규격화된 형식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창의성을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학교신문 외에 모듬신문, 가족신문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④ 이웃에 있는 학교에 신문부가 있으면 서로의 신문이나 신문부 관련자료들을 교류하고 신문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좋은 노래 부르기반

1) 좋은 노래 부르기반 소개

뜻도 모를 외국 노래와 광란적인 외국 춤, 성인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저질 사랑타령을 흥내내야 하는 청소년 문화의 현실, 어른 중심의 무절제한 향락 문

화의 유혹속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노래 문화’를 통해 청소년다운 꿈과 아름다운 정서와 감수성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음악 교과서 속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노래들이 수업시간 외에는 거의 불리워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배우고 항상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발굴하고 학교 내외에 널리 보급한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좋은 노래 부르기’는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건전한 공동체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둔 참다운 대중문화를 가꾸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정서에만 충실하며 외국가수의 흉내나 내는 우리 가요계에 의해 소외되어 온 국민들이 전개해 가야할 삶의 노래부르기 문화활동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반의 주된 활동은 전통적인 민요나 가요들 가운데 좋은 노래들을 찾아 배우는 일,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로 노래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일, 좋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일, 나아가 좋은 노래를 불러 널리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래문화를 더욱 풍부히 하는 일 등이 될 것이다.

3) 활동내용

- ① 반원 자신들이나 요즘 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통계를 내 보게 한다.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청소년 노래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좋은 노래, 바람직한 노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결과물은 자료화하여 학교신문 등에 내어 여론화한다.
- ② 우리의 전통 민요나 구전 가요, 현대가요 가운데 좋은 노래들을 찾아 모은다. 이는 테이프나 음반모으기 활동과 함께 진행하면 좋다.
- ③ 좋은 노래를 한 시간에 한두곡 정도 배우고 함께 부른다. 가사를 바꿔 부르기 좋은 노래들은 모둠별로나 개인별로 가사 바꿔 부르기를 한다.

- ④ 고무줄을 할 때 부르는 노래,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 기타 일할 때 불러지는 노래,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등을 찾아 모으고 불러지는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론한다.
- ⑤ 좋은 노래가 모아지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직접 불러 녹음을 하고 테이프를 여러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 학년말 특별반이나 학급마무리 잔치 실황을 녹음하여 나누어 가지면 좋다.

좋은 영화 감상반

1) 좋은 영화 감상반 소개

폭력과 파괴가 미화되고, 깊이 없는 오락물들이 판을 치며, 저급한 말초적 자극만이 판치는 외국영화나 국산영화를 속에 내던져진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에 대한 토론과 평가, 비평활동을 통해 좋은 영화에 대한 분별력과 감상력을 높인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좋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기타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비디오를 소장하고 있는 학생이 녹화하게 하여 함께 감상한다. 좋은 비디오 테이프 찾기 운동을 벌이며, 수집된 것은 널리 알린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비디오기와 시청각실을 활용하여 영상매체가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디오 감상반의 활동은 좋은 비디오 테이프 모으기(좋은 영화 찾기), 좋은 비디오 함께 감상하기, 비디오나 영화내용에 대해 글쓰기나 토론, 유해 비디오 퇴치운동 등의 활동을 적절히 배치하면 될 것이다.

YMCA에 속해 있는 청소년 영화모임,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과 관련을 가지며 활동할 수도 있다.

3) 활동내용

- ① 시중에서 대여하는 테이프들에 대해 조사하거나 각자 본 적이 있는 테이프의 내용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좋은 비디오 테이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 ② 앞의 토론을 바탕으로 수시로 좋은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거나, 좋은 테이프 목록을 만들어 본다. 이미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사에 요청하여 프로그램 목록을 얻고, 학교예산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목록이 정리되면 학교에 널리 알리고 대여한다.
- ③ 선정되어 구입한 비디오를 관람한다. 관람한 후 모둠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내용에 관한 토론을 하거나 감상이나 비평을 쓰고 돌려볼 수도 있다.
- ④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집에 비디오가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녹화하게 하여 함께 관람하거나 자료 테이프로 보관해 두어 후에 사용한다. 방송국에서 녹화된 것을 직접 살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 ⑤ 한 학기에 한두번 정도 좋은 영화가 있을 경우 반원들이 단체로 관람하고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텔레비전 · 잡지 모니터반

1) 텔레비전 · 잡지 모니터반 소개

첨단의 영상매체인 텔레비전은 오늘날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별활동으로서의 모니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텔레비전의 해악과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프로만을 가려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잡지는 국적없는 이름으로 가수나 배우 등 이른바 스타들에 관한 기사와 학생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광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것들이 많다. 대부분 성인 잡지의 모조품들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식과 정서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잡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욱 건설적인 편집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이 반의 활동은 크게 텔레비전 모니터 활동과 잡지 모니터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한달의 반은 텔레비전에 대해, 나머지 시간은 잡지에 대한 비평 및 토론 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주로 모듈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을 나누어 맡아서 본 뒤에 내용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텔레비전의 경우 녹화한 내용을 학교 비디오를 통해 본 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3) 활동 내용

- ① 초기에 텔레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게 한다. 평소에 보았던 텔레비전 내용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자기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수 등을 발표하게 하고 ‘텔레비전과 우리생활’ ‘텔레비전의 장단점’ 등의 주제들에 대해 모듈별로 토론을 한다.
- ② 모듈별로 텔레비전의 주요 프로(청소년 프로, 드라마, 코미디, 쇼, 토론, 영화, 뉴스 등)를 돌아가며 나누어 맡아 모듈별 토론으로 내용에 대한 비평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발표하게 한다.

- ③ 시중에 발행되고 있는 청소년 잡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별로 조사하게 하고 본 적이 있는 잡지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과 함께 청소년 잡지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토론을 통해 살펴 본다.
- ④ 매월 청소년 잡지를 전체적으로 구입하여 모둠별로 돌려 보고 내용을 분석·비평하는 토론을 한 후 전체적으로 발표하게 한다. 토론결과는 잘 정리해서 잡지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
- ⑤ 활동의 내용과 결과가 좋거나 문제점이 심각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담아 격려나 비판의 편지를 쓴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다.

향토조사반

1) 향토조사반 소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구조와 대도시 중심의 사회문화 구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 등으로 인해 자기가 나고 자란 고장의 역사와 전통,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기회를 주며 자기 고장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갖고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개요와 특기사항

향토조사반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역사나 지리 등 주로 의욕적인 사회교과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자기 고장 사람들의 삶에 얽힌 이야기, 남아있는 유적이거나 특정한 지역에 얽힌 이야기, 독특한 풍습과 언어, 풍물 또는 뛰어났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활동, 나아가서 오늘날 고장의 현실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활동들이 모두 향

토조사반이 할 일이다. 향토조사반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찾아다니고 조사하는 활동이다.

3) 활동내용

- ① 몇명씩 모듬을 짜서 고장의 인구, 면적, 부락의 수, 산업구조, 교육기관, 언론기관, 행정기관 등 고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여 발표하게 한다. 도서관이나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상세히 조사하고 결과물은 자료로 만들어 활용한다.
- ② 모듬별로 시기나 마을을 나누어서 고장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도 조사해 볼 수 있다. 관청의 자료나 원로 어른들의 이야기, 고장에서 펴낸 향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일정기간 조사·정리·발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 ③ 자기 고장의 특유한 전통놀이, 세시풍속, 고유한 풍습, 유명한 풍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유래나 얹힌 이야기, 현재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④ 자기 고장의 역사 유적과 그에 얹힌 이야기, 오래 전해 내려오는 민담이나 불려지는 민요, 지형이나 고목, 바위 등에 얹힌 전설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자료화한다.
- ⑤ 자기 고장 사람들의 언어습관, 독특한 방언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이웃 고장의 말이나 표준말과의 차이를 분석·비교할 수 있다.
- ⑥ 자기 고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농문제, 교육문제, 인구문제, 주택문제, 공해문제, 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등)을 조사·발표·토론한 후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2. 학교행사 사례

춘극 무대

1) 활동 개요

춘극이란, 어떤 인물이 개재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꾸며 낸 극이다. 연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술로서 언어가 없었던 원시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시 시대의 인간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손짓, 몸짓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연극의 발생인 것이다.

이러한 연극은 무대의 연기자와 관객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상호 전달되고, 과거의 이야기도 생생한 현재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종합예술이다.

연극은 혼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상호 조정하는 협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극을 직접 해 봄으로써 협동심을 기르고 발표력을 신장시키며 자신감을 고취시켜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 대사와 동작을 직접 해 봄으로써 발표력과 자신감을 기른다.
- 극본 쓰기부터 연습과 공연을 통해 협동심을 기른다.
- 공연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배양한다.

3) 준비 사항

- 준비물 : 자기들이 꾸민 극본, 필요한 소도구나 분장에 필요한 옷, 가면, 녹음기, 무대 장치에 필요한 것들

4) 유의사항

○ 일반 사항

- 주어진 주제로 길지 않은 극본을 만든다.
- 되도록 많은 사람이 극에 출연하거나 뒤에서 도와 주도록 한다.
- 연습할 때에는 출연자가 하고 싶은 대로 두고 나중에 고칠 점을 알려 준다.
- 출연자의 대사가 막힐 때에는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읽어 준다.

○ 생활 수칙

- 연습으로 인해 정규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 소도구는 가급적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준비물은 잘 관리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활동 과정

〈준비활동〉

○ 극본 쓰기

- 어떤 제목이 결정되면 어떻게 극으로 꾸밀 것인가를 여럿이 모여서 의논한다.
- 의논한 것을 정리해서 한 사람이 극본을 꾸민다. 가능한 한 스스로 극본을 꾸미되, 어려울 때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극본 쓰는 방법을 배운다.
- 극본이 완성되면 쓴 학생이 읽으면서 극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 배역 정하기

- 연출반 : 연출 계획(배역, 장치, 조명, 효과 등 전 무대 기구의 근본적인 계획과 연기 계획, 전 막을 통한 인물의 등장, 퇴장의 동작 및 대화, 대사의 속도, 크기, 강약, 고저 등의 계획)의 작성, 상연 준비, 감독 및 연기 연습을 담당한다.

- 연기반 : 한 팀만 두지 말고 2~3개 팀을 두어 서로 경쟁심을 유발한다. 이 반에 속한 학생은 다른 부서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 무대 장치반 : 무대의 생김새, 크기, 도안 및 제작을 연구하도록 하고, 도구의 제작, 무대의 조립, 배치, 분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소품반 : 무대 위에 내놓는 소도구, 연기자의 몸에 지니고 등장하는 소품 등을 구분하여 제작, 수집한다.
- 의상반 : 입는 것의 도안, 수집을 담당하고, 분장도 여기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 조명, 효과반 : 무대 조명과 무대상의 의음(의태어, 의성어) 조작과 수집이 주된 일이다.
- 무용반 : 무용을 잘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다. 실제로 춤을 추는 사람은 연기자들이므로 그들의 안무 지도가 주임무이다.

이상의 조직은 어떤 연극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극본에 따라 가감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전 학생을 모든 조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중심 활동〉

- 연습
 - 배역을 맡은 연출자들이 등글게 모여 앉아 극본을 보면서 극본의 차례대로 자기가 맡은 역을 읽는다.
 - 두번째 읽을 때에는 극본의 분위기에 맞게 감정을 넣어서 읽는다.
 - 다음에는 감정에 표정까지 곁들여서 읽는다.
 - 극본에서 자기가 맡은 대사와 차례를 암기한다.
 - 서서 동작 연습을 하되 대사, 표정, 동작이 잘 조화되도록 한다.
 - 반복하여 연습하고 대사가 막히면 뒤에서 읽어 준다.
 - 소도구를 사용하면서 연습한다.
 - 조명, 효과 음악까지 넣으면서 총연습을 한다.
- 실제 공연

- 총연습 때와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
- 막힐 때에는 뒤에서 낮은 소리로 읽어 준다.
- 조명 효과를 내서 극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준다.
- 분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화장은 지나치지 않게 한다.

〈정리 활동〉

- 마무리
 - 극이 끝나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된 점을 들어 서로 칭찬한다.
 - 공연 장소의 뒷정리를 빨리 한다.
- 반성
 - 이야기의 주제와 줄거리가 보는 사람에게 잘 전해졌는가?
 - 서로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있게 충실히 하였나?
 - 출연자의 연기는 자연스러웠나?
 - 무대 장치, 효과, 소도구는 제대로 활용되었나?
 - 극본 쓰기부터 연습과 공연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도와가며 하였는가?

※ 촌극 자료

- 우리 나라의 고전이나 전설을 촌극으로 꾸미기 : 심청전, 콩쥐 팥쥐, 흥부전, 허생전, 별주부전, 춘향전 등의 이야기를 일부분만 극으로 꾸미면 재미있는 연극이 된다.
- 동화를 촌극으로 꾸미기 : 개미와 베짚이,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토끼와 거북 등을 극으로 재미있게 꾸며 보자.
- 성경 이야기를 촌극으로 꾸미기 : 솔로몬 왕의 지혜를 나타낸 아기의 친어머니 찾아 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극의 좋은 재료가 된다.
- 시사적인 것을 촌극으로 꾸미기 : 챔피언의 권투 시합, 유명 선수의 육상 골인 순간 등 그때 그때 알맞은 것을 아나운서의 해설 형식으로 흥미있게 엮어 보자.

※ 촌극의 응용

○ 무언극하기

- 말없이 동작만으로 극을 하는 것이다.
- 동작은 크고 넓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음악을 준비하여 음악에 맞춰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하나의 무언극을 갖고 여러 사람이 반복함으로써 동작을 서로 비교하면 재미 있다.

○ 무언극에 알맞은 촌극

- 엉터리 의사<예시>

의사 차림을 하고 혼자 나와서 맹장 수술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진찰을 하고 마취 주사를 놓고 가위로 뱃가죽을 자르는 흉내를 내고, 또 맹장 수술 후 꿰매는 모습과, 잘못해서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맨 것을 알고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큰 동작으로 나타내어 웃긴다.

교내 학예 발표회

1) 활동 개요

청소년들이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주인공이라면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와 지나친 기대는 청소년들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 과외 시간을 이용한 예·체능 활동은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들의 소질과 취미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육을 곧장 싫증을 느끼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나쁜 습관만을 길러 주고 있다.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치적인 학예회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무용, 연극, 합창, 시화전 등 정서 생활의 여러 면을 경험하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임은 물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창작 발표를 통한 창의력 신장과 잠재 능력의 계발, 협동 정신,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 무용, 연극, 음악 등의 창작 발표회를 통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 개인의 기능을 더욱 길러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는다.
- 예능 종합 발표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도모한다.
- 작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

3) 준비 사항 : 각 분과별로 준비한다.

- 무용 분과 : 녹음기, 테이프, 의상, 큰북, 장구 등
- 음악 분과 : 각종 악기, 녹음 테이프, 악보
- 연극 분과 : 극본, 소도구 등
- 문예 분과 : 시, 서예 작품 수집

4) 유의 사항

- 일반 수칙
 - 무용, 연극의 프로그램은 되도록 쉬운 것을 택한다.
 - 자기가 느낀 대로 마음놓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다.
 - 모든 학생이 한 분야 이상씩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타성적이고 모방이 되지 않도록 한다.
 - 표현의 기교를 가르치기 전에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먼저 가르친다.
- 생활 수칙
 - 연습 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 연습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자기가 참여하는 분야 이외의 것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한다.
- 필요한 소품은 가급적 제작 사용하도록 하고,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는다.
- 형식적으로 걸만 화려하게 하지 않는다.

5) 활동 과정

〈준비 활동〉

- 학예회 발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조직한다.
 - 무용 분과 위원회
 - 음악 분과 위원회
 - 연극 분과 위원회
 - 문예 분과 위원회
- 학생들이 적성과 취미에 맞는 분과를 선택한다.
- 분과별로 책임 학생을 선출하고 활동 내용을 토의한다.
- 분과별로 배역을 정한다(연출, 연기, 무대 장치, 소품 등)
-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한다.

〈중심 활동〉

민속 무용, 창작 무용의 실제

- 우리 민속 무용
 - 우리 음악과 장단을 많이 들려 준다.
 - 우리 장단에 대한 멋과 흥을 알게 한다.
 - 우리 장단에 맞추어 움직여 보게 한다.
 - 움직이면서 팔도 자유스럽게 움직이도록 한다.
 - 자유 대형으로 서서 장고에 맞추어 기본 춤사위를 익히고, 빠른 장단과 느린 장단에 맞추어 춤사위를 익힌다.

- 익숙한 춤사위로 반복 연습시킨다.
- 외국 민속 무용 : 외국의 민속 무용을 알고 익혀 즐거움도 더해 주고 학습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학년에 나오는 외국 민속 무용을 택하는 것이 좋다.
 - 스텝 익히기 : 워킹스텝, 투스텝, 스키핑스텝, 켈러핑스텝, 런닝스텝
 - 원으로 만들어 스텝을 반복하고 음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동작을 먼저 익힌다.
 - 짝을 지어 민속 무용을 익힌다.
- 표현 무용
 - 흉내내기
 - 자연과 동물의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낸다.
 - 교내에 있는 나무나 꽃 모양을 보면서 흉내낸다.
 -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흉내낸다.
 -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흉내낸다.
 -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흉내낸다.
 - 자신있는 표현과 시선을 잘 처리하게 한다.
 - 창작적인 표현 무용
 - 흉내내기에서 큰 동작의 표현 방법으로 유도한다.
 - 기본이 되는 쉬운 동작부터 지도하고, 한 동작씩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 시선의 위치는 손 끝을 바라보게 한다.
 - 여러 가지 창작 무용의 사진을 보면서 따라하게 한다.
 - 남의 동작을 보고 따라한다.
 -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창작적인 민요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 음악을 듣고 표현한다.
 - 우리 민속 무용과 표현 무용의 손과 발의 표현이 다름을 알고 표현한다.
- 창작 작품 지도 : 위와 같은 기본적인 단계적 훈련을 토대로 하여 학생

들과 함께 작품을 꾸며 본다.

-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짤막한 동화 내용을 꾸며 본다.
- 다양한 표현을 한다.
- 반복 연습을 통해 아름답고 익숙한 표현을 하게 한다.
- 작품이 짜여지면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한다.
- 총연습을 실시한다.
- 학예회 발표(실제 공연)
 - 장소와 일시를 결정한다.
 - 전 분과를 종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초대권을 작성, 발송한다.
 -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학예회를 실시한다.

〈정리 활동〉

- 발표가 끝난 후 뒷정리를 빨리 한다.
- 전체 학생이 모여 학예회 발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한다.
 - 모든 작품 선정에 무리한 점은 없었는가?
 - 학예회 활동에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었는가?
 -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무리가 없었는가?
 - 학예회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의 협력과 책임 이행 상태는 양호했는가?
 - 작품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
 - 창의적이고 개성적이었는가?
- 문제점
 - 학생들의 정신력이 약해 조금만 해도 빨리 지친다.
 - 다른 과외 활동을 많이 하여 시간 조절이 어렵다.
 - 실내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다.
 - 작품 창작이나 여기에 부수적인 준비 관계가 힘들다.
- 결과 :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과 공부에만 치우쳐 처음에는 학과 성적이

뒤진다고 학예회 발표를 꺼려했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실제 발표를 해 보았더니 전보다 자신감에 차 있고, 내성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것 같아 앞으로는 정서 활동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다.
자료 : 누리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연맹, 1886)

가족초청 학급파티

1) 활동목표

-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 그룹활동을 통해 나와 친밀한 가족 팀웍을 형성한다.
- 행사의 계획부터 실제까지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배우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상

학급의 학생들과 학부모

3) 구성

6-8명을 한조로 구성한다.

4) 준비물

프로그램 계획, 장소 마련, 초청장, 음식, 선물(직접 만든 것)

5) 유의사항

교사는 뒤에서 학생들을 도와준다.

(사전 준비 및 실시, 초청장 만들기, 프로그램 계획하기, 시장보기 등)

6) 효과

-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의 태도 생활화
- 자발적 계획 수립과 준비 등으로 독립심, 창의력 양양
-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구현

7) 내용 및 전개과정

어버이날이나 특정한 날을 정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을 학급에 초청하여 즐거운 게임을 즐기며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모임을 가지기 전에는
 - 실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결정한다.
 -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 모임 길이를 정한다.
 - 초청장을 보낸다.

초청장에는 반드시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가확인서를 첨가한다. 모임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적고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이 입고 와야 할 복장이 있으면 써준다. 색깔이 있는 종이로 초청장을 만들어도 좋다.

- 준비해야 할 음식들은 교사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 케익, 떡, 과자, 빵튀기, 떡볶기, 튀김, 과일, 콜라는 파티음식으로 적당하다. 그러 나 반드시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과자와 콜라만으로 파티준비는 충분하다.

- 놀이계획을 짠다.

홍겨운 활동과 조용한 놀이를 섞어 다채롭게 꾸민다.

- 부모님이 좋아할 모자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두자

○ 프로그램 일정

14:00 맞이하기 - 환영의 풍선을 드리거나 리본이나 꽃을 달아드리고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를 한다.

14:30 서로 소개하기 - 재미있는 게임 등을 이용하여 서로를 소개한다.

15:00 우리의 솜씨발표 - 음료수를 드리고 그 동안 준비해온 노래, 무용, 연극 등을 발표한다.

16:00 식사 또는 다과 - 부페 형식으로 원하는 음식을 드시도록 안내하고, 학생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거들어 드린다.

16:40 여흥 프로그램 - 식사 (또는 다과) 이후에 즐거운 놀이로 홍겨운 시간을 갖는다.

17:00 종합 - 직접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놀이 예시

- 이름 외우기 게임

참가자 명단을 나누어 주고, 정한 시간 내에 자기조의 이름을 가장 많이 외워서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 준비물 : 종이와 필기구

- 불쌍한 강아지

모두 동글게 둘러앉아,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 강아지는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멍멍' 소리를 낸다. 그때마다 강아지를 맞은 사람은 웃지 않고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혹은 쓰다듬는 시늉을 하며) '불쌍한 강아지' 라고 세번 되풀이 한다.

강아지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상대방을 웃겨야 한다. 멍멍 소리를 우습게 내거나 걸음걸이를 강아지처럼 한다거나 해서 웃음을 터뜨리게

할 때까지 이사람 저사람을 찾아다닌다. 웃는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

- 병 채우기

병 1개, 콩 10개, 빨대 1개를 각자에게 나눠주고 “시작”하면 빨대로 콩을 집어 병 속에 넣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병속에 다 넣는 사람이 일등이다.

- 발로하는 릴레이(조 대항 게임) : 원형으로 만든 종이테이프 원을 발로 릴레이 한다.

진행자는 종이 테이프원을 릴레이하는 방향을 통일시키고, 원발인지 오른발 인지를 결정해서 멤버들에게 전달한다.

진행자가 신호하면 각 팀 선두는 정해진 발로 종이테이프 원을 걸러 다음 멤버의 발에 그 원을 전달한다.

원이 마지막 멤버에게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게 된다.

손을 사용한 경우는 벌칙으로 그 사람 앞 사람에게로 원을 되돌려서 게임을 계속한다. 릴레이하는 원을 두개로 할 수도 있다.

- 단추찾기 : * 준비물 : 단추 30개, 빈상자와 나무 젓가락을 멤버 수대로 준비, 모래더미 멤버는 각자 장자와 나무젓가락을 한 개씩 들고 모래더미 주위에 모인다. 진행자가 신호를 하면 일제히 젓가락으로 모래더미를 헤집으면서 단추를 찾는다. 단추를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우승하게 된다.

- 지팡이 잡기

놀이에 참가하는 사람수 보다 하나 적게 의자를 빙둘러 놓는다.

술레는 앉을 의자가 없이 가운데 서서 지팡이 하나를 잡고 서 있다.

술레가 의자에 앉은 사람들 중에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지팡이를 놓으면, 그 사람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못잡으면 술레가 된다.

- 이밖에도 레크레이션 책에 수많은 놀이가 있으니 적절하게 이용하면 된다.

자료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환동 우수프로그램 자료집, 1992.

가을을 여는 조출한 학급 행사

학급행사 때 해볼 만한 놀이, 박현숙(인천 부평동중 교사)

가을에는 모든 게 풍성하다. 입이 풍성하고, 하늘이 풍성하고, 마음이 풍성하고……. 그래서 학급에서도 많은 행사로 교실이 풍성해진다. 이 풍성한 교실에 놀이를 곁들여 더욱 감칠맛나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

학급행사 때 알맞은 때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고 큰 움직임이 없으면 모두 가능한데,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흥미가 시들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대항하여 겨룰 수 있는 놀이로 구성하면 많은 참여와 놀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준비물 없이(준비물이 있더라도 아주 간단한 것) 할 수 있는 놀이면 더욱 좋다.

OX문제

이 놀이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놀이며 문제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학급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답이 O이거나 X가 되는 문제를 20개 정도 준비하여 틀린 사람을 계속 탈락시키면서 최종 승리자만 남겨서 준비한 상품을 준다.

교실에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글을 그려 O가 되는 칸과 X가 되는 칸을 만들어 학생들이 문제의 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하면 더욱 재미있다. 이때 처음 문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지루하게 여기므로 중간에 패자부활전을 하여 놀이에 참여시킨다.

문제의 내용은 학급 행사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절하는데 주로 학급에 관련된 문제가 좋다. 예를 들면 ‘우리 학급에 있는 물잔은 5개다’. ‘OO이는 누나가 없다’. ‘우리 반에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4명이다’. 등 학생들과 의논하여 문제를 만들면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문제가 나온다.

인간 옷놀이

인간 옷놀이는 작은 수의 인원이 즐기는 놀이를 반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변형한 놀이다. 반 전체 인원을 4모듬으로 갈라서 하면 좋다. 4모듬에서 각각 한 사람씩 나와서 인간 옷이 된다. 사회자의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추어 ‘인간 옷’들은 눕거나 엎드리는데, 모두 엎드리면 ‘모’이고 모두 누으면 ‘옷’이 된다.

커다란 전지를 준비해 말판을 그려 놓고 칠판에 붙여서 4모듬이 대항을 하면 학급행사에서도 다른 놀이를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 수 있다.

모듬 대항 놀이

노래 이어 부르기

노래 이어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 주제를 조금씩 색다르게 정하여 이어 부르게 하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 사회자가 노래의 주제를 주고 모듬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게 할 수도 있고 사회자가 지적하는 모듬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게 하지 말고 중간에 끊어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노래의 주제

- 색깔이 있는 노래 :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노란 샤스 입은...’ ‘초록빛 바다 물에...’ 등
- 숫자가 있는 노래 : ‘제 3한강교’ ‘일편단심 민들레’ ‘우산 셋이 나란히...’ 등
- 산이 들어간 노래, 강이 들어간 노래 등 그 주제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다.

인체 조각

인체조각은 사회자가 각 모둠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고 어떤 상황을 설정해 주면 각 모둠원들이 의논하여 그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다. 각 모듬은 조각가 한 사람을 뽑고 나머지 모듬원들은 조각물이 되어 조각가가 원하는 모습을 흉내낸다.

예를 들어 사회자가 ‘버스 안 풍경’ 이라고 주문하면 각 모듬원들은 의논하여 그 모듬의 조각가가 지시하는 대로 버스에 앉아 신문 보는 사람, 조는 사람, 서서 창 밖을 무표정하게 보는 사람 흉내 등을 약 1분 가량 한다. 그 다음 조각가가 그 조각을 설명하고 들어가면 된다. 사회자가 각 모듬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문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상황을 주문할 수도 있다.

점심 시간의 교실 풍경, 수업 시간 풍경, 종례하기 직전의 교실 풍경, 쉬는 시간 풍경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상황들을 주문하면 기발하고도 재미있는 조각들이 만들어 진다.

실내화 쌓기

각 모듬에게 그 모듬원들이 신은 실내화를 벗어서 쌓게 하여 가장 높이 쌓은 모듬에게 상품이나 점수를 준다. 실내화 이외에도 가방 쌓기, 지우개 쌓기, 학용품 모두 꺼내어 쌓기 등으로 변형하여 할 수 있다.

신문지로 할 수 있는 놀이

○ 신문지 길게 찢기

신문지를 각 모듬에게 한 장씩 나눠 주고 가장 길게 찢은 모듬에게 상품이나 점수를 준다.

○ 신문지 빙고

신문지를 한 장씩 나눠 주고 그 신문 안에 있는 글자를 이용해 사회자가 주문한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가장 빨리 한 모듬에게 상품이나 점수를 준다.

○ 작아지는 섬

신문지를 나눠 주고 각 모둠원 전부를 신문지 위에 올라가게 한다. 그 다음엔 그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 다시 올라서게 한다. 계속 접어서 올라서게 하는 데 가장 작게 접어 모둠원 전부가 올라서면 이긴다.

○ 신문지의 용도 말하기

각 모듬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신문지의 용도를 말하게 한다. 중간에 끊긴 모듬은 탈락한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상의 대응으로 쓰인다. 말아서 개를 때릴 때 쓴다. 화장실에 가서 밭을 댕는다. 코를 킁다 등 재미있고 기발한 용도가 나온다.

놀이를 진행할 때는 놀이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길게 하면 재미있는 놀이도 하기가 싫어진다. 놀이에 대한 설명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사가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는 놀이를 두서너 개 선정해 적당한 시간을 각각의 놀이에 배정하여 한다. 한 가지 놀이를 길게 하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더 하자고 조를 때, 그때가 바로 그 놀이를 그만둘 때이다.

아나바다 장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장터)

조용재(대구 효성여중 도덕교사)

함께 하는 5R 운동

영어 'waste'는 '버린다'는 뜻으로 '자원을 낭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3R운동(Reduction 절감, Reuse 재사용, Recycling 재이용)에 Rejection(거절), Recuperation(회복)을 포함한 5 R운동을 소비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때다. 또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책임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5R의 기본 원칙에 따라 쓰레기 주머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지 찾아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귀찮다고 내다 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소비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며 지나친 과대 소비를 거절할 줄 알고, 다시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속에서 ‘되살림’을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되)살림’을 가르치는 ‘아나바다’ 장터

‘아나바다 장터(혹은 시장)’란 서로 함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장터를 말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아나바다 장터’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림(되살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실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적

- 아나바다(되살이) 장터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직접 체험해 보고,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재활용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된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 소유 양식(Having)으로부터 존재, 혹은 공유 양식(Being)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재생(Recycling)의 참의미를 체험하는 데 있다.
- 서로 나눌 줄 알고, 다시 사용할 줄 아는 자세가 곧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한다.
- 친구들이 사용해 온 물건을 내가 다시 살려 사용해 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눌 수 있고 되살림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지도내용

- 단순한 물물교환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들간의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결코 값어치를 매기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

을 기꺼이 바꾸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자세를 갖게끔 지도한다.

- 재활용(되살이)의 의미를 살리면서 새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체험케 한다. 작은 것, 작은 마음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 물건의 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나누고 바꾸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새로이 변화한 나의 모습으로 채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도와준다. 즉 손해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부족한 만큼 사랑과 우정으로 채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며, 다시 쓰는 마음이 자연과 환경,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관련지어 지도한다.
- 구체적인 지도방법
 - 장소는 구애됨이 없이 실내외 모두 가능하며, 시간은 실습과 토론 시간으로 나누어서 약 2시간 정도로 배당한다(될 수 있으면 넓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아나바다 장터를 위해 미리 되살이(교환)할 물건을 준비하도록 한다.
 - 아나바다 장터에 내놓을 물건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나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는 물건, 또는 동일한 것이 있거나 교환하고 싶은 물건 가운데,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책, 옷, 학용품, 액세서리, 각종 생활용품 등 등)이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장터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
 - 한 사람당 2~3가지 이상씩 준비하도록 하고, 가능한 종류가 많을수록 많은 선택과 교환의 기회가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부모님과 상의해서 물건을 준비하도록 권유해 본다).
 - 아나바다 장터에 내놓는 물건에는 꼬리표(물건을 내놓은 사람 이름을 적고 난 후, 물건의 역사, 물건의 쓰임과 가치 등을 재치있게 기록할 수 있는 꼬리표)를 각자가 직접 적어서 달도록 한다.
 -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약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모둠(조)별로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한 다음, 남은 물건은 다시 모아 전체 아나바다 장터를 통

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교환되지 못한 물건이라고 해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
- 장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장소와 음악을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아나바다 장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물건과 바꾼 물건을 기록해 보고 구체적인 자기 느낌을 적어보도록 한다. 개인적으로 소유해 왔던 물건을 공동체 속에서 공유(나눔, 되살림)해 본 느낌과 함께 변화된 자기 모습을 적어보도록 한다(표 참조).
- 아나바다 장터가 끝난 후 각자 또는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 초중고 수준에 따라 실정에 맞게 연구, 보완하여 실천해 볼 수 있다.

■ 느낌 적고 발표하기 양식 ■

학교 ()학년 이름()
◦ 내놓은 물건 : ◦ 내놓은 이유 : ◦ 바꾼 물건 : ◦ 바꾼 이유 : ◦ 아나바다 장터를 하고 느낀 점 ◦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변화된 자기 모습을 한번 적어봅시다. (평소 자신의 생활 모습과 바뀐 자신의 모습을 비교, 설명해서 적어봅시다) ◦ 앞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생(되살이)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1. 2. 3. ◦ 아나바다 장터 외에도 우리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 우리교육 1995. 4.

3. 기타활동 사례

소박하지만 알찬 환경전을 열어 봅시다

박중록(부산대명여고 과학교사)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 6월 3일, 처음으로 환경전을 열었다. 몇 년전부터 환경 동아리를 운영해 오면서 틈틈이 학교게시판을 이용하여 알림글을 붙여왔다. 알림글의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 등이었다.

다시 환경의 날이 다가와 예전의 알림글 대신 ‘좀 더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환경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들의 환경실천의지를 북돋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점심시간을 이용한 환경전을 생각하게 됐다.

마침 분리수거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모아둔 엄청난 양의 강통을 처리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도 환경전 행사 계획은 겁없이 진행되었고 여러 선생님들과 환경반 학생들의 준비를 거쳐 성황리(?)에 치러졌다.

여러 마당으로 구성된 환경전

불거리 마당

‘사라져 가는 우리 동·식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동·식물’에서는 이 땅의 동식물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현황을 알려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호소했다.

자료는 현암사에서 발행한 엽서를 코팅하여 만들었고 이에 설명글을 덧붙여 이용했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에서 빌려온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의 환경포스터와 환경문제의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을 펼쳤으며 처음 대하는 여러 내용들을 아이들

은 관심있게 살펴 보았다.

나눔 마당

환경반 아이들이 1, 2학년 학생 2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들의 환경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환경실험대를 설치했다. 환경실험대에서 아이들은 말로만 듣던 합성세제 등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마당

‘생명나무 만들기’와 ‘강통 찌그러트리기 대회’가 펼쳐졌는데, 아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기도 하다.

생명나무 만들기는 4명이 한 조가 되어 생명나뭇잎을 만들어 환경반 아이들이 대형합판과 헌 골판지 등을 이용해 미리 뼈대만 만들어 중앙 현관 앞에 세워둔 나무에 붙이는 행사이다.

강통 찌그러트리기 대회의 참가 신청서도 생명나뭇잎으로 대신했으며, 행사장 한 곳에 나뭇잎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을 많이 들이거나 잘 만들어진 것은 시상했다.

‘폐지에서 새 생명’ (폐지를 이용해 만든 3학년 1반 팀), ‘산성비는 싫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머리가 빠지잖아요’(적은 머리숱을 가진 담임에 대한 아이들의 애정어린 걱정을 담은 3학년 2반 팀) 등의 기발한 문구와 폐지, 과자봉지, 빈강통 등의 재료를 이용해 만든 나뭇잎이 생명나무의 푸르름을 더해 주었다.

‘강통 찌그러트리기 대회’ 구호도 거창했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속을 시원하게!! 공부로 약해진(?)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그러면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양을 줄이는 작은 일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아이들이 가장 즐겁고 신나게 참가한 행사로 참가 팀이 많아 전날 예선을 가져 본선 진출팀을 가렸다.

본선에 24팀이 올랐고 정해진 시간(3분) 동안 납작하게 만든 강통수를 헤아려 승부를 가렸다. 강통을 찌그러트리는 도구는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아이들

은 튼튼한(?) 발과 심지어 돌맹이까지 사용했고 본선에서는 예선서는 보이지 않던 무시무시한(?) 망치까지 등장했다.

본선이 끝난 후에는 남아 있는 모든 강통을 운동장에 흩어 놓고 구경하고 있던 학생까지 모두 합세해 강통을 납작하게 밟으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신나게 풀었다. 동시에 ‘언제 이 많은 강통을 찌그러트려 모으냐’ 고민하던 교사와 분리수거장 담당 학생들의 걱정도 말끔히 풀어주었다.

몇 가지 강조점과 프로그램 안내

작년 행사를 바탕으로 올해도 환경전 행사를 가지려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전 행사를 통해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려 한다.

-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교정에 피는 봄꽃들을 소개하고 나무이름 달아주기과 과학실의 민물고기 소개하기, 기형어 사진을 전시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우리 주위의 자연 환경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고, 이 애정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길 바라고 있다.

-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바른 인식의 틀을 갖는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환경도서를 소개하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퀴즈대회’ 등을 갖는게 기능하지 싶다. 교내 분리수거 운동과 관련해 그 효과를 알리고 바른 실천 방법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이용한다. ‘우유갑 씻기 대회’ 나 ‘모아진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대회’ 등의 방법이 가능하리라.
- 환경 관련 활동이 학교내에 뿌리내리는 기회로 이용한다.
-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한다. 환경반 중심의 활동에서 좀 더 많은 동아리가 여러 내용으로 참여하는 학교 전체 행사로 확대할 생각이다.

사진반은 환경관련 사진 전시회를, 음악반은 환경노래부르기를, 시사반은 환경토론회를, 만화반은 환경만화그리기를, 문예반은 환경시화전을, 미술부는 학교 소각장 벽에 환경그리기 등의 여러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에 적극성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학생 모두에게로 넓히는 기회로 이용한다.

준비 및 진행

환경부 교사와 학생회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진행한다. 행사 시간은 환경의 날이나 특활시간을 이용하고, 필요한 예산은 과학 실험실습비와 특활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소는 중앙 현관과 운동장, 복도와 실험실 등을 이용한다.

첫째주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일정을 마련한다.

둘째주에는 전체 학생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참가신청서를 배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행사를 맡아 진행할 학생과 동아리를 결정하고 행사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계획을 가진 학생이나 동아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살펴 우선 참가시키고 나머지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배정한다.

셋째주에는 도움을 줄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예산 및 필요한 물품을 배정하고 구체적 내용과 진행방법을 준비하도록 한다. 운영위에서는 행사를 알리는 알람글을 붙이고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참가신청을 받는다.

넷째주에는 각 행사마다 구체적 준비를 마치고 행사장을 배치한다. 필요한 행사의 경우 예선을 실시하고 환경전 당일 본행사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작은 환경전은 부족하나마 모두가 함께 하는 가운데 주변환경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학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소규모 문화 행사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꼭 환경전의 형태가 아니라도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복돋을 수 있는 다양한 일상활동이 쉽없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글을 맺는다.

환경보전산행

1) 활동목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원절약,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2) 대 상 : 학생

3) 필요인원 : 전체진행자 1명, 선발대 2명, 레크레이션지도자 1명, 참가자

4) 준비물

현수막, 참가자 명단, 반별리본, 유인물, 보물찾기 쪽지, 북마크, 스티커, 피켓, 반별지시문, 반별물품(수거비닐, 나무젓가락, 도시락, 간식), 카세트, 테이프, 상품, 참가기념품, 쓰레기, 수거상품

5) 유의사항 : 참가자들 복장은 간편한 바지 차림, 운동화 또는 등산화로 한다.

6) 효 과

- 참가자들의 봉사의식, 자연보호의식, 협동심 양양
-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양양

7) 내용 및 전개과정

■ 프로그램 일정표 ■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10:30	집합 및 환경보전 캠페인 (선발대 출발)
11:20	개 회 식
11:30	출발 보고 및 반별물품 배부
11:40	산 행
12:30	점 심 식 사
13:30	레크레이션 및 보물 찾기, 쓰레기 줍기
15:30	시상(보물찾기상, 쓰레기 수거상, 으뜸상)
16:00	하 산
16:50	도 착 신 고 및 해 산

8) 세부내용

- 집합 및 환경보전 캠페인 (선발대 출발)
 - 현수막을 설치한다.
 - 참가자들이 도착하는 대로 명단확인을 하고, 반별 리본, 어깨띠, 유인물 (일정표, 노래 등)을 나누어 준다.
 - 참가자들은 어깨띠와 반별 리본을 달고 북마크와 스티커를 등산객에게 나누어 준다. 일부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선발대는 추적기호를 남기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둔다.
- 개회식
 - 반별로 정렬한다.
 - 개회를 선언한다.
 - 인사말씀이 있고 난 후, 다같이 결의문을 낭독한다.
 - ‘하루의 산행’이라는 노래를 전원이 제창한다.
- 출발보고 및 반별 물품배부
 - 반별로 출발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은 사람이 추적기호 설명서와 지시문을 준다. 반장은 반원들에게 지시내용을 읽어주고 지시대로 행동에 옮긴다.
 - 지시대로 반별물품(도시락, 간식, 수거비닐, 젓가락 등)을 배부받고 산행을 시작한다.
 - 마지막 조는 추적기호 및 지시표시를 수거하며 올라감을 주지시킨다.
- 산 행
 - 도표로 길찾기를 하며 산행한다.(추적기호와 편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산행중 쓰레기를 수거한다.
- 점심식사
 - 마지막 조까지 다 모이면 반별로 자연스럽게 앉아서 ‘식사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시작한다.
 - 식사를 다 마치면 먹고난 쓰레기를 각자 봉지에 담고 짐들을 한데 모아 둔다.

- 레크레이션 및 보물찾기, 쓰레기 줍기
 - 간단한 노래와 게임, 포크댄스 등을 즐기고 난 후 보물찾기를 하면서 반별로 쓰레기 줍기를 실시한다.
 - 보물찾기는 1인당 1개만이 유효함을 미리 주지시킨다.
 - 쓰레기를 줍고 3시반까지 모임을 알린다.
- 시 상
 - 보물찾기 상품을 수여한다.
 - 반별로 모은 쓰레기를 심사하여 1등인 반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 행사하는 동안 가장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하여 으뜸상을 시상한다.
 - 참가기념품을 배부한다.
- 하 산
 - 출발지에서 집합하기로 하고 반별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하산한다.
 - 눈에 띄는 쓰레기를 주으면서 하산한다.
- 도착신고 및 해산
 - 반별로 도착하면 반장이 도착신고를 한다.
 - 탬스로 하루를 정리한 후 해산한다.

자료 : 걸스카우트 연맹(1992), 대활동우수 프로그램 자료집.

전일제를 이용한 생태탐사 현장학습

임종길(수원 송원여중 미술교사)

생기 넘치는 교육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고농도로 정제된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들이 섭취하는 교육이라는 음식이 마치 영양분만을 뽑아 정제시킨 알약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음식이란 단순히 그 안에 포함된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음식 안에는 영양소와 상관없는 향내와 음식을 만드는 동안의 어머니의 손맛도 함께 들어 있는 것이다.

현장학습은 이런 풋풋한 살아 있는 음식과 같다. 입 속에 들어가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고 언뜻 영양가 없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부분도 함께 씹혀 들어가는 그런 음식인 것이다. 따라서 현장학습에서 지식으로 얻는 것은 느리고 적을지 몰라도 체험을 통해 느끼는 감동과 지식은 값진 경험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은 이론 위주의 편중된 학습을 받는 아이들에게 학습활동의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교과 시간에 현장학습을 실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현장학습을 소개한다. 필자가 맡고 있는 특별활동 부서는 '환경사진반'이다. 이름은 사진반이지만 주목적은 생태탐사라 할 수 있다. 아이들과 주변의 산과 개울을 찾아 자연을 접해 보는 것이다.

생태탐사를 위한 현장학습 안내

1) 출발전 준비

우리 학교는 특별활동을 전일제로 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미리 목적지를 정한다. 너무 멀리 잡으면 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탐사할 곳은 특별한 곳일 필요는 없다. 도시 같은 경우 학교 주변의 약수터나 공원도 괜찮다. 물론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좋겠다. 평소에 교사가 미

리 장소를 물색해 두는 것이 좋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전날 학교에 야외 수업을 위한 결재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합장소를 전달하고 준비물도 확인시킨다.

2) 준비물

교사 : 카메라, 식물(곤충, 물고기)도감, 특활일지, 채집망, 줄자

학생 : 카메라, 필기구, 도시락,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카메라가 없는 학생)

3) 현장도착(09:30)

정해진 집합장소로 직접 모인다. 인원을 파악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 모둠별로 파악하고 활동도 모둠별로 한다. 예를 들자면 호박꽃조, 방울꽃조, 할미꽃조 등으로 조사대상에 따라 모듬을 나눌 수 있다. 인원 파악이 끝나면 그날 탐사할 곳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4) 현장학습(10:00-13:00)

뒤에 소개되는 ‘현장학습 내용’ 참조

5) 점심시간(13:00)

점심 준비는 가능하면 인스턴트 식품을 삼가도록 하고 간단하게 고구마나 감자를 싸오게 권장하는 것도 좋다. 일회용 도시락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함께 모여 맛있게 점심을 먹으며 정리한다.

6) 해산(13:40)

그 날 찍은 사진은 다음 주말까지 현상해서 잘된 것만 골라 인화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사진들은 다음 현장학습 시간에 간단히 평해 주고 우수작도 뽑는다.

현장학습 내용

식물이름알기

식물 이름을 아는 것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들은 물론 특별히 멋있거나 희귀한 식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학교를 오가며 흔히 보는 풀일 수도 있고 주말 교외를 찾았을 때 보았던 이름모를 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알다 보면 하찮게 느껴지던 이름모를 풀들도 소중한게 여겨질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서점가에는 식물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책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꽃들

민들레, 질경이, 소리쟁이, 냉이, 고마리, 머느리밑씻개, 억새, 망초, 한삼덩굴, 애기뽕풀, 수크령, 쑥부쟁이, 명아주, 달맞이꽃

물 속 생물을 통한 물의 오염도 측정

마침 개울이 있으면 그물이나 채집망을 이용하여 물 속에 있는 생물을 직접 잡아 관찰해 봄으로써 물의 오염도를 알아볼 수 있다. 대개 개울은 산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개울을 따라 수질을 조사하다 보면 물의 오염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어 좋다. 복잡한 이론으로 듣던 환경오염의 수치(pH, COD, DO 등)보다 더 확실하게 환경오염을 체험할 수 있다.

수질 등급과 생물

- 1급수 : 오염이 안된 깨끗한 물

옆새우류, 강도래 애벌레류, 뿔알락하루살이 애벌레, 뗏메기 애벌레류, 폴라나리아, 버들치

- 2급수 : 조금 오염된 물

말조개, 꼬마하루살이 애벌레, 붕어, 잉어, 송사리, 피라미, 미꾸라지, 납자루, 다슬기, 잠자리 애벌레

○ 3급수 : 더러운 물

거머리류, 원돌이물달팽이, 등각류, 논 우렁이, 잉어, 붕어류

○ 4급수 : 오염이 많이 되어서 아주 더러운 물

실지렁이류, 깔다구 애벌레류(생물이 전혀 살지 못할 것 같은 도심을 지나는 하천에서 볼 수 있다)

식물분포조사

물속의 생물을 통해 물의 오염도를 알 수 있듯이 식물의 분포를 통해서도 생태계를 읽을 수 있다. 일정한 넓이 내의 식물군을 조사하거나 개울로부터 식물 분포를 단면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 이 또한 개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오염에 따른 식물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식물 그리기

식물의 모양을 그려봄으로써 식물을 잘 알 수 있다. 이 활동은 카메라를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이 한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그리면 식물 이름을 적어 전시해서 다른 친구들이 감상할 수도 있다.

카메라에 담아 본 자연

풀이나 꽃, 나무 등을 카메라에 담아 보자. 작은 꽃을 찍을 때는 접사렌즈를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진 작품들은 가을에 있는 특별활동 발표회를 통해 전시한다. 꼭 그런 전시회가 없어도 날을 정해 복도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자연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 우리교육 1995. 6.)

자연속으로 떠나는 미술여행

(강경근, 경남 합천 용주중 미술교사)

인공의 그늘 아래 사라지는 김수성

“지난 3백년 동안 기술 문명이 부추겨 온 ‘도시 살림’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 도시 아이들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란 적도 없었다.

자연과 동떨어진 인공의 외판 섬에서 수 많은 아이들의 감각과 의식이 잠들거나 죽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아이들을 점점 자연과 격리시켜서 살벌한 시멘트 벽에 가두어 놓은 어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감각을 제대로 일깨워 주어야 하고 그것은 자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감각의 기초 정보를 자연에서 얻지 못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힘을 기를 수 없다.

우리나라 도시사회를 건설한 지배세력의 의식 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도시를 살벌한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은 자연이 없는 회색 시멘트 도시환경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위 글은 윤구병 교수의 『실험학교 이야기』(보리)에 나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꼭두각시로 자란다고 하며, 이런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 속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런 지적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도시사회의 살벌함만 이야기하면, 그럼 농촌학생들은 도시 학생들이 받는 폐해를 받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촌 학생들도 도시학생 못지않게 현대 문명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고, 같은 TV를 보면서 같은 생각, 같은 유행, 같은 말투를 배워가는 현실에서 농촌학교라고 도시와 달리 자

연과 호흡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자연을 교육현장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을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연을 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시 학생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항상 곁에 자연이 함께 하고 있어 오히려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기 일쑤인 농촌학생들에게는 우리는 결코 자연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은 삶의 터를 찾아 등지를 틀고 있는 자연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또 다양성을, 창의성을 스스로 키워 나가게 해야 한다. 자연은 이 세상에서 확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속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작지만 자연을 이용한 미술활동의 한 부분으로 모래조소 만들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요즘은 야영이나 가방없는 날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여름방학이면 강가나 바닷가로 떠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이런 모래조소를 한번쯤 시도해 보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설정 및 실시 시기

모래조소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강가나 바닷가이다. 학교 주변에 이런 장소가 있다면 금상첨화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때나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위에서 이야기한 야영이나 놀이 때 한번쯤 해보면 좋을 것이다.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수영만 하다 오기 십상이고, 학생들도 그저 신나게 물놀이만 했다는 기억만 가지게 되는데, 이런 모래조소를 해본다면 학생들은 색다른 경험을 하나씩 더 가지게 되고 미술은 “켄트지에만 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힐 수 있다.

참고 삼아 덧붙이자면 자연을 미술의 소재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작가가 요즘

독일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포장해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이고, 이런 미술을 대지미술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스미드 손이라는 작가도 있고, 행위미술도 이런 미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준비물 및 사전학습

1) 준비물

교사 : 카메라, 스케치북

학생 : 볼펜, 스케치북, 모래삽

각 학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강가에 가까이 접하고 있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미술수업 2시간만으로 모든 과정을 해 낼 수 있었다. 또 수업시간이 3,4교시라 점심시간까지 붙어 있어 시간은 넉넉한 편이었고, 도시락을 들고 가 강가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하게 되니 소풍 떠난 기분까지 느끼고 돌아 온 수업이 되었다.

장소와 일정이 정해지면 사전에 얼마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을 5~6명쯤으로 모둠을 짠다. 모둠을 짤 때는 미술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자질이 있는 학생을 몇 명쯤 분배해서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 마음대로 조직하게 하면 그저 ‘놀자’파들만 모여 작품은 하지 않고 온 모래밭이 좁다고 뛰어다니기만 바쁜 모둠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래조소에 대한 사전학습(모래의 성질, 모래조소 제작방법, 장소 및 이동방법)을 실시한다. 이때 모래를 이용한 작품 슬라이드가 있으면 학생들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동기유발이 될 수도 있다.

모둠이 구성되면 모둠별 토론을 통해 제작할 주제를 선택하여 스케치하게 한다.

2) 장소이동

모래조소를 할 장소가 가까우면 걸어가게 되는데 그냥 밋밋하게 걸어가는 것 보다는, 한 친구는 눈을 가리고 다른 친구가 앞잡이가 되어 걸어보게 한다든지, 두명이서 풀이름이나 꽃이름 맞추기를 한다든지, 제일 예쁜 돌멩이 줍기 대회 등을 하면, 가는 길이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작장소에 도착하면 우선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특히 남학생들은 무턱대고 물로 뛰어들거나, 물장난을 하기 일쑤고, 뒤에서 친구를 밀어 넣어 깊은 물속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많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3) 작품제작

일단 학생들을 모둠별로 모이게 하여 앞 시간에 해 온 스케치를 중심으로 과연 이 스케치가 모래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모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를 의논해 보게 한다.

이때 교사는 너무 복잡하거나 정교한 작품을 제작하려는 모둠이 있다면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모래의 성질상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표현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크게 덩어리만 잡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모듬별 의논이 끝나면 실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물을 적절히 사용하여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또 높이 올리는 것은 두리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 예로 사람도 서 있는 모습이나 앉은 모습은 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누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제작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학생들에게 맡겨 놓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연이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줄 것이고, 학생들은 반짝이는 창의성으로 풍쳐져 있으니,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그저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은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교과서와 교실을 벗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에 넘치게 되고, 교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확 풀게 된다.

더운 교실에 앉아 짜증만 부리던 학생들도 이때쯤이면 더위도 잊은 채 작업

에 몰두하는데 ‘저 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렇게 만 짓만 하고 떠들던 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재미있어 한다.

4) 정리 및 평가

작품이 모두 제작되면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각 모듈별로 돌아가면서 대표자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게 하여, 이런 모래조소가 그저 놀이나 장난이 아니라 미술수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 아쉬우므로, 교사는 카메라를 준비하여 사진으로 담아둔다.

이때 그냥 수업을 끝내는 것보다 조그마한 상품을 준비하여 ‘인기상, 논리상 (말만 잘한 모듈), 작품상’ 등을 뽑아 시상하면 기쁨은 두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물놀이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도시락을 들고 가 소풍의 기쁨까지 느끼고 돌아오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이웃돕기 바자회

1) 활동 개요

바자회 개최를 위한 회장 시설 설치, 시장 조사, 물품 구입 및 판매, 손님 접대, 자금 관리 등의 일을 실제로 해 보고, 그 이익금으로 이웃돕기를 한다.

2) 활동 목표

- 구체적인 근로 활동을 해 봄으로써 근로 정신을 함양한다.
- 손님 접대 방법을 배운다.

3) 준비 사항

취지문, 협조 공문, 집회 허가 신청서(경찰서), 초청장, 포스터, 피켓, 프로그램, 자선함, 안내판, 현수막, 물품 목록, 동전, 쇼핑 백, 명찰

4) 유의 사항

- 시장 조사를 하여 물품을 선정한다.
- 물품 변질 방지에 유의하고, 철저히 검수 한다.
- 이익금의 처리는 합의에 따라 목적에 맞게 한다.
- 제고 정리는 정확하게 하고,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활동 과정

〈준비 활동〉

- 바자회를 위한 준비
 - 바자회 준비를 위해 임원을 선출하고, 업무를 분담한다.
 - 임원 조직 : 준비 위원장, 총무, 관리부, 경리부, 홍보부, 판매부의 임원 약간명
 - 업무 분담 : 대표 활동 → 위원장 → 총무 : 바자회 총괄 → 관리부 : 물품조달, 관리, 운영 → 홍보부 : 바자회 개최에 관한 대외 홍보 → 판매부 : 물품의 판매(판촉) 담당
- 바자회를 운영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기타 필요한 일체의 계획을 수립한다.
- 시장 조사 및 물품 조달 계획
 - 시장을 조사하여 수요자가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정하고 적정 가격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 원자재를 구입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가공 또는 제조 한다.
- 판매원 훈련과 PR 계획
 - 판매원 훈련
 - 물품 안내, 명찰 부착, 물품 전시, 가격 표시, 판매 및 포장, 금전관리, 물

품 파손 주의

- PR 계획
 - 취지문을 작성하여 발송한다.
 - 초청장을 작성하여 발송한다.
 -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관계 부처의 승인서 및 협조에 관한 공문서 발송
 - 포스터 제작 부착
- 물품 전시와 가격 표시
 - 물품 전시
물품 전시 배치도 작성, 물품 전시대 배치, 물품 전시
 - 가격 표시
가격표 작성, 스티커 준비(물품 부착용), 물품에 스티커 부착
- 계산대와 포장 코너 설치
 - 계산대 설치
계산기 준비, 거스름돈 준비(동전 코너)
 - 포장 코너 설치
포장지 준비, 스티커 준비, 가위, 끈, 칼 준비
- 기타
 - 전화, 마이크, 스피커, 앰프 준비
 - 계산대에 2명 배치
 - 포장 코너에 2명 배치

<중심 활동>

- 개관
 - 내빈 안내 및 개관 테이프 끊기
 - 안내원 선정 : 안내원 훈련, 안내원 리본 부착, 안내원 배치, 내빈 안내
 - 개관 테이프 끊기 : 내빈용 리본(꽃) 준비, 개관 테이프 준비, 흰 장갑 준비, 가위 준비

- 물품 판매와 자금 관리
 - 물품 판매 : 물품 판매 일지 작성, 재고 장부 정리
 - 자금 관리 : 판매 입금 및 환전, 금전 출납부 작성
- 손익 계산 및 재고 정리
 - 손익 계산 : 관리비 산출, 물품의 원가(원자제) 산출, 판매 총 수입금 산출, 손익 계산서 작성
 - 재고 정리 : 재고 파악, 재고 반품
- 바자회장 철수 및 장내 정리
 - 바자회장 철수 : 입간판, 현수막, 포스터 철거, 물품 전시대 철수, 계산대와 포장 코너 철수
 - 장내 정리
- 수익금 처리
 - 바자회 준비 위원들이 함께 모여 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협의 한다.
 - 수익금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행한다.

〈정리 활동〉

- 목적에 맞게 바자회 준비(대상, 자금 염출, 품목 선정 등)가 잘 이루어졌는가?
- 바자회 기간 중 모든 운영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는가?
- 바자회 이익금은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는가?

복지시설 위문 활동

1) 활동 개요

우리 사회에는 밝고 명랑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외로우며, 괴로운 곳도 있다. 그 곳을 찾아가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잠시나마 그 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활동을 한다.

2) 활동 목표

- 남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는다.
-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는다.
- 사회 복지를 위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는다.

3) 준비 사항

- 접대에 필요한 것(떡, 과자, 과일, 음료수, 양말, 카세트 녹음기, 은박지 접시, 컵, 칼, 젓가락 등)
-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악기, 기구, 의상, 선물

4) 유의 사항

- 위문 활동은 남을 위한 활동이므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이나 호화로운 복장은 피한다.
- 자신의 입장보다 위문 장소의 어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 시간은 너무 길게 계획하지 말 것이며, 계획된 시간을 엄수한다.
-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는 행동이 없는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5) 활동 과정

〈준비 활동〉

- 위문 활동을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토의한다.
 - 주위의 노인정, 양로원, 고아원 등
 - 어려운 이웃(어린이 가장, 환자를 모시고 있는 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
 - 병원 위문(원호 병원, 국군 통합 병원 등)
 - 부자연스러운 신체를 가진 분(맹아 학교, 지체 부자유자)
 - 군경 위문(전방 국군, 해양 경찰, 경찰관, 교도소)
 -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우체국, 청소부)
- 위문 활동의 목적에 합당하며,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노인정이나 양로원에 위문 활동할 것으로 선정된 경우의 예를 명시해 본다.)
- 방문 계획 수립
 - 진행자는 사전에 양로원, 노인정 방문에 따르는 다음 사항을 토의 협의한다(방문일시, 방문 단원의 수, 레크리에이션 장소 및 종목).
 -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 지도자의 허락을 얻는다(예시)

■ 방문계획(예) ■

날 짜	활 동 내 용	담 당	비 고
○월 4일	방문할 양로원 선정		
5일	양로원과 사전 협의	반장	
6일	양로원 방문 계획 수립	반장	
	레크리에이션 계획 수립	2조	전임 지도자의 지도
8일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홍보	반장	
	레크리에이션 연습	2조	
9일-12일	사랑의 쌀 모으기	전원	
13일	쌀팔기	1조	
14일	떡만들기, 선물 마련	1,3조	전임 지도자의 지도
15일	양로원 방문	전원	
16일	위문 활동 평가, 반성회	반장	

-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수립한다.

〈중심 활동〉

○ 준비물 준비

- 사랑의 쌀 모으기
 - 책임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 ‘사랑의 쌀 모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단장은 교내 방송을 통해 전교생의 호응을 호소한다.
- 모아진 쌀에서 떡쌀을 제외하고 팔아서 선물 및 음료수 등을 준비한다.

■ 준비물 목록(예시) ■

품 목	규격	단 가	수량	가 격	비 고
떡(절편, 달떡, 백설기)	말	4,000원	2	8,000원	수수료 꿀 1상자로 교체로 가함
과 자	봉지	1,000원	30	30,000원	
과 일 (사 과)	상자	16,000원	2	32,000원	
음 료 수 (사이다)	병	350원	50	17,500원	
양 말	컬레	800원	30	24,000원	
은 박 지	중	100원	50	5,000원	
비 널 컵	중	100원	50	5,000원	
나 무 젓 가 락	통	500원	1	500원	
이 쭈 시 개	통	500원	1	500원	
예 비 비				7,500원	
계				130,000원	

○ 양로원 방문

- 예정된 차편으로 양로원에 도착하여 원장을 방문한다.
-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음식과 음료수를 차린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셔 온다.
- 들어오시면 일일이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일렬로 서

서 경건히 맞아 드린다.

○ 레크리에이션 계획

합창, 하모니카 연주, 독창, 부채춤, 농악, 창, 민요접속곡, 레크리에이션 놀이, 합창(연맹의 노래)

〈정리 활동〉

○ 반성

- 양로원 방문은 계획대로 잘 되었는가?
- 다음 방문 때는 어떤 점에 더 유의해야 할까?
-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상하게 한 언행은 없었는지?
- 사랑의 쌀 모으기에 전교생이 적극 참여했는가?
- 양로원 방문한 소감을 글로 써 본다.

○ 편지 보내기

방문 1주일 후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욱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길 비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자료 : 한국청소년연맹(1986), 한별 활동 사례집.

생활 글쓰기의 장으로 삼자

김시덕(강원 삼척 삼일고 국어교사)

글쓰기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우리 주위는 늘 새롭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우리 주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글쓰기이다. 백일장과 관련해 미리 생활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번 백일방은 뭔가 다를지도 모

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글은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생활을 쓴 글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맺음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이때 교사는 글쓰기에 얽힌 두려움 등 자신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의 가치는 아름다운 문장력이 아닌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내 볼 만한 글감

○ 우리 고장(동네) 이야기

우리 고장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 고장의 전설, 인물, 고장 사람들의 성향과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고장의 문화제와 역사적 사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고장의 발전과 나의 역할

○ 우리 가족 이야기

부모님의 뒷모습, 나의 뒷모습, 부모님의 만남과 결혼, 그 후의 생활, 가족들의 직업, 취미, 특징, 꿈 등, 우리 가족들에게 닥친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족의 중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 우리집의 분위기와 내게 미치는 영향, 나와 형제 자매의 출생에서 오늘까지, 내가 가출하고 싶었던 때

○ 생활에 얽힌 경험과 나의 주장

- 학교에서

나는 이럴 때 학교를 관두고 싶었다, 상장과 반성문, 시험, 소풍, 점심시간, 등교길과 하교길에 얽힌 이야기, 진학과 관련된 꿈과 자신의 현실 등, 나를 울리는 친구, 친구와의 갈등, 오해, 내 짝꿍은 기타 기억나는 여러 사건들,

- 나의 주장

입시제도, 이성교제, 친구, 만남과 그리움, 청소년 문화, 환경문제와 나의 역할, 바람직한 학교환경, 기타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과 문제,

현실감 있는 글쓰기란 현장성이 뒤따르는 문제를 얼마나 적절히 해결하여 적용시켜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적 의지가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백일장 또한 학생들의 관념화된 의식의 벽을 허물고 일상의 모든 곳에 의미부여를 시켜 나가는 활동의 장으로 삼는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수련거리 기본형

발행연도	연 번	수 련 거 리 기 본 형
1992년 (총7종)	1	문화권 탐방 활동
	2	바들산 체험 활동
	3	예술 감상 활동
		(부록) 「아름다운 세계」
	4	독서교실 활동
		(부록)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5	명절쇠기 활동
	6	도시·농촌 교환봉사 활동
	7	역사연극활동
1993년 (총21종)	8	청소년 국토탐사 활동
	8-1	그림 그리듯 떠나는 여행
	9	청소년 안전사고 대비훈련 활동
	9-1	안전 지킴이
	10	청소년 민속놀이 교실 활동
	10-1	민속놀이 이야기
	11	청소년 호연 훈련 활동
	11-1	청소년 호연 훈련활동자료집
	12	청소년 자연농장 활동
	12-1	사랑으로 가꾸는 작은 농장
	13	청소년 모의 지방의회 활동
	13-1	신세대 청소년을 위한 토론 광장
	14	청소년 수상 훈련활동
	15-1	청소년 지역사회 명사 만남 활동
	15-2	청소년 노래광장 활동
	15-3	청소년 놀이 한마당 활동
	15-4	부모와 함께하는 역할놀이 활동
	15-5	청소년 모의법정 활동
	15-6	청소년 환경캠프 활동
	15-7	청소년역사 인물 기행 활동

발행연도	연번	수련거리기본형
1994년 (총10종)	16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7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8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19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20	전통문화사랑방 활동 - 우리노래익히기 -
	21	가치관정립 활동
	22	바른시민생활 활동
	23	환경살리기 운동
	24	지역사회봉사 활동
	25	정신건강 활동
		수련거리 기본형 개발보고서 5종
1995년 (총6종)	26	지역사회공개토론회활동
	27	가족캠프 활동
	28	국제교류준비 활동
	29	전통축제한마당 활동
	30	영상음악캠프 활동
	31	생활법률이해 활동
총 계		44종

